

# ‘대출사기’ KT ENS 결국 법정관리 신청

만기도래 기업어음 491억 상환 못해

최근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을 일으킨 KT 자회사 KT ENS가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T ENS는 이날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 49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은행과 책임 공방을 벌여 오던 KT ENS는 직원 김모씨가 협력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한 뒤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물품납품 인수확인서, 매출채권 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핵심용의자 전주엽 뉴질랜드에서 체포

한편 이번 대출사기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앤에스씨를 전주엽(48) 대표가 뉴질랜드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압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08년 10월 휴대폰 액세서리 유통업체인 앤에스씨를 설립해 KT ENS와 거래하며 이번 대출사기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그는 특수목적법인(SPC)까지 동원한 복잡한 사기대출 구조를 설계하고 하나·국민·농협은행과 저축은행들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피해 수천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대진 기자 tipippo@

# 우리·기업銀 도쿄지점도 740억원 불법대출 포착

〈우리銀 610억·기업銀 130억〉

금감원, 특별검사 착수  
비자금 60억 국내유입 포착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도 최대 6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포착됐다. 앞서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지점에서도 불법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6면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약 610억원, 기업은행은 약 130억원의 불법대출이 도쿄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일부가 국내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이들 은행의 도쿄지점 직원 일부가 자신의 연봉보다 과도하게 많은 자금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방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불법대출 자금 규모를 최대 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자금으로 활용된 액수와 용처를 놓고 계속 추적 등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불법대출 연루자와 자금 출처 또한 밝혀져 적잖은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당시 도쿄지점에 근무하

면서 비자금 의혹과 연루했던 직원이 현재 이 은행 자회사(위수탁 업무) 고위 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도 전직 도쿄지점 직원이 비자금으로 국내에서 빌딩을 사 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전직 도쿄지점장도 국내로 유입한 돈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불법대출 규모가 당초 17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검사 과정에서 5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현재 검찰은 최소 2명의 전직 지점장이 부당대출을 연루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이 불법대출을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는 국내에 반입된 금액만 30억원으로 일본 현지에 남아 있는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국내 시중은행의 도쿄지점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신한은행 등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나, 외환, 산업은행은 상반기 중 자체 검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부정대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안철우 기자 acw@

# 지역개발 규제 풀어 14조 투자유발 효과

정부, 지자체 주도형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그린벨트 해제 지역·산지 개발 촉진 산업입지 공급 확대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다변화, 산지 규제 완화 등 지역개발 규제를 풀어 14조 원 이상의 지역투자 활성화 효과를 일으키기로 했다. ▶관련기사 3·4면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

는 이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복지, 환경, 문화 등 주민체감형 사업에 중점을 둔 시·군 단위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해 ‘지역 주도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 이에 맞는 규제완화와 재정·세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5+2 광역경제권’과 같은 행정구역별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지역정책을 지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정책 변화를 꾀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이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일자리·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기본생활 서비스를 서로 교류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을 말한다. 지난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 이후 191개 시·군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현재 구성했으며 이들 시·군이 총 2146건의 사업을 제안했다. 정부는 우선 시·군별로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하고 오는 7월말까지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 주도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업체 3대 분야 77개 과제를 마련했다. 핵심과제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산지 규제 완화, 지자체 자율 재원 1조원 확대, 지역 산업입지 공급 확대, 투자선도지구 신설, 공공수면 매립 시 부분 준공 허용 등이다. 정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총 13조9000억원의 가시적 효과와 투자는 예상되나 효과 산출이 어려운 과제까지 포함하면 14조원 이상의 투자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한 데다 그린벨트 해제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난개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대책이 자칫 6·4 지방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동일본 대지진 3년…수산물 소비 회복세



갈치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134.8% 증가하고 수산물 연어 매출도 42% 늘어나는 등 반등세로 수산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시장이 평일임에도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 “정신나간 애플”

애플이 삼성에 특허 5건 침해를 주장하며 1건당 8달러의 로열티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미국의 2차 특허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대당 40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1일(현지시간)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밝혔다. 포스페이턴츠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

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속기록을 공개했다. 속기록은 지난 1월 23일 투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전문가 증언 배제신청 심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이 5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특허 1건당 8달러, 총 40달러를 요구할 방침이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는 밀어서 잠금

삼성전자 상대 美 특허재판서  
제품 1대당 40달러 배상 요구  
‘과도한 로열티’ 전문가도 비판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변환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다. 삼성은 애플이 디지털 화상과 음성인식 기록 및 재생, 원격화상 전송시스템 등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이 정신 나간 것 같다”며 “5개 소프트웨어에 대해 1대당 40달러를 요구하는 것

은 객관적으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뮐러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애플은 제품 1대당 로열티를 약 7달러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폰은 평균적으로 약 12만 5000개의 특허를 사용한다”며 “애플의 계산대로라면 스마트폰 1대당 드는 특허비용이 100만 달러(약 1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애플과 삼성의 1차 소송 1심 판결에서 투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내야 한다는 배심원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배준호 기자 baeh94@

Money

수요섹션  
19~25년

커버스토리

금융권 신입사원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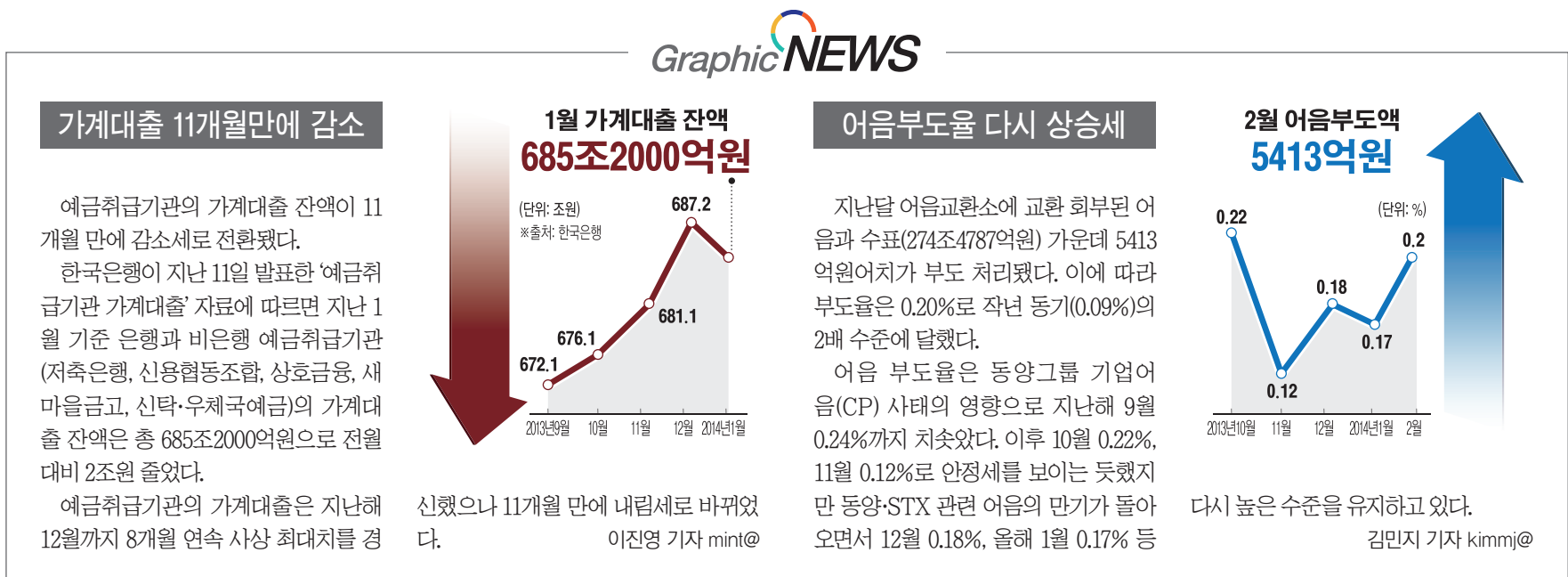
권오순 회장

문태식 회장

▶15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 “KT, 물러설 곳 없다”... 황창규 ‘혁신 드라이브’

〈KT 회장〉



개인정보 유출·영업정지 잇단 악재 ‘흑독한 신고식’  
“비장한 각오와 혁신의 자세를” 직원들에 재차 주문

최근 흑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재차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대출사기, 영업정지 등 잇단 악재에 ‘KT 위기론’이 제기되자 내부 혁신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2일 KT 관계자에 따르면 황 회장은 최근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혁신을 재차 주문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는 메일을 통해 “문제를 알면서도 관행이라며 내버려 두는 태도, 보여주기식 업무 추진, 임시방편 및 부서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만 더 잘못되어도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며 “비장한 각오와 혁신의 자세를 갖자”고 주문했다.

황 회장이 이처럼 배수진을 친 것은 취임

후 발빠른 조직개편으로 경영혁신을 이룰 계획이었지만, 연달아 악재가 터지면서 ‘KT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 대출사기 사건과 보조금으로 인한 영업정지가 압박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며 황 회장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1200만여명의 고객정보 유출 이전에도 2012년 800여만명의 고객정보를 해킹으로 빠져나갔다. 반복된 고객정보 유출로 여론의 비난이 커지자 황 회장이 7일 직접 나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인 황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부적으로 과거의 악습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집단소송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KT에 대한 불신은 가라앉지 않았다. 청와대마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기업에 책

임을 물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자, 황 회장이 최전선에 직접 나서 분위기가 쇄신과 혁신을 지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직원 대상의 메일도 황 회장의 이런 의지를 사내에 알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황 회장은 지난 1월 27일 침몰 직전의 KT를 맡았다. 그는 취임 즉시 고강도 조직개편으로 내부 개혁을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잇단 악재에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6일 자회사 KT ENS의 영업담당 직원과 7개 협력업체 등이 공모해 금융권으로부터 3000억원대를 대출 받은 사기 사건이 터졌다. 경찰 수사 결과 사기 사건의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KT ENS의 내부 시스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화살은 모하사인 KT의 기강해이와 감사부실 등으로 돌아왔다.

악재는 아직도 남아 있다. KT는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혐의로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영업정지 기간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기변경도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날 방통위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추가 제재 들어가는 만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범근 기자 nova@



4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복귀

## 박삼구 ‘책임경영’ 강화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4년 만에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로 복귀한다. 이로써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주력 계열사 등기이사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11일 공식했다.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이 통과되면 이후 회사 측은 박 회장을 대표이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박 회장과 김수천 사장의 공동대표 체

예상된다.

그럼 관계자는 “박 회장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와 마찬가지로 주력 계열사에 대한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의 올해 경영 목표는 주요 계열사의 워크아웃 졸업이다. 박 회장은 올 들어 2번이나 ‘워크아웃 졸업’을 강조했다. 지난 1월 2일 시무식에서 “2014년 경영방침을 제2 차임으로 정하고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의 올해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제시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3주 만인 1월 18

김수천 사장과 공동대표 체제로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 모두 복귀

“올해 경영목표는 워크아웃 졸업”

제로 운영된다.

아시아나항공 창립과 동시에 등기이사를 맡아 온 박 회장은 2009년 말 그룹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2010년 3월 그룹 주요 계열사의 이사를 내놓았다. 이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채권단과 합의한 분리경영 방책을 신선했다. 전문임원은 연구, 기술, 마케팅, 원료, 재무, 법무, 전략, 인사, 홍보분야에서 각각 선임됐다. 이들은 분야별로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회사 전반에 걸쳐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분위기를 쇄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한편 권 내정자는 포스코 계열사 사장단 인사는 14일에, 출자사 임원 및 일반직원 인사는 다음달 1일 각각 발표하고 권오준호의 땀을 흘릴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포스코, 작고 강하게”... 권오준 ‘혁신 다이어트’

〈포스코 회장 내정자〉



6개 부문서 4개 본부제로... ‘철강’ 경쟁력 강화  
경영임원도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임원제’ 신설

‘권오준식 개혁’이 본격화됐다. 권오준(사진) 포스코 회장 내정자는 포스코의 임원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조직을 축소하며 대대적 손질에 나섰다.

포스코는 11일 기획재무·기술·성장투자·탄소강사업·스테인리스사업·경영지원으로 구성된 기존 6개 부문 조직을 철강사업·철강생산·재무투자·경영인프라 등 4개 본부제로 개편했다. 여기에 경영 임원도 50% 이상 줄였다.

권오준식 포스코 혁신의 방향은 ‘작은 조직’ 만들기로 향했다. 권 내정자는 기존 탄소강, 스테인리스, 성장투자 등 사업분야별로 운영하던 조직을 철강사업 및 생산 등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했다. 철강사업과 생산을 분리해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경영과 재무분야를 강

화하기 위해 중전 성장투자사업부문을 재무분야와 통합해 재무투자본부로 재편했다. 조기 수익 확보 등 철저한 재무적 성과를 검증하겠다는 권 내정자의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여기에 그룹 사업구조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 등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가치경영실도 신설됐다. 가치경영실은 그룹 차원의 투자사업과 경영정책 등을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장인환 부사장은 철강사업본부장에, 김진일, 윤동준, 이영훈 사내이사 후보는 각각 철강생산본부장, 경영인프라본부장, 재무투자본부장에 보임됐다. 권 내정자는 평소 철강사업 전문가로 높이 평가해 온 장인환 부사장을 철강사업 본부장에 앉혔다. 김진일 사내이사 후보는 권 내정자와 서울대 금속학과 동기로 포항

제철소장을 거친 철강생산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 포스코의 철강생산을 맡겼다. 윤동준 후보는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받은 경영혁신 전문가이며, 이영훈 후보는 기획재무팀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인사내용 15면  
조직이 축소되면서 마케팅과 생산분야 외 기획, 구매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영 임원의 수도 줄었다.

대신 연구개발(R&D)과 기술분야는 물론 경영관리분야에까지 전문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임원 제도를 신설했다. 전문임원은 연구, 기술, 마케팅, 원료, 재무, 법무, 전략, 인사, 홍보분야에서 각각 선임됐다. 이들은 분야별로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회사 전반에 걸쳐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분위기를 쇄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한편 권 내정자는 포스코 계열사 사장단 인사는 14일에, 출자사 임원 및 일반직

50th  
배콤 50주년

신용의 상징 - 비둘기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필: 1235-1401

## 온 가족 건강관리 배콤씨로 쉽게 챙기자!

몸에 필요한 비타민 B와 C에 항산화 성분까지 채운 배콤씨로 온가족의 건강을  
챙겨 보세요. 두 알 건강! 온가족 영양제 배콤씨로 가족 모두 활력을 되찾으세요.

온 가족 영양제  
**배콤씨**정  
비타민B·C+항산화성분

간간한 여자 비타민  
**배콤씨**이브  
미네랄과 코엔자임 Q10을 더한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본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 (수신자 요금부담)



# 그린벨트 해제지역 상업·준공업시설 활용 가능해진다

〈여의도 면적 4.3배·12.4km²〉

**투자선도지구 규제특례 지원**  
근거법: 지역개발지원법    개발제도: 투자선도지구  
규제특례: ① 인·허가(제(65개법률))  
② 규제특례(8종)  
- 학교·교육과정 특례  
- 의료시설 특례  
- 광역교통개선대책(광역교통관리특별법)  
- 체육시설 특례(체육시설법)  
- 원형지 공급  
- 주택공급 특례(주택법)  
- 용도지역변경, 건폐율용적률 완화(국토계획법)  
- 특별건축구역지정(건축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기대효과**  
① GB 관련 규제 합리화 ..... 8.5조원  
- GB해제후 미착공된 17개소 개발사업 활성화(‘14~’17년, 총사업비 기준)  
② 민간 공원개발 활성화 ..... 0.9조원  
- 원주 등 공원조성사업(약 90만㎡) 본격화(‘14~’17년)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조성 ..... 2.1조원  
- ‘14년 지정되는 3개 도시첨단산업단지(인천, 대구, 광주) 개발 완료시  
④ 투자선도지구 신설 ..... 2.4조원  
- ‘15년 3개소, ‘17년까지 추가 11개소 지정(총 14개소)  
투자규모 합계 ..... 13.9조원

**투자 효과가 예상되지만 산출이 어려운 과제**  
① 농지·산지규제 완화  
②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지정(2015년 6개소+추가선정)  
③ 지역 특화산업 조성(2014년 5개소 선정)  
④ 산업단지 리모델링 (2014년 6개소, 2017년까지 추가 19개소)  
⑤ 혁신도시·기업도시 개발(5개 기존 혁신도시 이전)  
⑥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특화발전 프로젝트 지원 등

**향후 정책 방향**  

과거 정부	박근혜 정부
정책주도 중앙정부 주도	주민·지자체 주도
정책단위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식 하향식 정책	상향식·주민체감 정책
지원방식 부처별 산발적 지원	맞춤형·패키지 지원 (부처협업)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내용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규제·세금·행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역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시가지에 인접한 지역은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으로만 사용할 수 있던 곳에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또 개발사업자가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며 개발사업시 민간출자비율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개발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17개로 해당 지역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4.3배인 12.4km에 걸친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에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든 그린벨트 해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역수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 등 12곳서 17개 사업 진행  
4년간 8조5000억 투자효과 기대

휴양시설 등 산지규제도 대폭 완화  
도시 첨단산업단 9개소 새로 지정  
개발권역, 14개 투자선도지구로

제지역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에 국한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산지규제도 완화한다. 휴

양·힐링·신재생에너지 수요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산지활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산림복합단지지구를 신설해 산림휴양시설 설치율을 높이고 보전산지 내 요양병원에 주차장·관리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발전시설단지 조성에 편입할 수 있는 산지면적도 3m에서 10m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자율재원은 당장 오는 2017년까지 총 7조3000억원가량 늘릴 방침이다.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의 예산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온 특별교부금 일부를 올해부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2조8000억원가량 자율재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첨단산업단지를 9개소 이상 새로 지정한다. 우선 올해 인천, 대구, 광주에 3곳을 지정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6개소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의료기기(원주) △항공(진주·사천) △해양플랜트(거제) △탄소(전주) △나노(밀양) 등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노후된 산업단지 25곳을 리모델링한다.

기존에 5개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는 '투자선도지구'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 3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한 뒤 2017년까지 사·도 생활권별로 총 14개의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정부 주도서 지자체 주도로 개발

## 2~4개 시·군 연계 56개 ‘행복 생활권’ 추진

SW융합 등 특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맞춤형 재정·세제 지원...규제 완화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확 바뀐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역정책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크게 개선된다. 기존 일방적 '지시'나 '명령' 방식이 지역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투자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개 이상 시·군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개발 주도권 지방 손으로 = 정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는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2146건의 사업을 제안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통근, 통학, 통행, 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범위를 기준으로 통상 2~4개 시·군을 연계해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등으로 구성된다.

생활권 유형별로는 부산·광주·창주 등 중추도시생활권이 20개, 충남 당진·서산·태안, 경북 영주·봉화 등 도농연계생활권이 13개, 전북 무주·진안·장수 등 농어촌생활권이 21개 등이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전통산업·산단·관광자원 등 지역사업 육성(626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마을만들기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551건),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구축(445건) 등의 순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7월까지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키운다... 15개 지역특화발

전 프로젝트 = 시·도별로 특화발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지역 공약도 실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우선 1개씩 총 15개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한다. 특히 지역공약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이들테면 영상(부산), SW융합(대구),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인천), 문화콘텐츠(광주), 국방ICT(대전), 친환경 전지(울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경기), 건강생명(강원), 바이오(충북), 디스플레이(충남), 농생명(전북), 해양관광(전남), IT융복합(경북), 항공(경남), 융합수 융합(제주)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선정 후 정부 지원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재정·세제 지원... 움직를 등 규제도 대폭 완화 = 정부는 재정, 규제완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규제를 합리화한다. 특히 지역여건에 따라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창원 사파지구 등 기존 개발사업이 지연됐던 17개 개발사업 활성화로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역 산업입지 공급도 늘린다. 오는 2015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9개소 이상), 지역특화산업단 조성, 오는 2017년까지 노후산업 리모델링(25개) 등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거점 개발도 촉진한다.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에 자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용도 규제 완화 등 맞춤형 대책을 적용기로 했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내 산하형 클러스트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도 인하한다.

김성배 기자 sbkim@

www.kogas.or.kr

## 국민행복을 위한 에너지코리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부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확보에 땀 흘리는 것은  
세계 앞에 당당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자,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KOGAS

글로벌 에너지 종합기업, KOGAS는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행복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ETTER ENERGY, BETTER WORLD



## 2월 취업자 83만5000명↑ 12년 만에 최대 폭 증가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2월 취업자 수가 11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58.6%로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2월 취업자 수는 248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83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2002년 3월 전년 대비 84만2000명 증가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취업자 증가폭 확대와 설 연휴기간이 조사기간에 포함되는 등 전년 동월 대비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7월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폭을 보였고 8~10월은 4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

다. 올 1월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70만명대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이 되는 15~64세 취업률은 64.4%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 주요 분야에서 모두 증가폭이 확대됐다.

15~29세 청년층 고용시장도 다소 개선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40.6%로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38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8000명 증가했다. 1월 청년층 실업률은 10.9%로 1년 전과 비교해 1.8%포인트 올랐다. 다만 2월 졸업시기와 맞물려 실업자 수도 동반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11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9000명 늘었다.

김부미 기자 boomi@

## 지방채무 100조 시대… 재원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문제점은

중앙·지방 재정분담… 지자체 재정난에 현실성 의문

15개 특화사업 중 11개 지역공약과 겹쳐 중복투자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남발 아니냐” 지적도

정부가 12일 지역 주도로 주민 체감도 높은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내용

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우려가 남아 있다. 핵심 전략인 지역핵심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기존의 지역 공약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채무 100조원 시대’ 어려운 지자체 살림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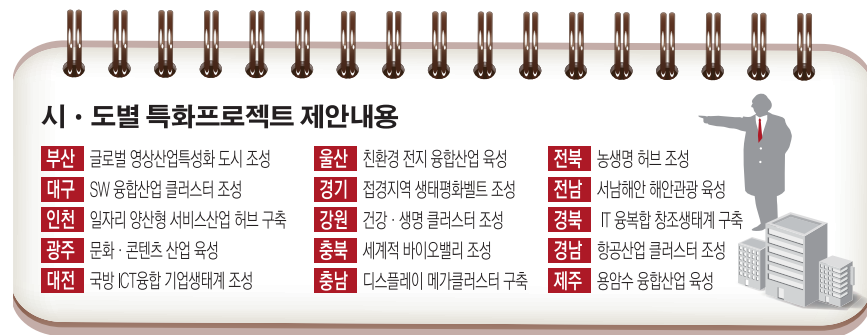
124조원이 소요되는 지방 공약 이행 재원 마련도 험거운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율

재원 확충 등을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예산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

가 붙는다.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큰 틀은 두 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핵심생활권을 단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자체 발굴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후보군으로 생각하는 지역 특화발전 프로젝트 15개 중 영남(부산), SW융합(대구), 디스플레이(충남), 건강생명(강원) 등 11개는 지역 공약 사업과 관련돼 있다.

중복·과잉 투자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예기다. 특히 시도별로 한 개의 사업을 중



점 육성하다 보면 나머지 지역 사업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별 추진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7월말까지 사업 선정작업을 마무리 짓게 될 지역 특화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분담한다.

연일 ‘지자체 무상보육예산 고갈’, ‘지방정부 세입 부족’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지방정부로서는 중앙에 비용 부담을 떠넘길 소지는 충분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체계 개선 차원에

서 작년 9월 내놓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재원을 향후 3년간 4조 5000억원 늘려 나가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만큼 선심성 정책 남발로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가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7월말까지 사업선정이나 세부 내용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새로 취임한 지자체장이 지역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과도하게 지역민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민정 기자 puri21@

## “13조 농업예산 누수 없게 지역특성 맞는 농정 추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취임 1년

이동필(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어려운 집에 시집온 며느리처럼 예산 누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농업예산이 13조5000억원으로 충분치는 않지만 알뜰하게 쓰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떡 사 먹고 엿 사 먹고 하다 보면 모이는 게 없다. 욕 좀 먹더라도 폐기발 사고 소도 사고 자식들에게 미래를 물려주겠다”면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 특성에 맞는 농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농업 개방화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농업인,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며



“평생 연구소에 있으면서 농정 연구를 했지만 막상 운전대를 잡고 보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초등학교생이 1, 2, 3, 4부터 배운다는 마음으로 쫓아다녔지만 내용을 게 마땅히 없어 겸연쩍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농촌과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계 현안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만큼 농업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와 관련해선 “많은 부처가 적극적으로 도와 과거와 같은 불협화음 없이 AI 방역체계가 일상불란하게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 ‘동북아 오일허브’ 만든다

3600만 배럴 규모 탱크터미널 건설

4대 과제 통해 60조 경제효과 기대

정부가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을 위해 360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한다. 또 과세 환급 간소화 등 4대 과제를 통해 60조원의 경제효과를 일궈낸다는 전략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등을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4대 과제로 상업용 저장시설 확충, 석유거래 규제 완화, 석유 트레이더 유치, 석유거래 금융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상업용 저장시설 마련을 위해 2조원대 민간자본 투입으로 울산과 여수지역에 2020년까지 연간 최대 4억 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여수 지역의 경우 오일허브코리아여수 설립을 통해 원유 350만 배럴, 석유제품 470만 배럴 등 총 82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 건설을 완료해 지난해 3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울산 북항엔 석유제품 99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항만접안시설 구축을 2016년까지 완료한다.

남항의 경우 북항사업과 연계해 세부 계획을 수립, 오는 2020년까지 원유 1850만 배럴 규모의 석유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해 현재 세계 3위인 싱가포르 오일허브 저장규모를 넘어선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과세 환급 절차도 완화된다.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통해 과세 보류상태에서 정제 후 내수용으로 사용 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등을 일괄 과세해 행정과 금융비용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석유 트레이더의 투자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 트레이더의 국내 진출 시 수출입 등록 없이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석유 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업자를 신설한다. 또한 해외 트레이더의 국내 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희준 기자 h9913@



**LPG 희망기금 ‘충전’** LPG 업계는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 강화를 위한 ‘LPG 희망기금 충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가졌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한·이란 ‘통신·의료’ 서비스분야 교역 재개

통신·의료·건설 등 서비스 분야의 이란 수출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한·이란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대(對)이란 서비스 교역을 재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대이란 서비스 교역은 통관증명 등 거래 확인이 어려워 제한돼 왔다.

교역 가능 기업은 이란에 대한 수출이나

용역 거래 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으로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경영상담업과 디자인 등 11개 유형의 용역에 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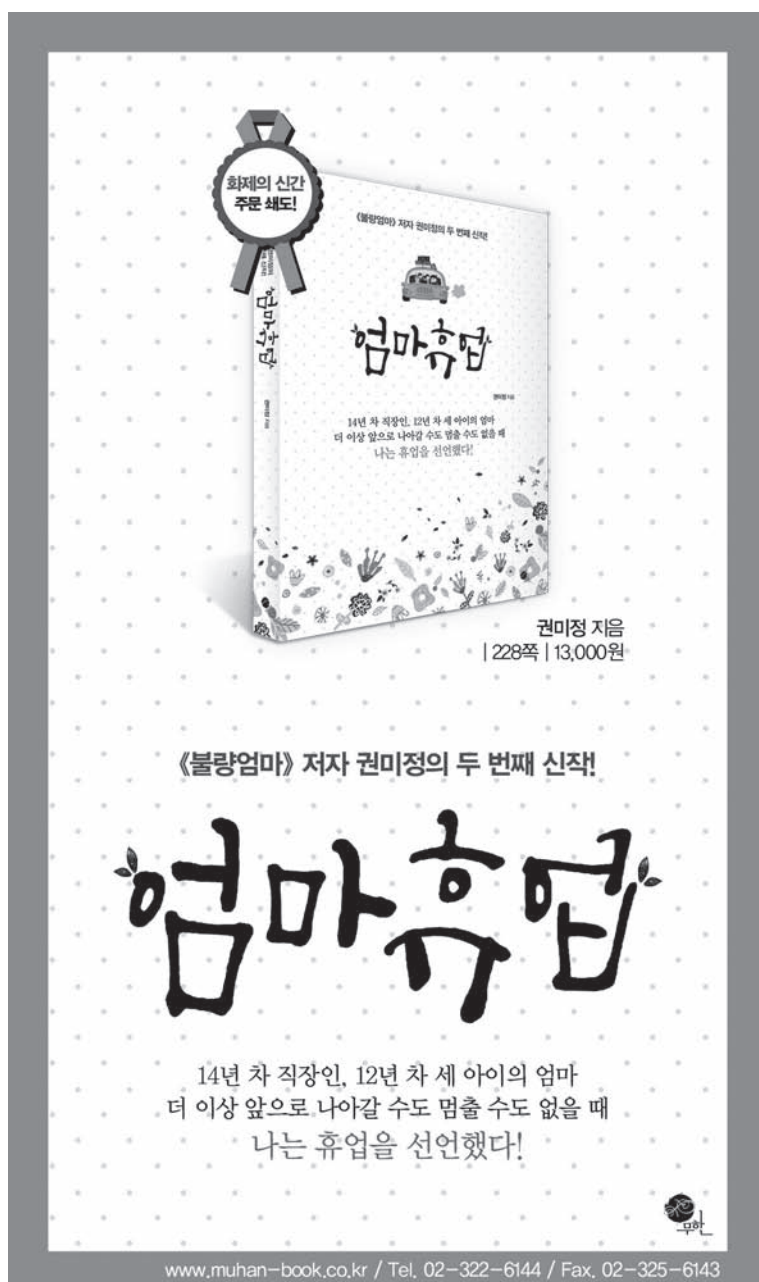
이 중 금융·보험 등 자본 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또는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 이란 교역 관련 일반적 절차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민정 기자 puri21@

## 미래창조과학부의 45일 사업정지 명령에 따른 공표

SK텔레콤(주)는 지난 3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014년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3월 12일  
SK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 성 민





# 글로벌 '경제영토' 61.4%로... 칠레·멕시코 이어 3위권

## 한·캐나다 FTA 8년 8개월만에 타결

한국산 자동차 최대 수혜... 관세 2년내 철폐

日과 경쟁서 우위... 가전제품 수출길도 탄력

쇠고기 수입 관세 40% 15년 걸쳐 없애기로

'캐나다구스' 5만원 내리고 연어 소비 늘 듯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장벽을 허물고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 문턱을 낮추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한·캐나다 FTA 협상의 타결은 특히 자동차와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특실 교환으로 해석된다.

자동차는 한·호주 FTA에 이어 한·캐나다 FTA에서도 최대 수혜품목이다. 지난해 캐나다로 수출된 자동차는 22억2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8%에 달한다. 수출물량 또한 13만3000대로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러시아, 호주에 이어 5번째다.

특히 캐나다는 이번 FTA발효 시점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FTA가 내년에 발표되면 2017년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캐나다가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유럽연합(EU)과는 추가 협상 문제로 발효가 미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 기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미국·멕시코 등과도 동등한 가격경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완성차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을 인정하기로 한 점, FTA 발효 즉시 자동차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한 한·호주 FTA에 비해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은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쇠고기의 경우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한다. 이는 한·호주 FTA에서의 쇠고기 수입 조건과 일치한다.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내년 중 동시 발효된다면 2030년에는 호주·캐나다산 쇠고기가 일제히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가 광우병 발병 전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큰 체감효과를 느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도 주로 유연탄·펠트·원목 등은 이미 관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가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액수의 3분의 2 정도는 이미 무관세(無關稅) 대상이다.

다만 작년 겨울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끈 '캐나다구스'와 같은 의류는 한 벌당 5만원 안팎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의류 수입관세(13%)가 없어짐에 따라 유통 가격 기준으로 3% 정도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메이플시럽(관세율 8%)과 아이스와인(15%)도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져 국내시장에서 판매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어(10%) 등도 FTA 효과로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천연가스(3%) 등도 관세가 없어지면서 안정적 에너지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캐나다 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가 더 넓어지게 됐다. 이번 타결로 세계 GDP 대비 FTA 체결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2012년 IMF 통계 기준)는 종전 58.9%에서 61.4%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칠레(78.5%), 멕시코(64.1%)에 이어 3위권을 기록하게 됐다.

김희준 기자 h9913@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은 자동차와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특실 교환으로 해석된다. 뉴스시스

한국 관세 철폐	캐나다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고기(40%): 15년내</li> <li>· 돼지고기(22.5-25%):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내</li> <li>· 쌀·분유·치즈·감귤·인삼 등 21개 품목: 양허 제외</li> <li>· 꿀·대두·맥아·보리 등 11개 품목: 저율관세할당(TRQ) 부여</li> <li>· 20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용차(관세율 6.1%): 3년내(발효시점부터 균등 인하여 2년 뒤 완전 철폐)</li> <li>· 자동차부품(6%),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 품목별로 즉시 또는 3년내</li> <li>· 타이어(7%) 5년내, 섬유(최고 18%) 대부분 3년내</li> </ul>

## 기초연금 7월 지급 물건너가

합의 불발... 내달 국회로 넘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문정표 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까지 (여야 합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각종 절차를 마련하는 데 4개월가량 시간이 필요한데, 여야의 합의 도출 실패로 7월 지급이 불가능해질

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 고시까지 새로 마련하는 등 법안 정비에 4개월가량 소요된다고 주장해 왔다. 기초연금제도는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들고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 규제심사, 법적제 심사, 지자체 실무담당자 교육, 신청자 자산조사를 통한 자격심사 등 제반 준비과정에 도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합의가 불발된 기초연금 법안 논의는 다음달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은 아무리 빨라도 9월께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문 장관은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합의해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소급 적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합의의 촉구를 했다.

김부미 기자 boomii@

## “증거조작 의혹 남재준 원장 경질하라”

새누리, 선거에 불뚱틸라 전전공공... 야권도 책임론 총공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사진) 국가정보원장 경질설이 힘을 얻고 있다.

비호에 나섰던 새누리당에서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 직후,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 수색에 들어가면서 당내 여론이 싸늘해진 것이다.

특히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살아 부들부들 떨린다"며 "국정원장이 송구하다고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수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병국 의원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국정원이 1년 반 이상 언론의 중심에 등장한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한 방증"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천이계 이재오 의원도 전날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SNS에 "간첩이나 아니냐는 법원이 가릴 문제" 라면서도 "다만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고 글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남 원장 책임론을 들고 나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과 선 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도 "남 원장의 해임은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상규 의원은 남 원장과 사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 年 3조 육박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손질

여아가 연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고 구분회계도 하지 않아 과다수수료가 발생하고, 이 돈으로 과도한 복리후생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배만 불려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2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명재·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에

대한 정부부처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불가장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수수료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 등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김의중 기자 zerg@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선정 - 동부화재

### 건강을 튼튼하게! 노후까지 든든하게!

# 내생애 든든 종합보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종합보험  
165개 담보의 고객별 맞춤보장으로 더 든든하게!  
건강관리에서 노후 준비까지 이 보험 하나로 시작하세요

### 무배당 프리미엄 동부화재 내생애 든든 종합보험

나를 위한 맞춤형 보험	내가 원할 때 돌려주는 보험	나의 마음까지 지켜주는 보험
165개 담보로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맞춤보장 설계를 제공합니다.	적립한금금 50세~100세까지 고객이 원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보장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영역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일 이상 입원시 지급)

\*위 내용은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상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상협의 심의일 제2014-0124호(2014. 1. 20)>



‘불신·불안·부실’ 공화국

상 정부정책, 언제 또 바뀔까

중 정보유출, 어떤 피해 막칠까

하 사기대출, 지금은 없을까

## 금융시스템 경고등이 꺼졌다...한국 경제 빨간불 켜진다

‘5000억원대 불법대출, 1조8000억원 대출사기, 1억건 개인정보 유출...’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허점과 부실, 오작동으로 드러난 출작들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금융권이다. 올 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위조된 대출 서류로 1조8000억원의 돈이 오가는 데도 하나·국민·농협은행 등 피해 은행 16곳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우리 금융권의 허술한 여신시스템을 그대로 보여 준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의 대형 횡령 사건과 올 초 카드사들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이은 대출사기 악재까지 금융시스템 붕괴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금융회사는 민간기업이지만 사회적 인프라를 구성하고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어 신뢰 추락에 따른 경제적 위험수준이 예상롭지 않다.

◇내부통제 경보시스템은 없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대형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부실이 화근이었다. 지난해 1월 농협은행에서는 1300억원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파생상품 딜러 A씨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2010~2012년 거래 가격을 조작하고 가짜 거래 명세를 만드는 식으로 손익을 조작했다. 2년여간 A씨의 거래 조작을 눈치챈 은행 내부자는 없었다.

지난해 11월 발발한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위조사건 역시 2년 넘게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됐다. 더구나 은행 감찰반 직원은 채권을 위조한 사실을 눈감아 줬고 장구 직원은 채권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으로 바꿔 줬다.

올 초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공모 사기대출의 경우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적발하기 전까지 해당 금융사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정밀한 여신관리 시스템 없이 대가입 인감만 제출하면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 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실제 이번 대출사기 사건은 관행에 얽매인 여신심사 시스템에서 비롯됐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겐 지나치게 엄격하면서 대기업엔 지나치게 관대한 금융권의 이중적 자세도 다시 문제로 지적됐다. 1조8000억원의 대출이 이뤄졌지만 현장 방문과 크로스 체크라는 원칙을 무시했다.

원리원칙대로 이뤄져야 할 내부통제가 ‘이제껏 별 문제 없지 않았느냐’는 식의 관행 때문에 무력화됐다. 사고가 날 때마다 같은 금융회사의 이름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의 뿌리가 깊다는 얘기다.

## 2013년 이후 발생한 은행권 대형 금융범죄

농협은행 1300억원

파생상품 거래조작(2013. 1월)

국민은행 112억원

국민주택채권 위조(2013. 11월)

국민은행 1700억원

도쿄지점장 현지기업 한도초과대출(2013. 11월)

카드 3사 1억400건

롯데, 농협, 국민카드 등 고객정보 유출(2014. 1월)

하나, 농협, 국민 1조80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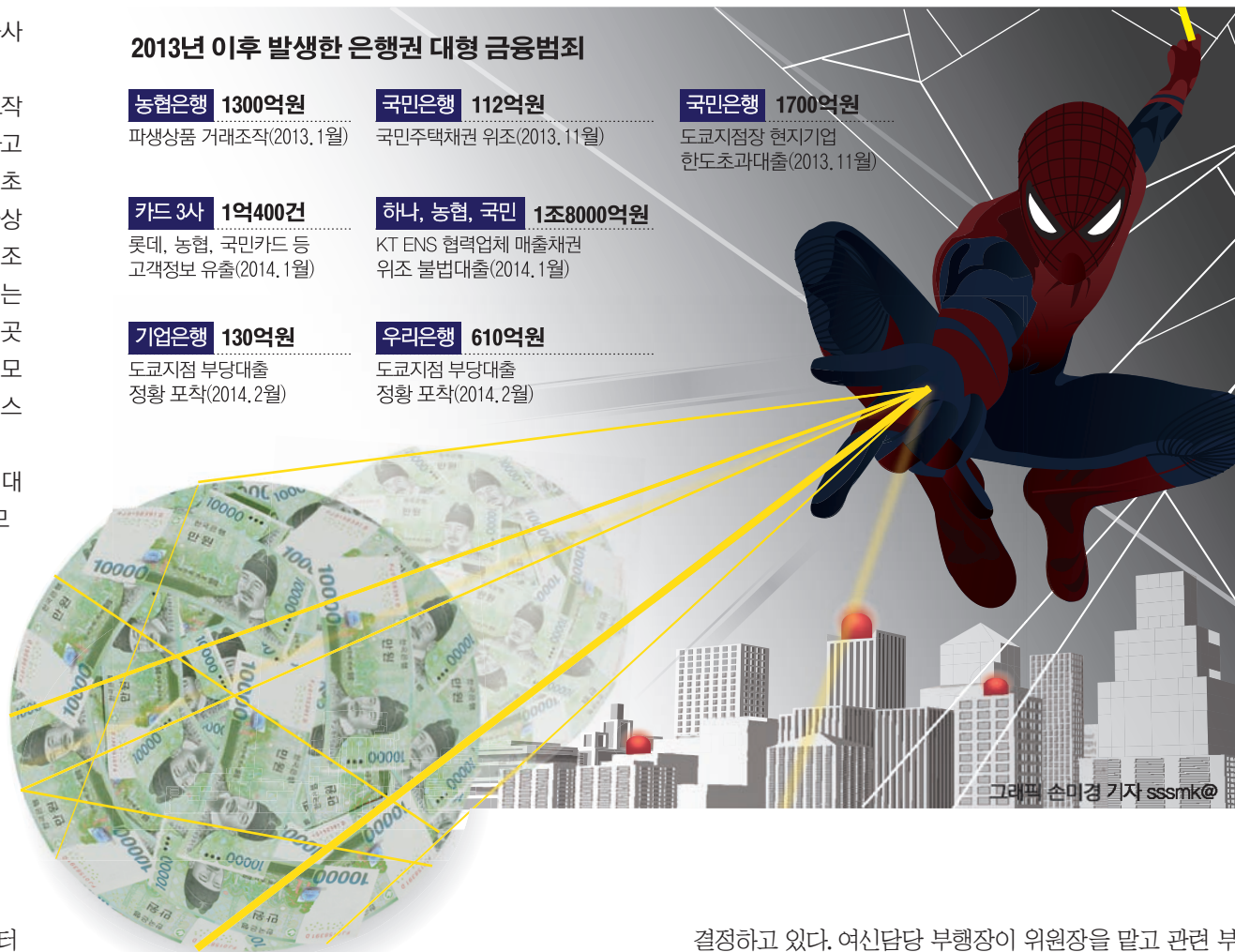
KT ENS 협력업체 매출채권 위조 불법대출(2014. 1월)

기업은행 130억원

도쿄지점 부당대출 정황 포착(2014. 2월)

우리은행 610억원

도쿄지점 부당대출 정황 포착(2014. 2월)



횡령사건에 대출사기·정보유출...

피해은행은 수년간 까맣게 몰라

도덕적 해이·내부통제 허술 '심각'

은행 여신심사시스템 도마 위에

금융, 공적기능...사회적 인프라

신뢰 추락으로 경제까지 '흔들'

◇구조화 여신 문제점 여전히 노출...대출사기 또 터진다 = 우리 금융시스템이 초보적 내부 범죄도 스스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현 금융시스템에 대한 개편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특히 현재 은행권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집하다간 또 다른 대출사기를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현재 은행들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는 기업대출을 여신심사위원회(여신위)를 통해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여신담당 부행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장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여신을 결정하고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은행장은 원칙적으로 대출 심사과정에서 배제된다. 다시 말해 여신·리스크 관리·자금담당 임원과 간부 6~8명으로 구성된 여신위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이다. 과거 은행장 또는 여신담당 최고 임원, 부장이 전결로 대출하던 것을 여신위를 통한 협의체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대출 책임에 있어 은행장 개인에서 집단방어 체제로 변경했다는 점도 큰 변화다. 문제는 여신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심사 과정에 외부 청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대출 비리가 발생해 은행장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금융당국은 은행장의 여신심사 전결권을 없앤 것이다. 그러나 은행장이 여신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부실 대출에 따른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거액의 기업여신의 경우 은행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를 공식화하자는 의견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잇따른 대출사고로 은행장의 실질적 권한에 대한 책임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은행장이 공식적으로 여신심사에 관여토록 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여신이 실행된 이후 사후관리에도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신·심사와 같은 핵심 업무에서조차 기본적인 필수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은행 경영의 방만함과 느슨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에서다.

안철우 기자 acw@

불법·부정...금융사고 막으려면

## “더블체크 원칙 지키고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는 허술한 금융시스템 체계를 단적으로 노출시켰다. 금융권 전체가 초보적 내부 범죄까지도 걸러낼 수 있는 상시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컸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금융회사 관행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형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금액이 큰 대출의 경우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각자 맡은 업무에서 책임을 분명히 지는 문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업무의 필수인 ‘더블체크(재확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은 있지만 작동이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금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라는 인식을 갖는 동시에 도덕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아무리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더라도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용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CEO들이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투자나 직원교육을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려다 보니 이런 점을 이용한 사기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 안전성과 거래 관계를 중시하는 쪽으로 풍토가 바뀌고 CEO의 경영 연속성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보안시스템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보안시스템은 아무리 암호화해도 내부자나 용역직원이 비밀번호를 다 풀 수 있는 구조”라며 “다른 차원의 보안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이버 내부자 위협이라고 하는 국가 차원의 보안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내부자의 행동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정상적 패턴과 다른 행동이 감지되면 이상행위로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김 교수는 “미국도 현재 시스템의 개발 단계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도 빅데이터 기술과 함께 선진화된 보안시스템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 박근혜 정부의 파워 엘리트 50인을 집중 해부한다!

파워 엘리트 50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들!  
정부의 정책과 철학을 숙지해야 하는 이들이라면 주목하라!

박근혜 정부 파워 엘리트 50 | 값 6,000원

청와대, 내각, 국회, 사법부, 경제계, 학계를 총 망라하여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지게 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물 50인의 주요 이력과 인물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고, 생생한 취재를 통해 박 대통령과의 인연, 평소 성격이나 업무스타일, 주변 평판까지 풍부한 정보를 담아냈다. 여기에 인물별 주변 인맥을 낱알이 파헤쳐 거미줄처럼 얽힌 한국의 권력 구조와 인맥, 학맥도 한 눈에 읽을 수 있게 했다.

## 박근혜 정부 파워 엘리트 50

박근혜 정부의 주역으로 활동할 각 분야 핵심 브레인의 면면을 통해 우리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와 발전상을 미리 짚어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신문 '이투데이'  
「뉴 파워 엘리트 50」  
시리즈 기획 기사

ebook





웰빙가전의 名家

Panasonic

세계최초 전동식 휘트니스 승마기 개발,  
20년 연구 검증된 No.1 승마과학은

## 파나소닉 조바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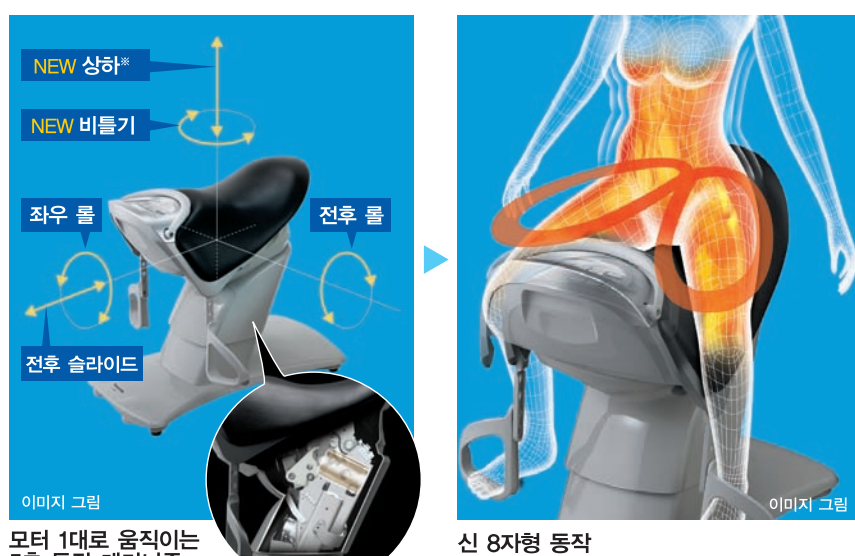
조바의 외형은  
모방할 수 있지만  
기술력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승마요법의 오리지널 -  
**JOBA**  
조바

### 증명된 7가지 운동 효과로 다이어트도 손쉽게

조바는 올라타서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사용하여 우리 몸이 가진 본래의 기능을 이끌어 냅니다.  
근육, 균형감각, 유연성, 당 소비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가족 모두가 간편하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말의 동작을 재현한 5축을 이용한 [신 8자형 동작(5세대)] 채택  
말의 걸음걸이에 근접하기 위해 파나소닉이 철저하게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전후, 좌우의 단순로운 동작뿐만 아니라 [비틀기], [상하]운동을 추가,  
부드러운 승마 동작을 재현하여 운동 효과를 더욱 높였습니다.

#### 허리를 날씬하게

- ▶ 날씬한 허리를 가진 아름다운 보디라인
- ▶ 중년 비만 대책
- ▶ 체형의 결점을 바로잡아 젊고 생기있게

#### 운동 부족 해소

- ▶ 올라타서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된다
- ▶ 헬스클럽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계속할 수 있는 운동 습관
- ▶ 근육을 움직여 당 소비 증가

#### 아름다운 자세

- ▶ 복근과 배근을 단련하여 등이 쭉 펴진다
- ▶ 골반 주변의 근육을 단련하여 자세가 곧아진다
- ▶ 선 자세, 걷는 자세가 아름다운 자세 미인이 된다

#### 다이어트에

- ▶ 근육을 단련하여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 ▶ 조바운동으로 체지방 연소
- ▶ 허리 및 힘의 집중 관리

#### 허리와 다리의 강화

- ▶ 허리 주변 근육의 뭉침을 풀어줘서 유연성 증가
- ▶ 복근 및 배근의 근육 단련
- ▶ 튼튼하고 안정감 있는 허리와 다리

#### 골프 비거리 향상

- ▶ 허리와 다리의 근력이 증가하여 스윙이 안정
- ▶ 고관절 주변의 유연성이 증가하여 매끄러운 스윙 가능
- ▶ 18홀을 거뜰히 돌 수 있는 체력향상

#### 고령자의 보행 능력 유지에

- ▶ 운동으로 다리의 근력을 향상시켜 안정된 보행이 가능
- ▶ 고령자의 무릎, 허리, 심박에 부담이 적은 운동
- ▶ 균형감각 향상

#### JOBA History

#### 파나소닉 승마기(조바)의 진화

세계 최초로 파나소닉에서 탄생시킨 승마 휘트니스 기기 「조바」

##### 1993. 가을

승마 요법 시스템 개발 시작  
유럽의 승마 요법을 사찰한  
니혼과대학(당시)의 키무라  
교수는 일본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본사에  
의견을 타진하였다.

##### 1995. 4~

말 형태의 다리 6개 달린 로봇  
시험 제작



6개 다리로 승마 동작을 재현하였다.

##### 1998. 4~

대학과 공동 연구로 생체에  
효과 검증

후생성(당시)의 위탁 연구보조를  
받아 니혼과대학, 고지대학  
의학부, 고지공과대학과 공동으로  
근력을 중심으로 한 계속 실험을  
실시한다.

##### 1998. 10~

말 형태의 다리 6개 달린  
로봇을 시설에 납품

시설용의 승마  
머신으로 오카  
야마현과 교토  
부의 시설에  
납품.



##### 2000. 10~

가정용 [조바] 판매 시작

제 1, 2, 3 세대  
가정용조바(승마기) 판매 시작

초대 모델 2세대 모델 3세대 모델

##### 2003. 5~

당뇨병 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발표

「승마운동 기기를 활용한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운동요법으로서의  
유효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  
일본체력의학회, 일본핵의학회 등  
에서도 발표하였다.

##### 2005. 6~

4세대 조바 발표

8자형 동작 추가로  
더욱 효과적인 휘트니스를 실현.

4세대 모델

##### 현재~

5세대 조바 신발매

5세대 모델부터는  
비틀림 상하를 추가한  
신8자형 동작 추가로  
승마동작과  
더욱 비슷해졌습니다.



LET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박인비 선수의 통산 14번째 우승—  
세계적 품질의 파나소닉이 세계랭킹 1위 박인비 선수와 함께 합니다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인증기업]



창조브랜드 대상은 Korea CEO Summit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정한 도시(생활) 및 디자인산업, 문화산업, 융합산업, 건강산업 등 4개 분야에 걸쳐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인 브랜드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 판매점 전국 공식 파나소닉 대리점/롯데·현대·신세계 등 유명 백화점/대형 양판점/할인점에서 절찬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 <http://panasonic.kr>  
• 파나소닉 프라자 서초 본점 | (02) 542-8452 서울시 서초대로 254 오피런스빌딩 11층 • 파나소닉 HM프라자 | (02) 755-845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8 • 파나소닉 유휘프라자 | (02) 567-845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9  
• 파나소닉 장안 바우하우스프라자 | (02) 2215-8452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길 288 바우하우스 9층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 (053) 427-3794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171 동아백화점 본점 7층  
• 파나소닉 줄인프라자 | (051) 255-0300 부산시 중구 광복로 95-2 • 파나소닉 명성프라자 | (051) 633-8452 부산시 동구 자성로 10 • 파나소닉 HD프라자 | (062) 382-6666 광주시 북구 상무대로 1273



돈 굴릴 데 없어 한숨짓는 은행

## 기업銀 5조 대출재원 ‘낮잠’

우량기업은 대출 원치 않고

부실 위험 높은 중기만 요구

금융당국 가계빚 안정 정책에

가계대출 늘리기도 어려워

은행권이 대출 재원은 늘고 있지만 마땅한 대출처를 찾지 못해 팔머리를 앓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5조원 상당의 대출 재원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대출 수요가 줄어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가계빚 안정화를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확대 자체를 권고한 만큼 가계대출을 늘리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올 경영전략의 화두로 수익성 제고를 외쳤지만 대출을 해 줄 마땅한 공급처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우량 기업의 대출 수요가 급감한 반면 금융당국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수익구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재 5조원 가량의 대출재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중소·중견기업 대출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대출받을 기업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출 재원은 넉넉하지만 소위 수익성이 있는 우량 기업은 대출을 권해도 받지 않고, 부실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만 대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용이 적게 드는 지원가성예금 중심의 자금조달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은 무리해서 대출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장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독려하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로 부실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은 대기 수요가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수요 만큼 대출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기업 그룹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이미 대규모의 총당금을 쌓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시점에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마냥 늘릴 수 없는 탓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가계생활 안정화를 위해 전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자제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가계대출을 만들고 확대하기도 어렵다. 은행권의 주 수익원인 우량 기업과 가계대출 통로가 사실상 막힌 셈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수익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부실 발생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jiy@

## 작년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7400억 지원

지난해 은행권이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지원한 금액이 7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7개 국내은행은 지난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총 7363억원(4302건)을 지원

했다. 개인사업자 총여신(190조5000억원) 대비 0.39%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억7000만원이다.

만기연장이 56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1385억원), 이자유예(930억원), 분할상환(19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지영 기자 gujiy@

재선 성공 신종백… M&amp;A 시장 돌풍 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오른팔’ 김성삼 신용·공제대표도 연임

여유자금 바탕 현대·대우證 등 검토 중

재선에 성공한 신종백(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2일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 4년간 새마을금고를 이끌게 됐다. 특히 신 회장과 그 동안 호흡을 맞춰 온 김성삼 신용공제사업대표도 연임이 결정돼 M&A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두 사람의 행보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 본부에서 두번째 취임식을 가졌다. 2010년 15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신 회장은 새마을금고 회장에 취임한 후 2년 만에 3000억원에 가까운 결손금을 털어낸 것은 물론 2012년에는 자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새마을금고의 역대 최대의 전성기를 연 신 회장은 오는 2018년까지 자산 15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두둑한 실단을 확보한 신 회장이 올해 M&A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신 회장은 현대증권, 대우증권 등 최근 M&A 시장에 나온 증권사 인수를 검토중이다. 인수



시기와 대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금고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인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금융권 최대 매물인 우리은행 매각이 연내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신 회장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은 최근에도 여러 차례 우리은행 인수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앞서 두 차례 우리은행 인수전에 뛰어들 바 있다.

아울러 신 회장과 지난 4년간 함께 했던 김 대표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신용·공제 부문 총괄, 실무, 대(對) 정부 관계 등을 맡고 있다. 앞서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 MG신용정보(옛 한국신용평가) 등의 인수 작업에도 김 대표가 실무적인 뒷받침을 한 바 있다.

신 회장이 M&A에 적극적인 이유는 장기적으로 종합금융협동조합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8년까지 3월까지 그가 만들어갈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M&A 큰손에서 나아가 금융지주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이다. 이진영 기자 mint@



기업銀, 소외층 국립공원 체험  
‘IBK자연나누리사업’ 4억 후원

IBK기업은행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IBK자연나누리사업’을 위한 후원금 4억원을 전달했다. IBK자연나누리사업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국립공원과 유적지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친환경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전개하는 이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8000여명이 참여했다.

“보험산업 발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

취임 1주년 강호 보험연구원장

“시장 친화적 연구원 만들겠다”

강호(사진) 보험연구원장이 시장 친화적인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 나선다.

내달 5일 취임 1년을 맞는 강 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시장 친화적인 연구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험사에는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당국에는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강 원장의 계획이다.

강 원장은 “그 동안은 화두 제시했지만 앞으로는 화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국에서는 조금만 다듬으면 바로 정책이 되고, 보험사는 경영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이 이처럼 실질적인 연구원 운용을 밝힌 것은 업계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지 않다. 강 원장은 대신



생명(현 현대라이프) 이사와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부사장을 역임한 업계 전문가다. 앞으로 강 원장은 보험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강 원장은 시장 친화적인 연구원을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 연구원들의 대우 개선을 꼽았다. 업무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구원들의 사기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강 원장은 회원사를 설득해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참석한 회원사 만장일치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은 “지원하는 박사들의 이력서가 많이 쌓여 있을 정도로 위상이 달라졌다”며 “연구원의 도약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강구귀 기자 kkk@

신용한도에 차량담보 더해 대출

아주캐피탈 ‘오토담보론’

아주캐피탈은 신용대출과 차량담보대출을 결합한 ‘오토담보론’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본인의 신용한도에 차량 담보대출 한도를 더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신용 등급이 높으면 기존 상품보다 10% 이상 대출한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한도가 1000만원인 사람이 시가 1000만원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신용대출 금액에 차량 가치의 50%인 500만원을 더해 총 1500만원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직장인 및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금리는 최저 9.9%, 최고 27.9%다. 차량 대상은 국산 승용차를 비롯해 벤츠, 아우디 같은 15대 수입차 브랜드다.

대출 기간은 24개월과 36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근저당 설정 비용 및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대출모집인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주캐피탈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담보대출이 자동차를 팔긴 후에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금리, 단기 소액 급전 대출인데 비해 아주캐피탈 오토담보론은 타던 차를 그대로 운행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며 “신용대출과 자동차 담보대출이 결합돼 한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언제 어디서나 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나는 ING생명입니다**

ING생명고객 장동건

**당신을 위한 올바른 약속**  
**ORANGE PROMISE**

- ▶ 1위 국내 글로벌 생명보험사 시장점유율 (FY 2012 수입보험료 기준)
- ▶ 9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05~'13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 323.6%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2013년 3월 기준)

**7년연속 AAA**  
보험금 지급능력 최고수준

**ING**

www.inglife.co.kr Call center 1588-5005



# ‘내수·수출’ 명암 엇갈린 철강업계

올들어 국내 조선수주 증가로 후판 수요 회복 전망  
美 상무부, 한국산 탄소강 후판에 덤핑 예비판정  
멕시코·캐나다 등 잇단 반덤핑 제소… 수출 적신호

철강업계가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 증가로 조선용 후판 수요 증가를 기대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미국의 덤핑마진 예비판정이 나오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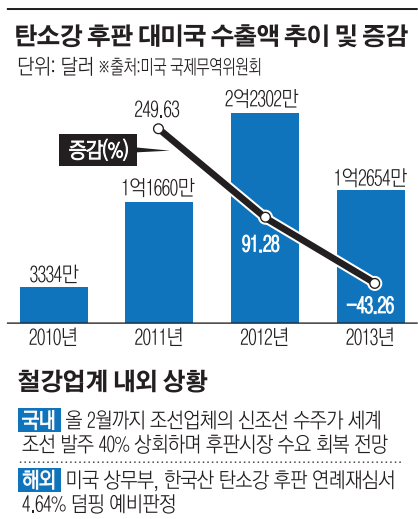
12일 철강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국내 조선업체의 신조선 수주는 세계 조선 발주의 40%를 웃돌며 95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조선업체가 2월까지 수주한 물량은 313만 CGT로 이는 작년 연간 수주액 411억 달러의 23%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조선용 후판의 수

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박 수주에서 건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조선용 후판 수요 증가는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후판 수요 증가가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후판 판매 실적을 견인해 올해 철강업계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철강업체들은 호재와 함께 해외발 무역제제라는 악재도 만났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한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연례재심사 4.64%의 덤핑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한국



산 해당제품이 미국 내에서 정상가격 이하(LTNV)에 판매됐다고 판단하고 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 에드텍 머레이, 삼성C&T, 삼우EMC, TCC 동양 등 5개 업체는 각각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이번 연례재심사에서 덤핑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국내 철강업계의 후판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례재심의 최종판정은 예비판정 이후 120일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모 회사의 경우 미국 탄소강 후판 수출 비중은 1만톤 정도로 미미해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진 않다”면서도 “예비판정인 만큼 최종판정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내 철강업계는 잇따른 해외 반덤핑 제소로 고전하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 6월 한국산 차량용 강판과 후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고, 캐나다는 한국산 철강재 중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대만과 태국에서도 국내산 스테인리스스틸 냉연제품과 열연강판 관세율을 각각 한시 부과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삼성전자, 글로벌 특허 ‘우뚛’

지난해 유럽 특허출원 2년 연속 1위… 美서도 2위 올라

삼성전자가 세계 특허 무대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12일 유럽특허청,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유럽, 미국에서 각각 특허출원 1위, 특허등록 2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특허 영향력이 높아졌다.

유럽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해 2833건의 특허를 신청해 2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 1692건의 특허를 출원해 4위를 기록했다가 2011년 1733건으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이후 2012년 2289건을 출원해 처음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에 이어 유럽 특허 출원 건수가 많은 곳은 지멘스(1974건)였고, 필립스(1893건), LG전자(1648건), 바스프(1577건), 로버트보쉬(1574건), 미쓰비시(1327건), 제너럴일렉트릭(1257건), 쉘컴(1204건), 에릭슨(1184건) 등 순이었다. 2012년 50위에 머물렀던 애플은 지난해 66위까지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등록했다. 지난해 미국의 특허등록 기업 순위는 IBM이 6809건으로 2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4676건의 특허를 등록해 2011년부터 3년 연속 2위 자리를 지켰다. 뒤를 이어 캐논(3825건), 소니(3098

**세계 특허 동향** (2013년 기준)

미국	등록 건수	유럽	출원 건수
IBM	6809건	삼성전자	2833건
삼성전자	4675건	지멘스	1974건
캐논	3825건	필립스	1893건
소니	3098건	LG전자	1648건
MS	2660건	바스프	1577건
파나소닉	2601건	로버트보쉬	1574건
도시바	2416건	미쓰비시	1327건
혼하이정밀	2279건	GE	1257건
쉘컴	2103건	쉘컴	1204건
LG전자	1947건	에릭슨	1184건

\*출처:유럽특허청 및 IT 클레임스

건), 마이크로소프트(2660건), 파나소닉(2601건), 도시바(2416건), 혼하이정밀(2279건), 쉘컴(2103건), LG전자(1947건) 등이 10 위권에 머물렀다. 미국 내 애플의 특허 등록 건수는 1775건으로 13위를 기록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국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2012년 대비 유럽 특허출원 증가율은 14.0%로 네덜란드(17.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유럽과 미국에 등록된 세계 토폴에블루션(LTE) 특허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효진 기자 js62@

## 고음질 플레이어로 재기 노리는 코원

2분기 ‘플레뉴 P1’ 출시 예정  
올 연말까지 흑자 전환 목표

코원은 올 2분기 고음질 포터블 플레이어 신제품을 출시하고 재기를 노린다. 연말까지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코원은 올 2분기 출시를 목표로 고음질 포터블 플레이어 신제품인 ‘플레뉴(Plenue) P1’을 개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플레뉴 P1은 일반 CD 수준의 음질인 44.1kHz를 웃도는 최대 192kHz/24비트의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제품이다.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하고 3.7인치 AMOLED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128GB의 저장공간을 갖췄다. 마이크로SD 카드 슬롯을 내장해 용량 확장이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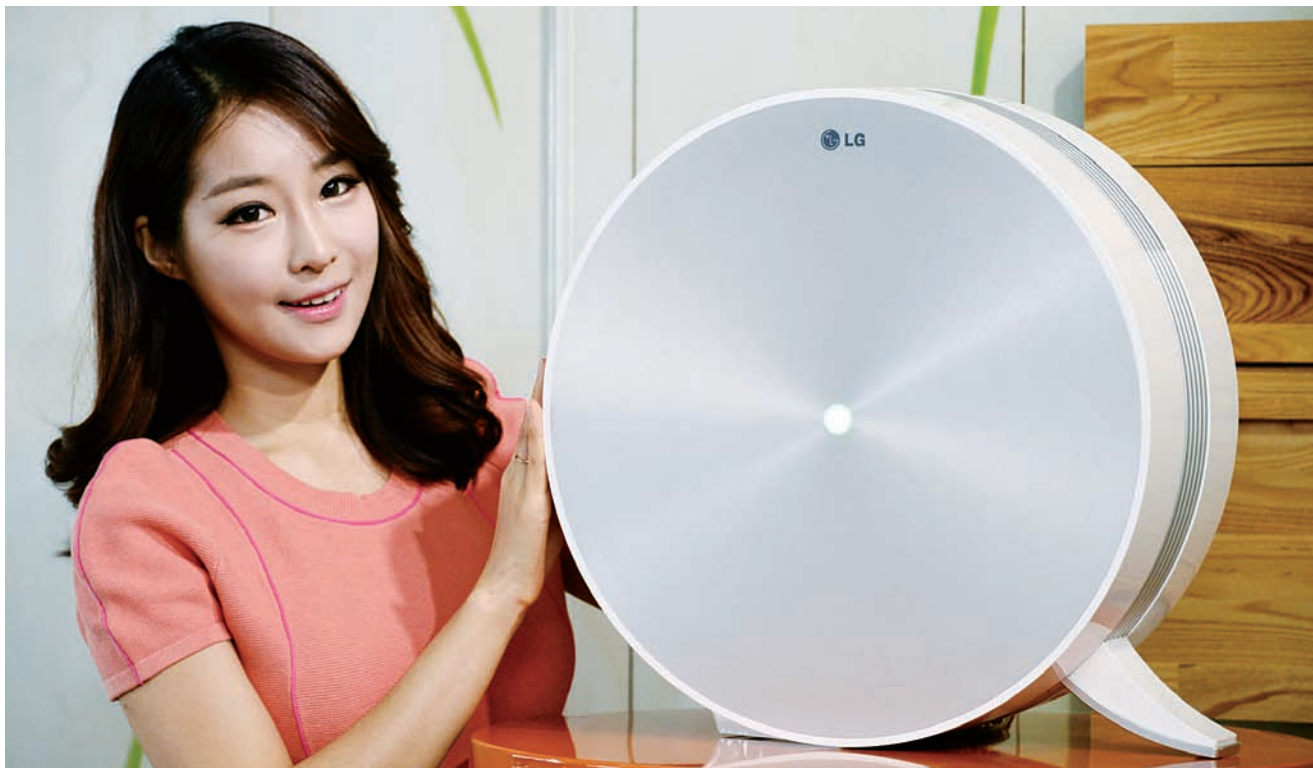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올 2분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라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코원이 올 플레뉴 P1을 출시하면 아스텔앤켄(A&K)으로 국내 고음질 플레이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이리버와 기존 음향기기의 강자 일본 소니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고음질 포터블 플레이어는 수십만원대에서 수백만원대의 높은 가격대를 가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음향 마니아를 중심으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1년부터 2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코원은 고음질 포터블 플레이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MP3, 블루박스 등 다양한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77억91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3년 연속 적자가 유력하다.

코원은 올해 고음질 포터블 플레이어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사업 다각화 전략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는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회사 관계자는 “플레뉴 P1의 출시 시점과 맞물려 흑자 전환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정유 기자 thec98@



**파격적 원형 디자인 LG 공기청정기 출시**

LG전자는 본체를 원형으로 디자인한 파격적인 콘셉트의 공기청정기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속 소재에 스펀 헤어라인 공법을 적용해 깨끗한 공기 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3MTM 초미세 먼지필터’를 적용해 항사는 물론, 초미세먼지보다 125배 작은 0.02μm(마이크로미터) 먼지까지 제거한다. 가격은 40만원대 초반. LG전자 모델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 공기청정기’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 봄바람 탄 수입차 시장… 신차 붐물

내달 시트로엥 ‘피카소’ 시작으로 렉서스·포드 등 줄이어… 올 점유율 15%대 전망

수입차업체가 3월 이후에도 신차를 쏟아내며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입차의 승용차 시장점유율(판매대수 기준)은 15%대를 무난히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이후도 신차 출시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특히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 독일 3사 이외의 업체에서 신차가 쏟아지며 수입차 시장의 다양성을 꾀할 전망이다.

프랑스 자동차업체 시트로엥은 미니밴인 ‘그랜드C4 피카소’를 4월 국내에 출시한다. 피카소의 연비는 유럽 기준으로 26.2km/ℓ에 달한다. 최대출력은 150마력으로 수입 미니밴의 경쟁 차종인 혼다 ‘오딧세이(253마력)’, 토요타 ‘시에나(266마력)’보다 힘은 떨어지지만 높은 연비가 장점이다. 피카소는 유럽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7만5000대를 넘는 인기 차량이다.

한국토요타는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소

형 하이브리드차 ‘뉴 CT200h’를 4월 국내 출시한다. 뉴 CT200h는 원조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서 갖고 있는 높은 연비 효율성이라는 장점에 완전히 새 디자인을 더했다. 이외에 렉서스는 지난해 도쿄모터쇼에서 선보인 소형 SUV ‘LX-NF’를 하반기에 국내에서 선보이며 과거 국내에서 인기를 얻었던 일본차의 명성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폭스바겐은 골프의 고성능 모델인 ‘골프 GTI(가솔린)·GTD(디젤)’를 6~7월께 국내에 선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는 포드코리아는 올 하반기 머스탱의 6세대 모델인 ‘올 뉴 머스탱’을 국내 출시한다. 1965년 처음 출시된 머스탱은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900만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이다. 회사 측은 국내에서도 머스탱의 기다리는 마니아층이 많은 만큼 출시되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내 국내 출시되는 수입차**

업체명	차량명	출시시기	예상가격
시트로엥	피카소	4월	4000만원대
렉서스	더 뉴 CT200h LX-NF	4월 하반기	4000만원대 4000만~5000만원대
폭스바겐	골프 GTI/GTD	6~7월	3000만~4000만원대
포드	MKC 올 뉴 머스탱	하반기 하반기	4000만원대 4000만원대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링컨은 하반기에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MKC’를 연내 선보인다. MKC는 2.0ℓ 4기통 예코부스트 엔진을 탑재한 링컨의 첫 콤팩트 SUV다. 최근 미국 차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다문화시대 추세에 부합해 시장 파급력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 3사 외에도 일본과 미국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12%대를 기록한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은 올해는 15% 이상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삼성 ‘셰프컬렉션 냉장고’ 국내 출시

프리미엄 키친 가전 공략 본격화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프리미엄 키친 가전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 홀에서 ‘셰프컬렉션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차세대 키친 가전 라인업 ‘셰프컬렉션’의 첫 번째 제품인 ‘셰프컬렉션 냉장고’(사진)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셰프컬렉션은 ‘미슐랭 3스타’ 셰프들과 공동 기획·개발된 슈퍼 프리미엄 키친 가전 라인업을 의미한다. 오븐, 식기세척기 등이 향후 차례로 국내외 출시될 예정이다.

이날 출시된 셰프컬렉션 냉장고는 온도 변화의 폭을 최소화해 0.5도 단계로 미세 온도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하 1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 주는 전문 보관실 ‘셰프 팬트리’는 고기와 생선을 최상의 질감으로 보존한다. 또한 식품 수분 노하우를 반영한 ‘셰프 바스켓’으로 무르거나 부서진 채소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마련했다. 냉동실의 ‘셰프 드로어’는 레일 구조를 적용해 사용자가 부드럽고 끝까지 냉장고 보관통을 열 수 있다.



셰프컬렉션 냉장고는 기존 프리미엄 제품인 ‘T9000’ 냉장고와 크기는 동일하지만 용량을 100ℓ 더 늘려 세계 최대인 1000ℓ 대 용량을 달성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CE부부장(사장)은 “셰프컬렉션 냉장고는 매일 접하는 음식에 신선함과 맛을 붙여 넣는 건강의 동반자로서 키친 가전의 의미를 뛰어넘는 극대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셰프컬렉션 냉장고는 차가운 스텔리움 위터와 정수된 물을 도어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제품을 포함해 4종의 신제품으로 출시됐다. 출고가는 589만~739만원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 OCI, 태양광발전사업 키운다

계열사 3곳 잇단 발전설비 투자… 규모 확장

OCI의 자회사 OCI파워가 태양광 발전사업 계열사(OCI서울태양광발전·OCI남부태양광발전·오대양태양광발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며 사업 규모 확장을 꾀하고 있다.

12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오대양태양광발전은 이달 31일 5.2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119억원 가량을 투자해 취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OCI파워의 자회사 3곳 모두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게 됐다. 2012년 10월에 설립된 서울태양광발전은 지난해 6월과 10월에 각각 2.5MW, 675kW(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사들였다. 이어 지난해 3월 세워진 남부태양광발전이 올해 1월에 43억원을 투자해 1.8MW 규모의 설비를 구축한 바 있다. 두 회사에 이어 지난해 9월에 설립된 오대양태양광발전까지 사업 영위를 위한 첫 설비가 확보됐다.

특히 설립된 지 1년 가량된 세 회사가 수익입원에 이르는 설비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에는 OCI파워의 자금 조

달 덕이다. OCI파워는 서울태양광발전에 2012년에 11억원을, 지난해 6월에 5억원을 조달했으며, 남부태양광발전엔 지난해 총 24억원의 가량을 지원했다. 두달 전인 지난 1월에 오대양태양광발전에 30억원 가량의 자금 지원을 나눴다.

OCI는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오다 태양광 시장의 어려움으로 폴리실리콘 가격 급락을 겪으면서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 2년 전 태양광 발전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며, 관련 사업 확대를 불황 타개에 나선 것이다. 올해 1분기에 관련 회사들이 모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 연말에는 자회사인 OCI파워를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OCI는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산업 관련 소재 사업과 카본 케미컬 사업외에 LED 사파이어잉크, 태양광 발전, 열병합 발전 등 기타 사업부문을 통해 수익성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김해진 기자 sinembargo@

## 대형마트서 전기차 충전하세요

이마트, BMW·포스코ICT와 충전소 서비스 협력

다음달부터 대형마트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손쉽게 충전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차원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는 BMW그룹코리아, 포스코ICT와 민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에 합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3사는 서울 및 수도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연내 60개 이마트 점포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첫 충전소는 BMW그룹코리아의 신형 전기차 ‘i3’ 출시 시점에 맞춰 다음달 문을 열 계획이며 향

후 운영 점포와 충전소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포스코ICT가 설치와 운영을 맡는다. 충전소에는 ‘교류 완속 방식의 1타입 모델’이 설치되며, 1시간 충전하면 약 50km를 주행할 수 있다. 완전 방전상태에서 전기를 충전하는데 약 3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포스코ICT는 전기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멤버십을 만들어 시장 확대를 꾀한다. 멤버십 카드를 구입하면 BMW 전기차 뿐 아니라 시판중인 국내 모든 전기차

운전자는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멤버십 카드를 구매하면 충전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10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2100여곳에 불과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마트는 이번 민간 충전소 협력과 별도로, 현재 환경부와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도 진행,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오는 2015년까지 전국 100여개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다람 기자 zing@



# 불법TM이 정보유출 주범이라는데...

최근 잇따른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 원인으로 불법 텔레마케팅(TM)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당국은 뒷집만 지고 있고, 통신사는 불법 TM 영입을 사실상 묵인한채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서 일어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모두 불법 TM 업자에 의해 자행됐다. 지난 6월 약 1200만 건에 달하는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심에 불법 TM 업자인 박 모씨(가명)가 있었다. 그는 TM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해커를 고용, KT 홈페이지서 개인정보를 빼냈다. 지난 2012년 873만 건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TM 업자가 주도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에서 빠져나온 정보도 불법 TM 업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인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의 중심에는 늘 불법 TM 업자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통 또한 대부분 불법 TM업자들에 의해 이뤄진다. 업자들끼리 주고받으면서 개인정보가 복제 재생산된다. 특히 ‘서비스 약정 만료기간’정보는 불법 통신TM업자들에게 가장 높은 가치로 꼽힌다. 약정 만료기간이 가까울수록 다른 통신사 서비스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에 KT 홈페이지 해킹을 주도한 불법 TM 업자 박 모씨도 이 정보가 담긴 500만건의 개인정보로 1년만에 1만1000대(시가 115억 원)의 스마트폰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약정 만료기간 항목이 포함된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비싸게 팔린다. 전문 TM업자에 따르

텔레마케팅 업자가 해커 고용

개인정보 빼낸 후 불법영업 악용

업자들끼리 되파는 경우도 허다

방통위는 뒷집... 통신사는 묵인

면 질 좋은 개인정보는 건당 최소 30원에 거래된다.

각기 다른 통신사를 전문으로 영입하는 TM 업자들끼리 자사의 고객 정보를 돌려 파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안전문업체의 한 연구원은 “1000만건의 개인정보가 단 10사람에게만 퍼져도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1000만 건으로 늘어나는 셈”이라며 불법 TM 영입을 근본적으로 끊

어널 정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TM 단속을 통신사 자율로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협회(OPA)’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OPA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자율신고센터’에 불과해, 불법 TM 단속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OPA가 지난 1년 동안 적발한 불법 TM 건수는 200건에 그친다.

통신사는 불법 TM 영입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영입을 통해 통신사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규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KT는 지난 1월말 연간 1만대 가량을 판매하는 불법 TM 업체를 파악하고서도 한달간의 영업정지 처분만 내렸을 뿐, 영업계약을 계속 유지해 사실상 묵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LG유플러스의 한 지사가 불법 TM 업자에게 고객 정보 수천 건을 직접 넘기면서 TM 영입을 종용한 사건도 있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불법 TM은 본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2차 판매점에서 일어나 직접 감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판매점 매출이 대리점 전체 매출의 30~40%가량 차지할 정도로 큰 영업체널이어서 알고서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박성제 기자 psj@

## “여심 잡아라” SNG 신작 러시

〈소셜네트워크게임〉

파티게임즈 ‘아이러브파스타’ 공개

앱게임 ‘프린세스메이커’ 출시 앞뒤

넷마블·NHN엔터 대형사도 가세



신학기를 맞아 모바일 신작 게임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성 유저층을 공략한 감성적 게임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CJ E&M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게임사 뿐 아니라 중소업체들이 여성층을 공략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게임(SNG) 장르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다.

SNG는 시장을 선점할 경우 최근 대세로 떠오른 역할수행게임(RPG)보다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아기자기한 게임성 덕분에 여성 이용자 층이 탄탄해 효과로 꼽히는 장르다. 특히 미드코어 장르는 인력·기술·자본 등의 장벽이 높기 때문에 대형업체 뿐 아니라 중소업체가 SNG에 집중하고 있다.

파티게임즈는 ‘아이러브파스타’의 후속작 SNG ‘아이러브파스타’를 11일 공개했다. SNG를 포함한 팡류, 런닝 게임 등 캐주얼 장르의 모바일 게임으로 여성층을 공략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러브파스타 역시 전체 게임이용자 중 70%가 여성이다. 아이러브파스타는 기존 소셜게임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게임 속 게임’을 구현하고, 감성적인 사용자 환경(UI)덕에 출시전 사전예약자가 15만명을 넘어섰다.

앱게임의 모바일 야심작 ‘프린세스메이커’도 티저페이지를 오픈하고 국내 출시를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섰다. 이 게임은 1990년대 명작 PC게임 ‘프린세스메이커’를 3D 그래픽 기반으로 개발한 모바일게임으로, 여성층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원작과 같은 기본 게임

방식에 SNG와 RPG요소, 다양한 미니게임, 엔딩 이미지가 콜렉션 등이 더해졌다.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여성 타깃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대형 게임사들도 적극 뛰어들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달 27일 모바일 SNG ‘학교2014’를 공개했다. 친구야!의 첫 테스트를 시작했고, NHN엔터는 예능 SNG ‘와라편의점’을 출시했다. 와라편의점은 인기 웹툰 와라편의점을 소재로 하는 편의점 운영 SNG다.

위메이드도 이용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SNG ‘에브리타운’의 봄맞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에브리타운의 최고 레벨을 50에서 55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생산시설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장 및 전문점 업그레이드가 최대 4단계까지 가능해졌다.

정유현 기자 yhssoo@

Green Cross Care  
Stay healthy and happy with GREEN CROSS CARE

나에게 딱 맞는 수트처럼 영양제도 스마트한 비맥스로

업무피로, 비맥스로 스마트하게

SMART 비타민제  
**비맥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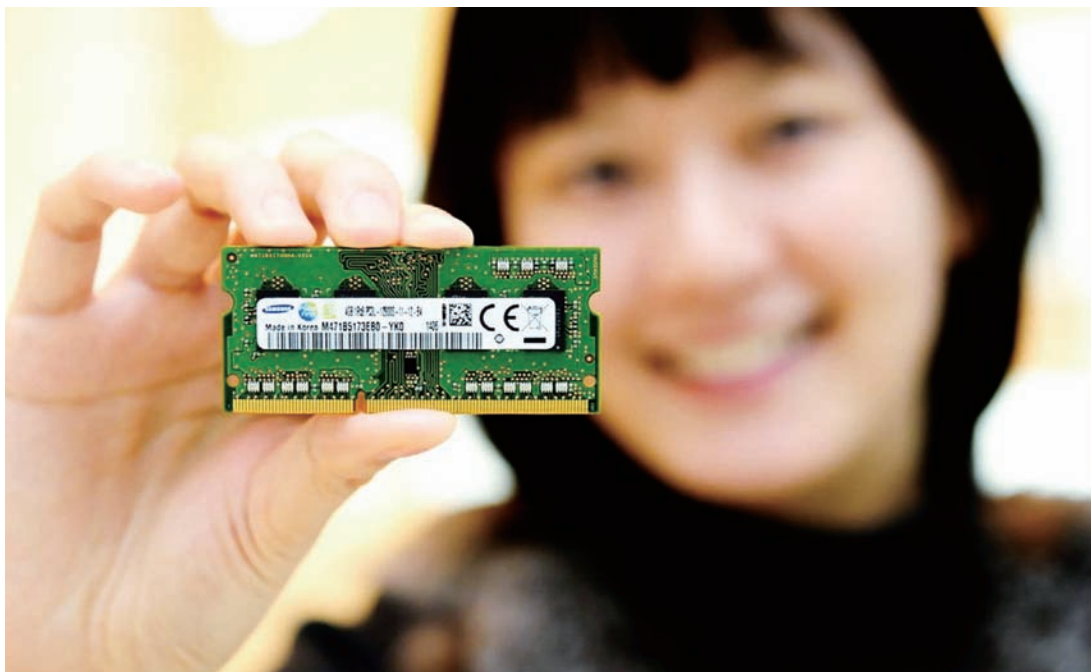
업무피로를 이기는 스마트한 방법, **B-maxtab.**

피로 해소를 위한 <b>비타민 B</b>	건강을 위한 <b>UDCA와 메티오닌</b>
남성 건강에 좋은 미네랄 <b>마그네슘과 아연</b>	활성형 비타민 <b>벤토이아민</b>

SMART 비타민제 B-max는 결핍될 수 있는 비타민B와 C의 섭취량을 보충해 주고, 건강을 위한 UDCA와 메티오닌을 함유하고 있어 당신의 삶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광고심의필 : 1152-0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SMART 비타민제  
**비맥스**정



‘20나노 시대’... 삼성전자 세계 첫 ‘20나노 4Gb D램’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차세대 20나노(1나노: 10억분의 1m) 4Gb(기가비트) DDR3 D램의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20나노 D램은 2012년 삼성전자가 첫 양산한 25나노 D램보다 30% 이상, 30나노급 D램보다는 두 배 이상 생산성이 뛰어나다. 20나노 DDR3 D램 모듈은 기존 25나노 제품보다 소비전력을 25% 절감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독자 기술을 통해 기존 설비에서 20나노 D램 미세화 기술의 한계를 돌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 코트라-MS ‘스마트그로스’ 3기 발대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26곳 지원

코트라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26곳을 선정하고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 그로스(Smart Growth)라 불리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코트라와 MS가 함께 실시해온 사업이다. 코트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MS는 기술지원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을 육성해오고 있다.

이번 3기 참가 기업 모집에는 60여개의 벤처기업이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

26개 기업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은 창업초기 이 사업에 참가해 6개월간 MS사로부터 클라우드 기술교육, 1대 1 기술 멘토링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또한 MS사의 신생기업 지원서비스를 통해 업체당 최대 2억원 상당의 MS사 플랫폼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 받는다.

6개월 교육 수료 후에는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 창업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코트라는 벤처기업 육성과정을 거쳐 최종 5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다음, 오픈마켓과 손잡고

‘마일리지’ 서비스 시작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오픈마켓과 손잡고 검색 쇼핑을 강화, 네이버 추격에 나섰다.

다음은 11일 G마켓·옥션·11번가 등 오픈마켓 3사와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음 마일리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음 마일리지는 다음의 쇼핑검색비교사이트 ‘쇼핑하루’를 통해 오픈마켓을 방문한 후 제품을 구입하면

각 가맹점에서 받는 적립금 외에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100 마일리지부터 각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대형오픈마켓과 제휴를 맺으면서 네이버와 차별화를 선언했지만, 향후 중소쇼핑몰과 제휴를 맺으면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쇼핑서비스에서만 마일리지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음악이나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도 구매할 수 있도록 계획중이다.

다음은 이번 마일리지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1000마일리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유현 기자 yhssoo@



# 中 양대 인터넷 거물 불붙은 ‘M&A 전쟁’

중국 양대 인터넷 거물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인수·합병(M&A)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8억400만 달러(약 8560억원)에 차이나비전 지분을 추가 인수한다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번 인수로 알리바바의 차이나비전 지분은 종전 27.0%에서 70.8%로 확대됐다. 차이나비전은 TV드라마와 영화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알리바바는 지분 확대를 통해 콘텐츠 경쟁을 본격화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그동안 알리바바는 동영상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는 바이두, 텐센트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차이나비전은 지난해 제작한 ‘신서유기:서유왕마권’이 개봉 첫 주 925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7월 스마트TV 사업에 진출해 콘텐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인터넷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은 현재 4억명을 넘으며 4세대(4G) 이동통신망 도입으로 그 수가

알리바바, 차이나비전 지분 확대…콘텐츠 확보 총력  
텐센트, 이번주 JD닷컴 인수 전자상거래 사업 보완



잭 마 알리바바 회장



마화텅 텐센트 회장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FT는 전했다.  
알리바바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M&A를 통해 회사 약점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오토네

입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최대 메시징 응용프로그램(앱) 위챗(WeChat)으로 유명한 텐센트는 중국 2위 전자상거래업체 JD닷컴 지분 15%를 2억1500만 달러에 인수해 알리바바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텐센트는 JD닷컴이 미국에서 기업공개(IPO)를 실시하면 지분 5%를 추가로 사들이고 회사의 현재 전자상거래 사업부를 JD와 통합할 계획이다.

이번 지분 인수로 마틴 라우 텐센트 사장이 JD 이사회에 합류한다.

바클레이스는 “텐센트가 위챗에 또 하나의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게 됐다”며 “JD도 위챗 실제 사용자 2억7200만명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양사 모두에 ‘윈-윈(win-win)’”이라고 설명했다.

JD는 중국 전역에 82개 재고창고와 1453개 배송사무소, 1만8000명의 배송 전담 직원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는 물류경쟁력 확보라는 이점도 얻게 됐다.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은 어마어마한 성장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시장규모가 오는 2020년에 65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크림共 독립 선언

의원 100명 중 78명 찬성  
“러시아 귀속절차 밟을 것”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결의했다고 이타르타르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림 의회는 이날 비상회의에서 ‘크림 자치공화국 독립 선언서’를 제적의원 100명 중 78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크림 의회는 선언사에서 “(특정지역)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 및 다른 국제문서와 코소보 독립의 합법성을 인정한 2010년 7월 22일 자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등에 기초해 독립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세르비아로부터의 코소보 독립과 관련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한 국가 일부 지역의 일방적 독립 선언이 국제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선언문은 전했다.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 의회 의장은 “선언서 채택으로 우리는 크림을 공화국으로 선포했으며 이제 독립 공화국의 자격으로 러시아에 편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은 기자 hailey.jeoungeun@



동일본에 평화를

일본 미야기현 나토리시 시민들이 유리아게 중학교에서 11일(현지시간) 동일본 대지진 발생 3주년을 맞아 평화를 염원하며 비둘기 모양의 풍선을 날리고 있다. 2011년 대지진은 도호쿠 지방을 강타해 1만8000명이 목숨을 잃고 27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대지진의 여파가 남아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대지진 3주년 추도식 기자회견에서 원전 재가동 추진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나토리/AFP연합뉴스

## 손정의 “수익 포기하더라도 요금인하”

〈소프트뱅크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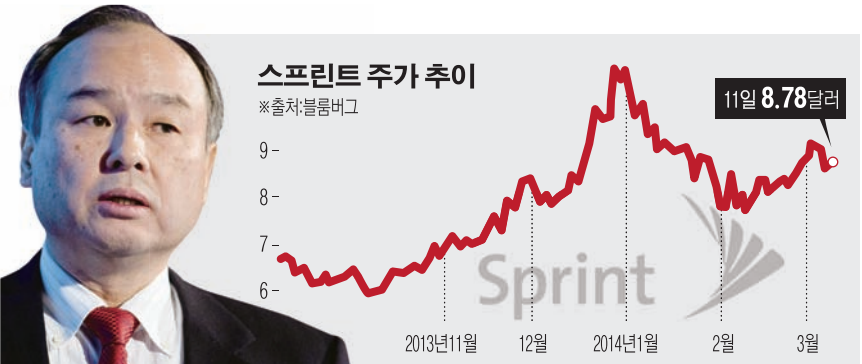
T-모바일 인수 승인시  
美버라이즌·AT&T와  
가격·기술전쟁 벌일 것  
점유율 확대 위해 필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미국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요금 인하 전쟁을 예고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손 회장은 전날 미국 PBS방송 시사대담 프로그램 ‘찰리 로즈 쇼에 출연해 “미국 정부가 우리의 T-모바일US 인수를 승인한다면 대규모 가격전쟁을 벌일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미국 3위 이동통신사 스프린트를 인수했으며 4위 이동사인 T-모바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손정의는 스프린트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

손 회장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라면 당분간 수익을 올리는 것을 미룰 수 있다”며 “나는 1등이 되기를 원한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덩치를 키워야 한다. 만일 기업규모가 가격전쟁을 벌일 정도로 커진



다면 좋다”며 “3대 이동사가 경쟁하는 것이다. 나는 대규모의 가격전쟁과 기술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미국 양대 이동사인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 AT&T와 경쟁하려면 기업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통신은 풀이했다.

미국 통신당국은 2년 전 AT&T의 390억 달러 규모 T-모바일 인수를 불허했다. 과점체제로 경쟁이 줄어드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같은 이유로 당국이 스프린트뱅크에 대해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손 회장은 “미국 인터넷 접속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기 위해 인프라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이동사의 통합은 케이블의

대안으로 무선 광대역망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 상공회의소 연설에서도 “컴캐스트의 타임워너케이블 인수로 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접속료가 오를 수 있다”며 “나는 그 대안을 제공하려고 한다.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보다 10배 빠르면서 가격은 낮은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체탄샤르마컨설팅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무선인터넷 사용자는 현재 약 2억명에 달한다. 체탄샤르마는 “지난해 미국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평균 1.2기가바이트(GB)로 전년의 690메가바이트(MB)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추정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美영향력있는 젊은 CEO

저커버그 제치고 ‘페이지’

〈페이스북 CEO〉

〈구글 CEO〉

구글의 래리 페이지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최고경영자(CEO)에 선정됐다.

포브스는 11일(현지시간) 금융투자 분석업체 S&P캐피털 IQ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한 40세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톱 20’ 가운데 래리 페이지 구글 CEO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40세인 래리 페이지는 세계 최대 검색포털업체 구글의 공동설립자로 회사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구글의 시총은 4094억 달러(약 438조원)에 이른다. 회사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페이지 CEO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가 됐다. 지난해 구글의 주가 상승행진이 지속되면서 그의 순자산은 300억 달러에 달해 포브스의 세계 40대 억만장자 순위에서 13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2위는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차지했다.

저커버그는 올해 29세로 이번 순위에서 유일한 20대 CEO라고 포브스는 전했다. 저커버그는 최근 모바일 사업 확대를 위해 메시징 응용프로그램(앱) ‘왓츠앱’을 190억 달러를 들여 인수할 정도로 ‘톱 20’ CEO다.

올해로 탄생 10주년을 맞은 페이스북은 모바일 광고 수입에 힘입어 고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페이스북 시총은 1825억 달러에 달하며 회사의 주가는 지난해에만 130% 넘게 올랐다.

3위는 시총 399억 달러인 야후를 운영한 마리아 마이어(38) CEO가 여성 기업인 중 유일하게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구글 부사장 출신인 마이어



래리 페이지 구글 CEO

포브스 시총 기준 ‘톱20’  
페이지 순자산 300억 달러  
2위 저커버그 유일한 20대  
마이어 야후 CEO는 3위

는 야후에 합류한 지 2년이 채 안 됐지만 소셜서비스 분야에서의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 부활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4위는 시가총액이 135억 달러인 미국 헤지펀드업체 아이칸엔터프라이즈의 키이스 코자(34) CEO가 선정됐으며 5위는 다니엘 슈와츠(33) 버거킹월드와이드 CEO가 이름을 올렸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글로벌 리포트

디즈니, 메이커스튜디오 인수 임박

월트디즈니의 메이커스튜디오 인수가 임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메이커스튜디오의 인수가 5억 달러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정한 재무 조건을 맞춘다면 9억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디즈니는 메이커스튜디오를 인수해 급성장하는 온라인 비디오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메이커스튜디오는 밀레니얼세대를 주고객으로 삼아 비디오를 생산하고 유통한다. 한달 평균 비디오 부는 55억 건에 달하고 있다. 밀레니얼은 지난 1982년부터 2002년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메이커스튜디오는 6만개의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임워너와 카날플워프 그리고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장녀인 엘리자베스 머독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메이커스튜디오의 기업 가치는 최근 자금조달을 고려하면 3억 달러 정도라고 FT는 전했다.

디즈니는 그동안 할리우드 경쟁업체들에 앞서 온라인비디오시장에 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요조선 탈출에 리비아 총리 해임

리비아 의회가 북한 국적 유조선이 자국 해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자 알리 자이단 총리를 전격적으로 해임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총원 200명인 리비아 의회는 이날 불신임안을 124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압둘라 테리 연무 의회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난 여권 소지자의 테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말레이시아항공 실종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조종사의 자살 비행설 등이 제기되는 등 무성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시 약 23만4000배럴의 석유 선적을 완료하고 이날 공해로 탈출했다.

리비아 해군은 전날 이 유조선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반군은 이 주장을 부인했다.

리비아 라나통신은 유조선이 약전후를 틈타 항구를 빠져나갔으며 해군이 발포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탈출을 막는데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리비아 중앙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동부 주요 수출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말레이 도난여권 소지자 이란인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은 11일(현지시간) 도난 여권을 소지한 탑승자 2명 가운데 1명이 정치적 망명을 모색하던 이란 국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이란인 탑승자는 올해 19살의 청년 푸리아 누르 모하마드 메흐르다드르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청년이 당시 독일로 입국하려고 사고기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칼리드 청장은 나머지 1명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2년 사이 태국에서 도난당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인 여권을 이용해 말레이시아항공 사고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테러 연루 의혹을 받았다.

수사당국은 그러나 여객기 납치 가능성이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도난 여권 소지자의 테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말레이시아항공 실종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조종사의 자살 비행설 등이 제기되는 등 무성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 이투데이 · 産業タイムズ社 특약

## 中 정부 ‘반도체 육성’ 팔 걸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안에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피어오르고 있다.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집적회로(IC) 설계나 칩 제조, 고급 패키지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연간 1000억위안(약 17조372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는 반도체의 현지 생산을 가속화해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메울 목적으로 풀이된다. 관측대로라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피어오르고 있다.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집적회로(IC) 설계나 칩 제조, 고급 패키지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연간 1000억위안(약 17조372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IC 제조를 2011년의 261억개에서 2015년에는 653억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연평균 20% 성장하는 셈이다. 생산액은 702억위안에서 1440억위안으로 연평균 15.4%의 성장을 계획했다. 중국 내 IC 시장은 이를 웃도는 기세로 성장, 2015년에는 1조위안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배경에는 이 시장 규모와 자국산 칩 공급량의 갭을 메워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다.

특히 IC 설계 업계에서 기대감이 크다. 중국의 IC 설계는 지난 2010년 매출 규모가 225억위안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약 750억위안으로 확대됐다. 3년 새 3배라는 눈부신 성장을 기록, 2014년은 매출 규모에서 대만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에서 IC 설계가 급성장하고 있는 최대 요인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국산화 흐름이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베이스 밴드(BB), 모뎀 IC, 카메라 모듈용 CMOS이미지 센서(CIS) 등이 이미 국산화돼 중국산 스마트폰에 탑재되고 있다.

팹리스 대기업인 스프레드트럼은 중국 독자의 3G 통신 규격인 'TD-SC DMA'용으로 국산 BB 대부분을 공급해 성장했다. 2014년부터 본격 도입이 시작되는 4G(LTE)용으로도 IC를 공급한다. 이를 추격하는 업계 2위 RDA 마이크로일로트르노스도 설계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사는 2013년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에 인

한해 17조위안 규모 예산 투입  
IC설계 매출 세계 2위 눈앞  
생산량 매년 20% 성장 목표

AP·모뎀IC·CIS 등 국산화

3G·4G용 설계 개발 박차

자국 스마트폰에 탑재 계획

수돼 화제가 됐다. 칭화유니그룹의 두 회사 인수 배경은 IC 설계기업을 인수해 뒀다가 정부 지원책 발표 후 상장해 프리미엄을 붙이기 위함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도체 제조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 28nm라인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SMIC의 베이징 B2 공장 등도 대상이 된다.

베이징 정부는 공장화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IC 산업개발투자기금을 설립, 반도체 업계에 연간 300위안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한다. 베이징 이외의 지역에서 계획된 보조금을 포함하면 업계에 대한 보조금은 연간 1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급 패키지 분야에도 보조금이 편성될 것으로 예

상된다. CIS 팹리스 업체인 갤럭시코어와 슈퍼픽스 등은 800만과 500만 화소의 제품화 계획을 갖고 있다. 보급 가격대의 중국산 스마트폰 대부분이 이러한 수준의 CIS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이를 어떻게 해서든 국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4G 통신과 함께 2014년에는 이른바 '근거리 양방향 무선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서비스의 본격 도입이 예정돼 있다. 이용자는 아직 적지만 작년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등의 대중교통기관에서 실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행과 건설은행 등 7개 은행은 2013년 12월 NFC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접촉형 IC 카드 기술 관련업체와 칩 조립, 전자 유도용 안테나 제조업체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4G 통신과 NFC 등에서 독자적인 표준 규격을 만들거나 해당 반도체도 국산화해왔다. 반도체 제조기술은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정부의 지원에 따라서는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 수년은 여지가 있다. 중국 다음으로 유망한 시장은 인도와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이다. 이때 중국은 통신 규격, 디바이스, 스마트폰 등을 세트와 서플라이 체인까지 일괄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반도체·전자기기 시장 성장 올해 정점 내년부터 내리막”

반도체 및 전자기기 시장의 성장은 올해 정점을 이룰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보제공업체 IHS글로벌에 따르면 2013년 전자기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조9400억달러였다. 2012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한 반도체 시장은 2013년에 부활해 전년 대비 4.9% 증가한 3180억달러를 기록했다.

IHS는 향후 5년간 성장의 정점은 전자기기와 반도체 모두 2014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전자기기 시장은 4.2%, 반도체 시장 5.8%로 전망됐다.

반면, 2015년 이후는 전자기기 시장과 반도체 시장 모두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는 선진국과 신흥국에 국한하지 않고 불투명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 전자기기 및 반도체 시장의 추세는 모두 기존 실리온 사이클 및 올림픽 사이클과 같은 규칙성에서 벗어나 경기와 연동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IHS는 이 중요한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돼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 이벤트, 전자기기의 제품 사이클 등에 좌우되지 않고 경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HS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전자기기 생산은 2012-2017년의 CAGR(연평균 성장률)에서 3.0%, 반도체 시장은 3.4%의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2014년의 시장 성장은 정점을 찍긴 하지만 이후부터는 불투명감이 강해지는 결과가 됐다. 경제성장 여력이 한정적인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도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다.

기술 상품에 있어서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술 혁신에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불안 재료 중 한 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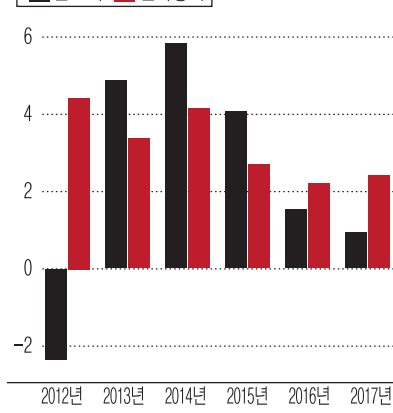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앞날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는 자동차와 의료, 산업 등의 B2B시장이다. 2012년까지는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포함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급부상했다.

하지만 2012-2017년의 CAGR에서는

세계의 전자기기/반도체 시장 예측

단위: %, 전년비 성장률

■ 반도체 ■ 전자기기



전자 4.2% 반도체 5.8% 전망

불확실한 세계 경기 영향받아

스마트폰·가전용디바이스 줄고

車산업·파워반도체 등은 기대

자동차 산업 분야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앞지를 것이라고 IHS는 예상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시장을 내준 가전과 PC 등의 레거시 상품은 성장이 멈춰 2012-2017년의 CAGR는 마이너스로 전락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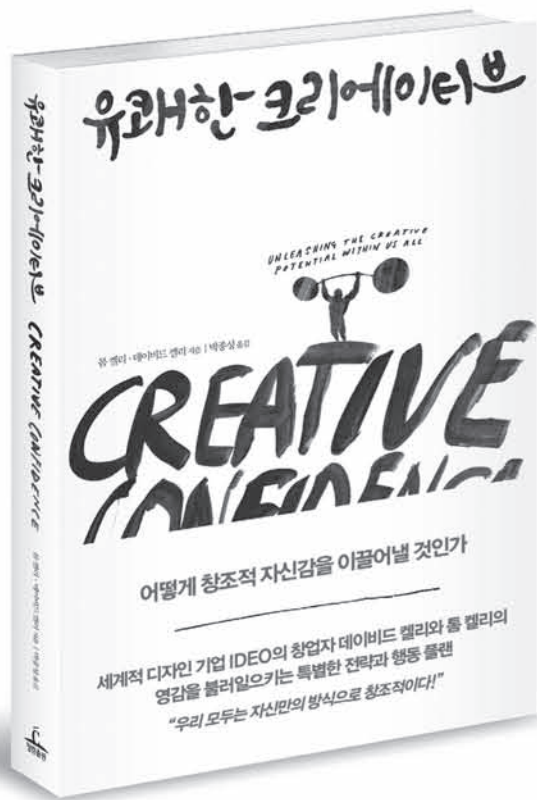
이미 이러한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2012-2013년에 걸쳐 TV 시장은 침체되고 디지털 카메라, 오디오 등의 가전시장 이 스마트폰에 잠식됐다. 이들 가전 제품 탓에 일부 국가의 가전 시장도 타격을 입고 있다.

한편 반도체 수요의 새로운 트렌드에 힘입어 반도체 제품의 주목 분야에도 변화가 나오고 있다. 프로세서와 가전용 디바이스의 수요는 줄고, 파워 반도체와 MEMS, 센서 등의 디바이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얼마나 신속하게 이 트렌드를 따라잡아 변화할지가 반도체 업계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다.

정리=배수경 기자 sue6870@

※산교타임즈 기사는 이투데이와 제휴 협약에 의해 게재한 것으로 무단 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데이비드 켈리** David Kelley 세계적 디자인 기업 IDEO의 창업자이자 회장. 스탠퍼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디자인연구소인 'd.school'을 개설해 창조성과 디자인적 사고를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보잉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으며 1978년에 IDEO를 공동 창업했다. 이후 애플 최초 컴퓨터 마우스와 세계 최초 노트북 컴퓨터 등 수많은 제품의 창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토미 켈리** Tom Kelley IDEO의 파트너로 창업자인 데이비드 켈리의 동생이다. 베스트셀러 《유쾌한 이노베이션》과 《이노베이터의 10가지 얼굴》의 저자이기도 하다. HR 컨설팅회사 타워스페린과 제너럴일렉트릭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이후 IDEO로 옮겨 마케팅, 경영개발, 스토리텔링 분야를 총괄하며 회사를 키워나갔으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 “어떻게 창조적 자신감을 이끌어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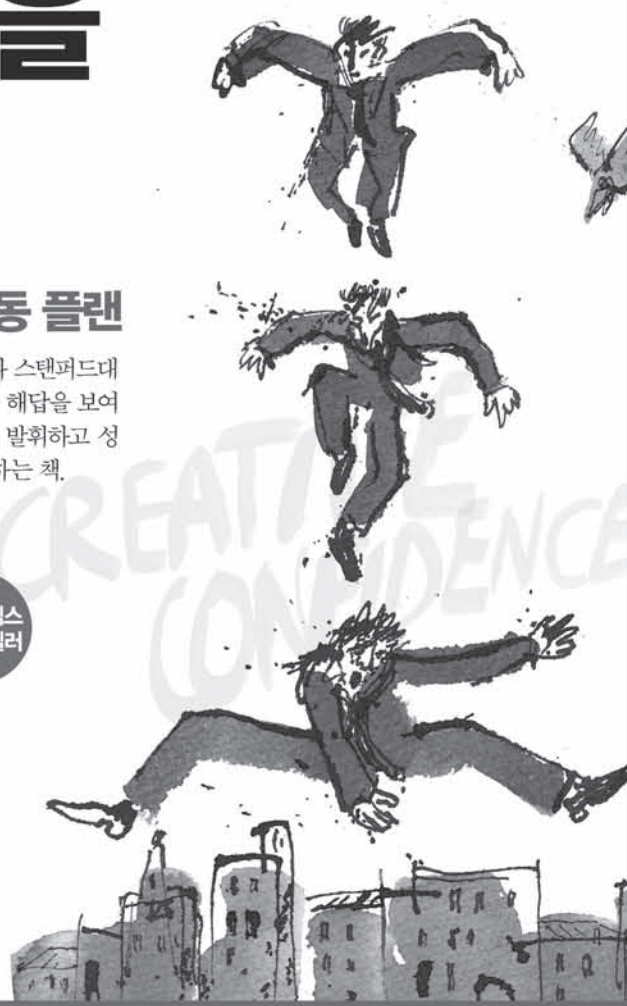
세계적 디자인 기업 IDEO 창업자가 전하는 영감을 주는 전략과 행동 플랜

누구나 유치원 시절에는 창조적이었다. 실패, 판단, 시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창조와 혁신의 대가인 저자들은 IDEO와 스탠퍼드대 디자인연구소 d.school에서 경험한 혁신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안의 창조적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보여준다. 디자이너, 화가, 소설가 등 특별한 사람들만이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신만의 창조성을 발휘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한다. 스스로가 창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생각의 도구를 전수하는 책.

유쾌한 크리에이티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토미 켈리·데이비드 켈리 지음 | 박종성 옮김 | 17,000원





# 주택시장 봄바람, 기업 따라 ‘마곡’으로

## 주목! 이곳

LG·롯데·이랜드 등 투자 러시  
서울판 ‘대덕연구단지’ 부푼 꿈  
집값 오르고 분양권 웃돈까지  
힐스테이트 316가구 이달 분양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가 연구개발(R&D)단지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서울판 ‘대덕연구단지’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마곡지구에 LG 컨소시엄을 선두로 롯데 컨소시엄, 코오롱 컨소시엄, 이랜드 컨소시엄, 이화의료원,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스타급 기업들의 투자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서울시가 에스-오일, 호서텔레콤, 케이티엔에프, 유한테크노스 등 4개 기업과 마곡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마곡지구는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 약 336만㎡에 미래 지식 첨단산업단지와 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 마곡역, 9호선 양천향교역, 신방화역이 인근에 위치하며 하반기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개통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전경. 사진제공 현대엘코

이 같은 마곡지구의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아파트 계약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미계약이 많았지만 현재 대형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원주민 분양권에는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마곡지구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분양가(3.3㎡당 1200만원대)가 저렴했던 만큼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 기업들이 입주

를 완료하는 5~10년 후에는 마곡지구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사들도 마곡지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규 분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마곡지구 바로 옆에 위치한 강서구 공항동 건들마을 재건축 단지인 ‘마곡 힐스테이트’를 이달 중 분양할 계획이다. 총 603가구 규모로 임대주택과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31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경동건설산업은 오는 21일 마곡지구 C14-1·2블록에 짓는 ‘서울 마곡지구 경동미르엘’ 오피스텔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전용면적 18~24㎡ 총 297실로 구성된다. 대우건설은 4월 중 마곡지구 B5-2블록에 총 552실 규모의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엘코도 8월 마곡지구 A13블록에 전용면적 59~84㎡ 총 1205가구의 공급 체비를 갖추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마곡지구 내 LG 사이언스파크와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입주가 확정되면서 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세 상승을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관 기자 kwan@

## 추천 경매 물건

용도	소재지	대지(㎡)	대지(평)	건물(㎡)	건물(평)	감정가(원)	최저입찰가(원)	감정가 대비(%)	입찰 및 개찰일	경매 개	사건 번호
아파트	서울 노원구 상계동 995 한신 3동 3층 309호	46	13.8	85	25.7	330,000,000	211,200,000	64.00%	4월 7일	북부12	2013-9055
아파트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398 대림 101동 15층 1501호	17	5.2	59	17.9	840,000,000	430,080,000	51.20%	4월 8일	서부4	2013-9334
아파트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6·507 동아 한가람 106동 5층 505호	20	6.2	60	18.1	350,000,000	280,000,000	80.00%	4월 7일	동부3	2013-15962
아파트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 삼정그린코아 102동 3층 304호	48	14.6	108	32.7	620,000,000	396,800,000	64.00%	4월 8일	남부1	2013-16968
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71-1 월드컵현대 102동 5층 503호	39	11.8	111	33.6	450,000,000	360,000,000	80.00%	4월 8일	서부6	2013-19966
아파트	경기 광주시 목현동 21 신일드림빌 103동 6층 601호	99	29.9	85	25.7	200,000,000	160,000,000	80.00%	4월 7일	성남1	2013-9507
아파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30 금곡캐슬 301동 7층 701호	124	37.4	230	69.5	670,000,000	328,300,000	49.00%	4월 8일	수원17	2013-17277
아파트	경기 하남시 덕풍동 695 덕풍백산블루밍 103동 9층 904호	37	11.2	85	25.7	344,000,000	275,200,000	80.00%	4월 7일	성남6	2013-26649
아파트	경기 화성시 반송동 200 동탄나루마을 한화꿈에그린 623동 5층 503호	83	25.2	114	34.4	384,000,000	268,800,000	70.00%	4월 8일	수원16	2013-39215
아파트	인천 서구 감람동 501-1 동림아이원2차 103동 14층 1403호	34	10.2	60	18.1	204,000,000	142,800,000	70.00%	4월 4일	인천3	2013-60403

※자료:지식옥션

◇서울 노원구 상계동 995 한신아파트 = 3동 309호가 경매에 부쳐진다. 1995년 준공된 5개동 397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5층 건물 중 3층이다. 7호선 수락산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다. 최초 감정가 3억3000만원에서 2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 매각가는 2억1120만원이다. 입찰은 오는 4월 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2계에서 실시된다. 사건번호 2013-9055.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 대림아파트 = 101동 1501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4년 준공된 4개동 638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22층 건물 중 15층이다. 4호선 신용산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다. 최초 감정가 8억4000만원에서 3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 매각가는 4억3008만원이다. 입찰은 오는 4월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6계에서 실시된다. 사건번호 2013-9334.



◇경기 광주시 목현동 21 신일드림빌아파트 = 103동 6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2년 준공된 4개동 294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5층 건물 중 6층이다. 주변에 광주시청, 뉴서울CC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최초 감정가 2억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 매각가는 1억6000만원이다. 입찰은 오는 4월 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1계에서 실시된다. 사건번호 2013-9507.



이상혁 기자 daniel@

## 노현송 강서구청장

#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되면 재산가치 60조 창출”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의 재산적 가치가 50조~60조원은 창출될 것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11일 김포공항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용역은 김포공항 주변 지자체인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시행했다. 용역은 항공학적·법률적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졌다.

항공학적 검토는 강서구 내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삼았다. 마곡지구는 김포공항과 1.5km 이내에 있고 다른 지형지물이 없는 평지이므로 이 지구의 검토 결과를 다른 지역까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기관 연구용역결과 발표  
건축물 높이 항공학·법률적 검토  
119m까지 높여도 비행 이상무  
정부 청원 위해 30만 주민 서명



노현송 구청장은 “항공학적 검토 결과 현재 기준의 두 배인 해발 119m까지 완화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현행 기준이 57.86m로 두 배가 넘는 높이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4km로 지정된 수평표면 반경을 3km로 축소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수평표면이란 쉽게 말하면 활주로를 둘러싼 일정한 거리의 구역이다. 현재는 활주로부터 4km 내 진입표면구역(활주로부터 연장된 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법률적 검토는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강서구는 이번 용역 결과를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청원하기 위해 30만 주민 서명운동을 펼쳐 구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구는 용역 결과 및 주민 서명부를 첨부해 정부(국토부), 국회, 청와대에 이달 중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노 구청장은 “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대해 세계적 추세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제2롯데월드 사례에서 국토부가 입장을 바꿔 허가한 것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 국토부, 산하공공기관 정상화 매달 점검

### LH 등 14곳 방만경영·부채 관리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현황을 매달 점검한다.

김경식 국토부 1차관은 산하 14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달과 오는 6월은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점검회의가 열린다.

국토부가 중점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부채관리 기관 5곳과 방만경영 관리 7곳이

다. 부채관리 기관 5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다. 부채관리 기관 5곳과 인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 이 방만경영 관리 대상이다.

김경식 차관은 “5개 기관이 재무관리 계획보다 부채 증가 규모를 줄인다는 대책을 내놨으나 도로공사를 뺀 나머지 4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 개선성이 미흡하다”며 “이달 말까지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 산업군별 대표기업도 다양한 강소기업도

# ERP는 역시, 더존ERP

### 자체 데이터 센터 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D-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모바일, 보안시스템 등 최신 IT기술을 접목

### 단계별 ERP Line-up

확장형 ERP, 건설 ERP, 비영리법인용 ERP 등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단계별 Line-up 보유

###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IFRS 연결·개별 솔루션, XBRL 솔루션, FTA-원산지 관리시스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보유

### 완벽한 통합 시스템

22년 ERP업력으로 산업군별 표준 프로세스, 특화서비스 보유 및 자체 확장솔루션(그룹웨어, MES, POP 등)을 통한 완벽한 통합시스템 구현

www.duzon.co.kr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 ‘주택바우처’ 97만가구에 월 11만원씩

#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A씨는 소득 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을 내면서 지금까지는 6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24만원을 받게 된다.

# 경기지역의 2인 가구의 B씨는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로 10만원을 내면서 5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10만원을 받게 된다. B씨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한다면 1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바우처 지급대상이 오는 10월부터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고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된다.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입법

국토부 10월부터… 4인가구 월소득 173만원 이하 해당

지급대상 24만가구 대폭 확대, 평균지급액도 3만원 더

임차료 3개월 연체면 지급 중단…다른 목적 사용 차단

예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에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국토부에서 주거급여법과 통합한 것으로 법령 제정안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현금급여기준선 이하)에서 173만원 이하(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

(4인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부담 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의 경우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거주형태 및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한 주거비 지원 수준 역시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 80만원인 3인가구가 매달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현재는 주거급여액이 6만원이지만 10월부터는 24만원으로 4배 늘어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주거급여가 시행됐으나 대상자수가 적고 대

상가구의 주거비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매달 20일에는 세를 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해 자기 집에서 사는 자가가구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수선해 주는 지원이 시행된다.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해 목적 외 사용을 방지했다. 단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주거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체된 월세를 상환하면 지급 중단을 풀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영관 기자 kwan@

## 서울시, 여성 비정규직 뒷집만…다산콜 열악한 처우 여전

상당사 성희롱 대책 마련했지만

직접고용 등 처우개선엔 한발짝

인권위 “女노동자 절반 비정규직

평균 월급도 113만원 최저 수준”

서울 여성 비정규직 문제가 또 한 번 불거졌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뒷집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근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직접고용에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120다산

콜센터 여성 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성희롱한 민원인 6명을 경고조치 없이 즉시 검찰에 고소했다.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문제가 끊이지 않자, 시는 지난달 ‘월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후 적용한 첫 사례다.

하지만 시가 상담직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으며,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정규직 전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시청 앞에서 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고용불안 등 처우개선 요구는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임기 시작 때부터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2년 남도록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박 시장은 취임 후 센터를 방문하거나 의견 수렴을 한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오히려 그동안 시의 입장은 ‘직접고용에서 처우개선’ 쪽으로 한 발 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월 실시하는 심화용역 투입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처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이 시청 업무

외에 길 찾기나, 분실물 신고 접수 등 기타 업무를 맡아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 모색을 위해 오는 4월 심화 용역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냉대도 여전하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7.5%로 남성 노동자 비정규직 비율(37.2%)보다 훨씬 높았다. 여성 비정규직 한 달 평균 임금은 113만원 수준이며 비정규직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진 기자 tjippo@

## 개인정보 1230만건 유통업자 등 18명 검거

이통사 등서 빼내 재가공 판매

카드사와 이동통신사 등에서 잇따라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과 함께 맞춤형으로 가공까지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가 적발한 불법 유통 개인정보 1230만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개인정보 가운데 423만 건은 LG유플러스와 KT 등 이동통신 2사와 초고속 인터넷 업체인 SK브로드밴드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각사 대리점에서 보관하다가 해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최근 KT가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유출된 고객정보 1200만 건과 다른 것이다.

또 시중은행을 비롯한 11개 금융기관과 여행사, 인터넷 쇼핑몰, 불법 도박 사이트 등지에서 수백만 건의 정보가 샀다.

경찰이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출됐는지 추가로 수사해봐야 할 수 있지만 유통업자 문모(44)씨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집한 것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성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씨는 입수한 개인정보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나이, 성별, 거주지, 직업 등으로 가공해 불법 대부업체 관계자 권모(31)씨 등 17명에게 1000만~1100만원에 넘겼다.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 추려 맞춤형으로 제공한 것이다.

분류한 직업군에는 판사와 언론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가 정밀하게 가공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자격 미달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부된 이른바 ‘부결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가 건당 1원인 단순한 정보보다 훨씬 비싼 건당 1000원에 판매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권씨 등은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해 대출과 물품판매 권유, 업체 홍보 등에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통되는지 확인된 셈”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차단도 중요하지만 불법 유통망을 근절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모(44)씨를 구속하고 권모(3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태진 기자 tjippo@



올해 첫 연합학력평가

2014학년도 3월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2일 오전 서울 중로구 풍문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노진한 기자 myfixer@

## 정부 ‘가습기 살균제로 폐 손상’ 168건 피해 인정

의심사례 361건중 절반 확실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 사례 361건 중 168건은 인과 관계가 거의 확실한 피해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조사 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361건의 의심사례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으로 집계됐다. 의심 사례의 절반 가까이가 실제 피해 사례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가능성이 작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에는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망이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조사 책임자로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진행됐다. 개인별 임상, 영상,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용력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 받게 된다. 이번 조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환경부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조사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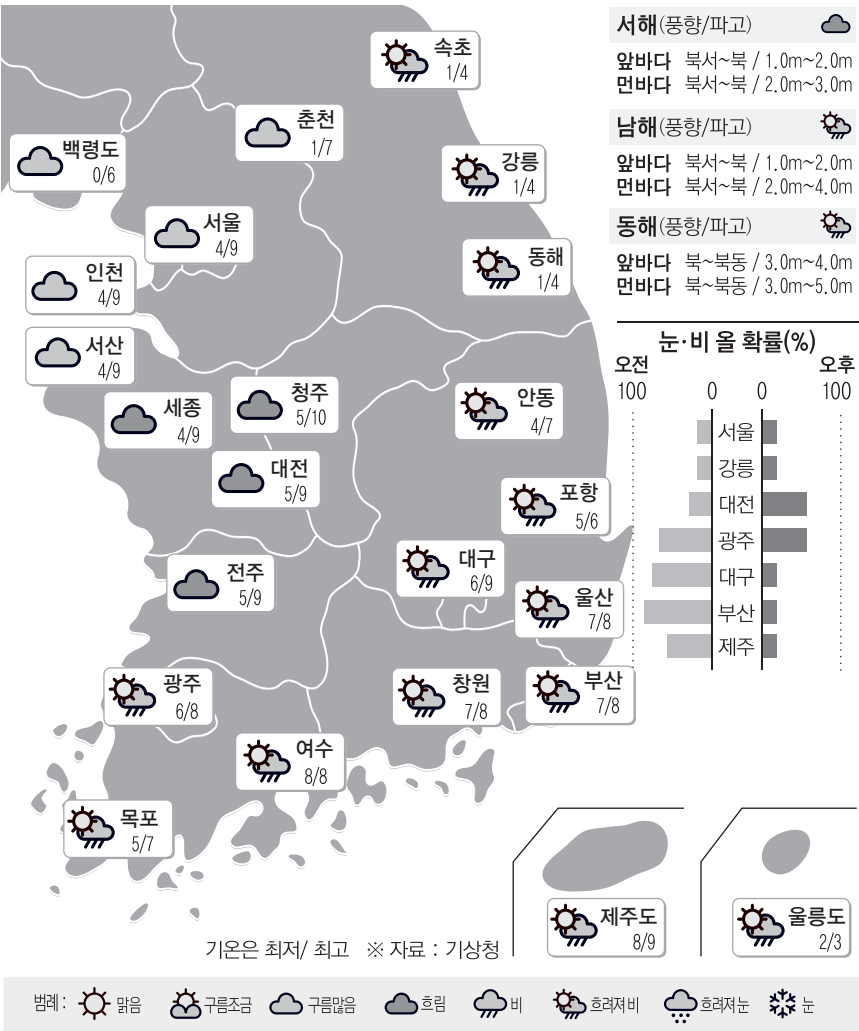
김시영 기자 kimsy@

내일의 날씨

3월 13일 ☀ 해돋이 06:47 해질 18:37 🌙 달돋이 15:33 달질 04:30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영서남부와 충청북도,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했다. 또 충청남부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도서부내륙에서는 오후에 한두차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0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1.0~2.5m로 일겠다.



## 삼성전자에 600억 벌어다준 연구원

## 직무발명 보상 소송, 조정으로 봉합

고화질 텔레비전 기술 초석 다져

조정 구체적 내용은 공개 안해

삼성전자 고화질 텔레비전 기술의 초석을 다진 전직 연구원이 합당한 보상을 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이 최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지낸 정모씨(가명)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6일 강제조정을 결정했고,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임의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에게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무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항소심에서 수차례 임의조정에서 실패한 삼성전자와 정씨는 재

판부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였다.

양측은 다만 조정의 구체적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법원도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이같은 원칙은 조정 결정문에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 텔레비전 연구·개발을 주도해 국내외 특허 38건을 회사 명의로 출원했다. 대학 교수로 전직한 정씨는 회사가 자신의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전자가 정씨의 특허 발명 덕분에 625억여원을 벌었다고 판단했다. 그중 정씨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정하고, 그가 이미 받은 2억여원을 제외한 60억 3000여만원의 보상을 인정한 바 있다.

송영록 기자 syr@

## GS·대우 등 주요 건설사들 경력직 채용



자격요건·입사 지원일 체크를

주요 건설사들이 경력직 채용에 나서고 있다.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엔코 등이 경력사원 모집에 나섰다.

GS건설은 EPC(설계·조달·공사)사업 부문 경력사원을 뽑는다.

분야는 스플랜트(지원) 스플랜트(설계) △발전이며 16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해당 직무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영어가능자이어야 하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대우건설은 이라크 해외기능직을 모집한다.

모집직종은 △토공반장 △토목공반장 △철근반장 △미장반장 △기계공반장 △TFT팀(심장, 목수, 철로공 등)이며 20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SK건설이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분야는 △화공플랜트 △발전플랜

트 △토목 △품질 및 안전 △현장관리 △구매 등이며 입사지원은 17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 관련 경력 4년 이상, 관련업종 및 유관업종(정유, 가스, 중공업 등) 근무 경험자 등이며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 및 영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현대차그룹 현대엔코가 PJT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현장관리이며 담당업무는 원가관리, 노무관리, 현장총무, 민원대응 등이다. 16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부문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러시아어 또는 영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동일토건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시공 △설계 △공사 △자재·구매 등이며 17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부문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러시아어 또는 영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이밖에 경남기업(19일까지), 우방건설(14일까지), 한빛건설(15일까지) 등도 채용을 진행중이다.

박용남 기자 bangnam@



‘400억대 토지 기부’ 문태식 아주그룹 회장 흉상 서울 중랑구청 로비에

# “기업 성장 일군 지역사회에 재산 환원”

포브스도 지난해 아태평양지역 기부영웅 48인에 선정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용한 선행을 배 품기로 유명한 문태식(사진) 아주그룹 명예회장의 흉상 제막식이 진행됐다. 이는 서울시 중랑구 발전을 위해 400억원 상당의 사재를 기부한 문 회장의 지역사회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일 중랑구청 청사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제막식에는 문 회장을 비롯한 문병권 구청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약 3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된 청동 재질의 흉상은 석좌대를 포함해 1900mm크기로 중랑구청 1층 주민센터에 세워졌다. 석좌대에는 문 회장의 업적과 약력이 기록돼 있다.

문 회장은 지난해 5월 아주그룹이 최초로 기반을 닦았던 서울 중랑구 내 임야(26만1494㎡), 도로(2305㎡) 등 토지 26

만3799㎡를 지역 발전과 청소년 장학사업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했다. 문 회장은 기부한 토지는 시세로 4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아주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부는 명예회장이 평생지켜 온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경영자로서의 신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며 “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준 중랑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중랑구는 기부 받은 부지에 새로 조성할 공원과 장학금 이름을 문 회장의 호(號)를 따 각각 ‘청남공원’과 ‘청남장학금’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문 회장의 이 같은 기부 사실은 멀리 바다 건너 미국까지 전해졌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말 문 회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부영웅 48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국내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문 회장은 기업의 성장을 일군 발원지에 개인 재산(부동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했다는 사실이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브스는 선정 배경으로 “1960년대 중랑구에서 건자재 사업으로 시작한 아주그룹은 자동차 렌탈사업, 금융, 부동산, 호텔, 레미콘 사업 등으로 확장했으며 문 명예회장은 이 같은 성공을 지역사회에 보답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회장은 1960년 9월 지금의 중랑구 상봉동에 (주)아주산업을 설립한 이후 그룹 경영의 기반을 다져왔다. 1970년대 건설용 고강도 홈 파이프를 공급하며 건자재 전문기업 성장했으며 1980년대 들어 현 주력 사업인 레미콘 업계에 뛰어들어 ‘업계 빅3기업’으로 도약하기도 했다.

특히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농어촌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활발했던 당시, 나무가 귀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해 목재 전신주를 대체할 수 있는 콘크리트 전신주를 개발한 문 회장의 일화는 유명하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강윤구 교수 보령암학술상

보령제약과 한국암연구재단이 공동 제정 시행하는 보령암학술상 제13회 수상자에 올 산대대학교 의과대학 중앙내과 강윤구(58·사진) 교수가 선정됐다.

보령제약은 강교수가 위장관기질종양(GIST)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연구, 교육을 선도하며 최근 새로 정립된 이 질환에 대한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김시영 기자 kimsy@



서판길·이경수 교수 아산의학상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7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서판길(62·왼쪽 사진) 울산과 기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이경수(57·사진)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서교수는 생명현상의 기본원리인 세포신호 전달의 개념과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암 성장과 전이 과정의 비밀을 밝힌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이교수는 영상장비를 이용해 폐암의 조기진단과 암의 진행 상태인 병기 결정을 실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시영 기자 kimsy@

## ‘골프 세계랭킹 1위’ 박인비 체육훈장 맹호장

메이저대회 3연승 등 공로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다.

박인비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체육훈장 맹호장 전수식에 참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부터 맹호장을 받았다. 이날 훈장 전수식에는 김종 차관을 비롯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이영귀 부회장이 참석했다.

체육훈장 맹호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운 국민체위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박인비는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63년 만에 메이저대회 3연승의 업적을 남기며 한국인 최초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48주째 세계랭킹 1위를 지키고 있다.

박인비는 “체육 훈장을 받게 돼 영광이다. 앞으로도 국위 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 선수 중에는 박세리(2010년 정통장), 김미현, 박지은, 구옥희 등이 맹호장을 수여한 바 있다.

한편 9일 중국에서 끝난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을 장식한 박인비는 이날 짧은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 2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LPGAT투어 파운더스컵에 대비할 예정이다. 오성민 기자 golf5@



박인비(왼쪽)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부터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KLPGA



유한공고 학생 등 1500여명이 참석해 묵념과 헌화해 고인을 기렸다.

지난 1926년 유한양행을 창립한 고인은

유한학원과 유한재단을 설립하는 등 작고할 때까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과 사회봉사 정신을 실천했다. 김시영 기자 kimsy@

## 유한양행 창업자 고 유일한 박사 43주기 추모식

유 한 양 행 은 창 업 자 인 유 일 한 (1895~1971) 박사의 제43주기 추모식을 11일 오전 유한대학 내 유일한 기념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묘소가 있는 유한동산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김윤식 사장을 비롯한 유한양행 임직원과 유가족,

###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장 서기관 정경희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장 서기관 나성희
- ◆보건복지부 △기초연급사업지원단장 류근혁 △연급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장 김현준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인기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김철민 △예산국도관리사무소장 박희성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임광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광덕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장 이재형
-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장 이종희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장 김삼기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장 이길배 △국립무

- 형유산원 전승지원과장 홍두식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장 연 웅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장 유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장 경덕문 ◇4급 승진 △대변인실 윤혜영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정성조
- ◆한국감정평가협회 ◇상근 임원 △상근부회장 신순철 △선임부회장 최호근 △기획이사 김윤철 △업무이사 이기수 △부동산이사 연광철 ◇위원회 위원장 △기획위원회 김윤철 △정책연구위원회 정재홍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회 김철홍 △윤리조정위원회 임부택 △연수위원회 이기수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 연광철 △임대사례조사연구협의회 연광철 △지가변동률조사평가협의회 연광철 △국제위원회 경응수 △전산위원회 김현기 △공제사업위원회 정광훈 △법무위원회 이연택 △감정평가심사위원회 신동귀 △감정평가기관추천위원회 서순택 △감정평가기준위

- 원회 류운상 △미래위원회 조은경 △금융실무위원회 김윤철 △보상평가검토위원회 주종진
- ◆신한금융투자 ◇지점장 신규선임 △유성지점장 신화찬 ◇전보 (지점장) △대전둔산지점장 김미라 (센터장) △신한PWM 대전센터 개설준비위원장 이성훈
- ◆포스코 ◇본부장(사내이사) △철강사업본부장 장인환 △철강생산본부장 김진일 △경영인프라본부장 윤동준 △재무투자본부장 이영훈 ◇부사장 △포항제철소장 이정식 △전무 △유림사무소장 임창희 △글로벌마케팅조정실장 김원기 △노무의주실장 고석범 △철강기술센터장 김지용 △일본법인장 이영기 △프로젝트지원실장 김세현 △신사업관리실장 장인화 ◇상무 △광양연구소장 주상훈 △CSP법인장 김동호 △포항연구소장 윤한근 △광양선강담당 부소장 최주 △선재마케팅실장 강석범 △투자엔지니어링실장 권우택 △

- 강간제열연마케팅실장 방길호 △베트남법인장 윤양수 △광양 행정담당 부소장 양원준 △포항 STS담당 부소장 이은석 △HR실장 최홍진 △전기전자마케팅실장 이원휘 △재무실장 노민용 ◇전문임원 △정철규 △유성 △황석주 △이창진 △김교성 △이상호 △한찬희 △홍문희 △양성식 △이영우 △유병욱 △신학균 △하경식 △오승철 △원형일 △배재택 △이주태 △파격직
- ◆코엑스 △기술사업본부장 유인수
- ◆한국안선 △하남공공 광장작 마이클 최
-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무처장 김태룡 △학사처장 오승종 △산학협력담당 장학락
- ◆한국경제신문 ◇독자서비스국 △독자개발부장 신민홍 △수도권독자2부장 이상렬 △지방독자부 부산지사장 송주현
- ◆YTN라디오 △뉴스제작팀장 김우성 △마케팅팀장 장승

## “일본군 위안부 역사자료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유엔여성지위위원회서 재확인

조윤선(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등 다른 피해국의 위안부 관련 기록을 조사해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조 장관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등재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내와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흩어져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을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등재 신청은 2015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정부예산이 양성(兩性)에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또 “여성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2017년까지 40%로 올린다는 게 한국 정부의 계획”이라고 강



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용률을 현재의 53.9%에서 61.9%로 확대하는 방안을 역점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계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잠재력을 묶어둔다면 인류는 결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며 “여성이 일과 가정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고 꿈을 포기하면 인류의 행복은 실현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연설을 마친 조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네덜란드 수석대표 등과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12일에는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여성정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강의하며, 13일에는 뉴욕 인근에 위치한 위안부 기림비와 홀로코스트 박물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서울대 강기석·김용협 교수 연구팀

## 차세대 친환경 리튬 공기전지 개발

서울대 공대는 재료공학부 강기석(사진) 교수 연구팀(인화대 연구원)이 기계공학부 김용협 교수 연구팀(송해연 연구원)과 공동으로 새로운 양극소재 개발과 촉매를 도입해 리튬공기전지의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리튬이차전지나 니켈수소전지를 사용한 기존의 전기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턱없이 짧은 게 현실이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이 리튬이차전지에 비해 용량이 5~10배 큰 리튬공기전지다. 그러나 리튬공기전지는 수명특성과 에너지 효율이 나빠 새로운 양극재와 촉매의 개발이 시급했다. 공동 연구팀은 리튬공기전지의 새로운 양극재를 개발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촉매의 도입으로 성능을 향상시켰다. 먼저 일렬로 정렬된 탄소나노튜브 직물을 합



성하고, 이를 교차로 엮은 다공성의 직물 구조체를 양극재로 도입해 안정적인 수명특성을 확보했다. 또 새로운 개념의 액상 촉매를 도입해 효율을 높였다.

강 교수는 “이번 연구로 개발된 고용량 친환경 전기 사용으로 전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강기석 교수가 지도하고 박사과정 인화대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탄소복합체 분야의 권위자인 서울대 기계과 김용협 교수 및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의 R. H. 보프만 교수와의 협동 연구로 진행됐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유희석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유희석(사진)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11일 오후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의료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위해 안으로는 내실을 기하는 한편 수평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79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육포대우병원 산부인과장을 거쳐 미국 오하이오 주



립대학 제임스 암센터에서 2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지난 1994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했고 교육수련부장, 연구지원실장을 거쳐 아주대학교병원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인사로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아주대학교의료원장을 겸직하게 됐다.

김시영 기자 kimsy@

### 부음

- ▲서재희(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씨 별세, 용진(하나프로스퍼 회장)-지흥(한국정리수납권설턴트협회 전문강사)-미홍(고양시청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은희(에듀프라이미아노 학원장)씨 부친상, 김다혜(한글3M 근무)씨 외조부상 = 10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02-3010-2000
- ▲이동훈(랍보르기나 서울 대표)씨 부친상 =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백병원, 발인 13일 오전, 051-711-4400
- ▲이영국(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 상

- 무)씨 부친상 = 10일 오후, 경상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055-750-8651
- ▲박종철(전 마산시의원)씨 모친상 = 11일 오전, 마산의료원, 발인 13일 오전, 055-249-1401
- ▲윤석규(㈜그레이트퍼뮤니케이션즈 대표)-학준(전 부여고등학교)-석만(한국외대 불어과 교수)씨 모친상, 이건희(충남대 수학과 교수)씨 장모상 = 11일, 충남 대학교병원, 발인 13일 오전, 042-280-8181
- ▲김영범(CBS 사목실장)-영진(대전대 법학과 교수)-영권(한마음치과 원장)씨 부친상 = 11일 오전, 을지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042-611-3980







기고

흡연피해 손배, 국민청원 나서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4800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으며, 발암물질 대부분은 천연 담뱃잎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8배가 높고, 201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만8155명으로 연간 총 사망자의 21.8%가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담배규제협약(FTCT)을 체결해 모든 나라들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설정, 금연 홍보, 흡연예방 교육, 금연클리닉 등의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여전히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 이상으로 OECD 평균보다 10%를 훨씬 상회한다. 이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안을 의결했고, 3월 중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우리나라 여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가 흡연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



이 주 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회장

다.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치료를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7000억원가량 지출되고 있다. 그 동안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담배회사가 발생시킨 불필요한 재정누수라고 할 수 있다. 흡연은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니코틴의 중독성을 조장한 담배회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흡연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흡연단체도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

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공격에 가세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담배회사 상대로 흡연피해보상 소송이 시작하기도 전에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는 장면들이다.

담배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논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로 본말을 전도시키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보험료로 지출되었지만 법정 공방의 과정에서 흡연의 폐해와 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고취는 그 어떤 고비용의 금연운동보다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편의점 업계 2위 CVS가 연간 매출액의 16%(약 2조2000억원) 감소를 감수하면서부터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목적 외에 흡연으로 건강 손상을 입고 있는 국민을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배일에 가려져 있던 담배의 온갖 유해한 첨가물들도 소송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미국의 담배회사들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화해'라는 이름으로 200조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며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기관과 국회가 소극적이라면,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하는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이번 소송을 진행시켜야 한다. 반드시 담배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객석

정상화 급한 비정상적 대학교육



강 성 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한없이 길 것만 같은 겨울도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왔지만 마음이 괴로워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다름 아닌 330만명이 넘는 대학생들과 어립집작해도 500만명이 넘는 그들의 부모들일 것이다. 물론 이들이 괴로운 이유는 다름 아닌 등록금 때문이다.

한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3월이면 전국의 캠퍼스에서는 등록금 투쟁이 관례로 벌어져 '개나리 투쟁'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매년 등록금이 인상되다 보니 어느덧 대학 등록금은 고배 풀린 망아지가 되어 일반적인 가정에서 빚을 지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다. 현재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은 전공별로 연간 최소 800만원 정도부터 최대 1000만원을 훌

쩍 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등록금이 높은 국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은 일반적인 등록금 지불수단이 되고 등록금 문제가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잡게 된 것은 당연하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현 대통령도 대학 등록금이 사회문제를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반값등록금과 전폭적인 국가장학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록 전자는 이행조차 되지 않았고 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지만 말이다.

대학교육을 시장논리로 바라봤을 때, 응당 등록금이 많다고 한다면 대학 교육의 질도 그만큼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 대학교육은 시장논리를 초월하는 공공재이기는커녕 단순한 시장논리도 성립되지 않는 모순이다.

해결책을 곰곰이 따져보면 오로지 정부의 역할로 귀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한 만큼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해본다.

기자의 눈

정보보호, 소비자 위주로 바뀌라



조 성 준  
미래산업부/itatio@

잊따름 개인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통계에 따르면 기자의 개인정보도 5개 이상 어딘가에 떠돌아다녀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2개월이 채 안돼 국내 대표 정보통신업체라는 KT에서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LG유플러스도 안전하지 않았다.

특히 KT는 2012년 87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보안인프라를 구축해 정보보호에 힘을 썼을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2년 만에 또다시 개인정보를 손쉽게 내주고 말았다. 그것도 '파고다 프로그램'이라는 중학생이 2-3시간만 공부하면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보더라도 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카드번호·공인인증서·재산내역 등 민감한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상흔들 금융정보가

알려졌으니,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 빼돌린 개인정보로 카드를 발급받았거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범행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작 기업들의 보안의식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보다 강화된 보안시스템 구축은 단지 쓸모 없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설사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벌금 60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송하다며 머리 숙이는 시늉만 하면 된다. 개인정보가 털린 개인들의 피해구제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카드를 교체하라,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등 피해자가 직접 나서 사태를 수습하라고 닦달할 뿐이다. 현실이 그러할진대 누가 보안시스템을 첨단화하는데 수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겠는가. 미국에서 KT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물론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도 최소화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과 대응책들이 이제는 정보통신 선진국에 걸맞게 소비자 위주로 바뀌어야 할 때다.

강영관의 부동산 업&다운

부동산 시장 찬물 끼얹은 '임대稅'

부동산은 심리다. 연초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퍼지면서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 분양시장 등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국회 설득 작업을 통해 주택시장을 살리려 했던 노력도 주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봄은 반짝 상승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겨루기 속에 시장이 제 풀에 지쳤던 지난 사례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정부의 선봉선 판단 탓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간신히 지면 부동산시장의 작은 불씨에 정부가 다시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는 것은 지난날 말,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와 은퇴한 임대소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자 당국은 1주일 만에 분리과세를 2년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와 2주택자 중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올해 5월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조세 정책에 대해 집주인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임대차시장 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연초부터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른 매입 부담감에도 정부의 임대소득세 관세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모두 과세 대상이 많지 않고 세금도 높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일단 집주인이나 매수자들은 과세 방침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간 대부분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로 등록하지 않고 소득세도 내지 않았던 만큼 집주인 입장에선 '웬 날벼락이냐'는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2012년 기준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임대인이 전체 다주택자의 6% 정도에 불과했다.

법과 제도는 시대를 반영한다. 시대에 맞게 제도가 정비돼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 제도가 너무 늦게 나와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앞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장이 불확실해지면 그 틈을 타 반칙과 변칙이 성행하고 왜곡이 발생한다. 보완 대책 발표 뒤 집주인들 사이에선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포기를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에선 집을 팔겠다거나 세금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아졌다고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는 호가과 매수 타임을 문의하던 매수자들이 많았다. 시장 회복 기대감에서 임대세금으로 시장 화제가 전환된 것이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이처럼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당장 여당에서조차 '원점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다.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정책을 만드는 당국도 아니고 이를 법제화하는 정치권도 아니다.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온 서민들이란 것을 잊은 모양이다. 사회생활부 기자 wan@

이투데이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이종재	광고국장 임영재
社 是 正 道 言 論 經 濟 報 國 未 來 指 向  www.etoday.co.kr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정치경제부	(02)799-2655	시장부	(02)799-2658
	산업부	(02)799-2654	미래산업부	(02)799-2663
	문화부	(02)799-2669	국제경제부	(02)799-2650
	광고접수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03 / 260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 서동구 동작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아픈 몸은 깨달음을 위한 좋은 도구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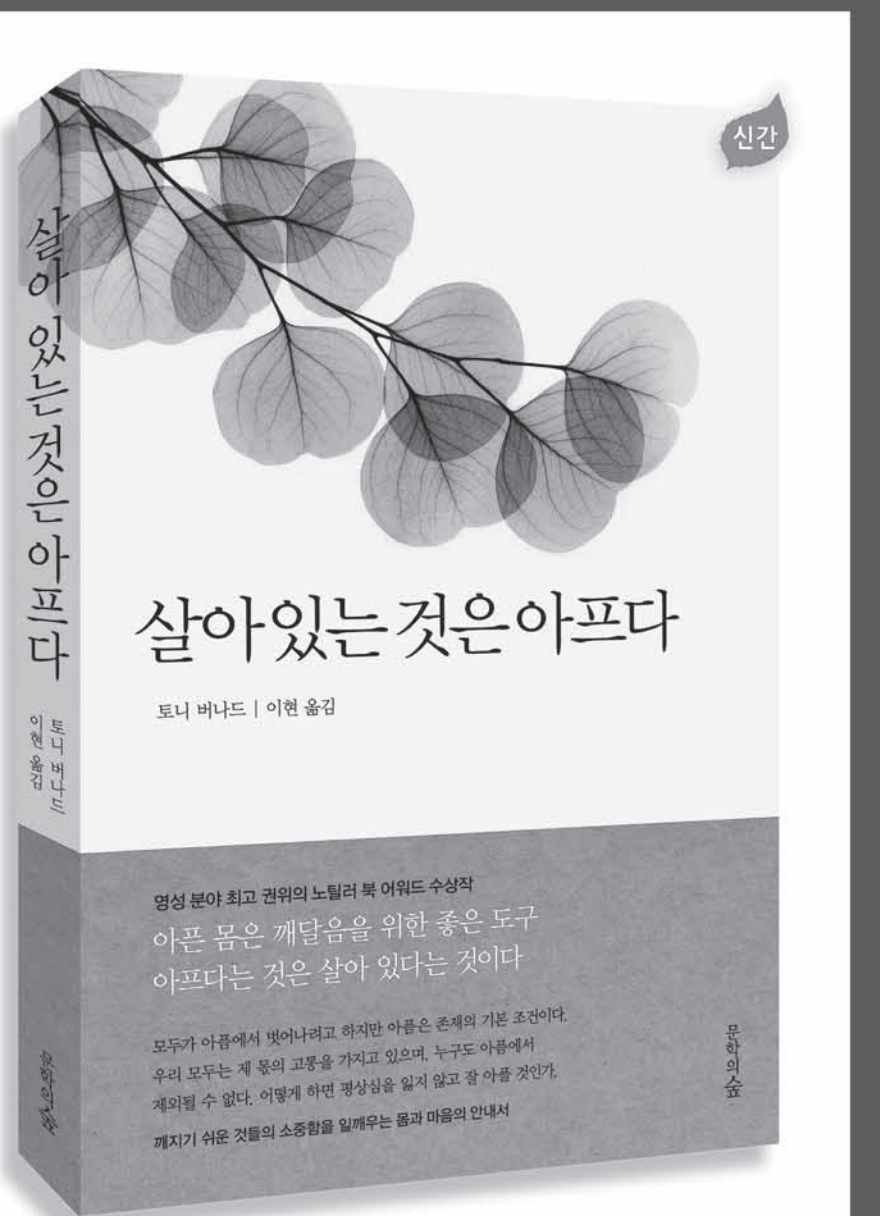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영성 분야 최고 권위의 노틸러 북 어워드 수상작

인생의 장막에서 갑자기 불차방에 걸려 쓰러진 밥배 교수의 감동적인 실화. 그녀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상실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되었다. 영혼에 대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인생의 춤과 함께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안내서

깨지기 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몸과 마음의 안내서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 이현 옮김 | 236쪽 | 1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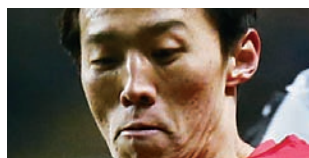
## 평가전 마치고 소속팀 복귀한 유럽파 입지는



박주호



이청용



김보경



박주영



손흥민



지동원

## 맑음 흐림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6일(한국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그리스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브라질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인하는 마지막 A매치 데이에서 거둔 승리다.

이날 한국은 박주영(왓포드)과 손흥민(바이어 레버쿠젠)이 전후반 각각 한 골씩을 기록하며 승리를 거뒀다. 그리스전에는 이들을 비롯해 지동원,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기성용(선덜랜드), 구자철, 박주호(이상 마인츠05), 김보경(카디프 시티), 이청용(볼턴) 등 무려 9명의 유럽파가 자리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쳤다.

홍명보 감독은 부임 이후 줄곧 "소속팀에서 꾸준히 활약하는 선수를 위주로 대표팀을 구성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왔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럽파의 현 상황이 그리 안정적이지 않다.

우선 손흥민은 소속팀 레버쿠젠의 부진이 아

쉽다. 손흥민은 주말 하노버96과의 분데스리가 24라운드에 선발 출장했지만 팀은 1-1 무승부를 기록했고 그는 득점하지 못했다. 비록 레버쿠젠은 공식 경기 연패를 5경기에서 끊었지만 그 역시 20라운드 이후 득점이 없다. 아스널을 떠나 잉글랜드 2부리그에 새롭게 동지를 둔 박주영 역시 부상으로 팀 전력에 전적으로 가세하지 못하고 있다. 이적 이후 단 2경기에 출장했을 뿐이다. 그나마 그중 한 번은 후반 추가 시간에 투입됐다.

아우크스부르크 소속의 지동원과 홍정호 역시 활약은 그리 크지 않다. 전반기 내내 선덜랜드에서 단 5경기 출장에 그친 지동원은 후반기 아우크스부르크에 합류했지만 7경기에서 1골에 그치고 있다. 선발 출장은 단 두 번이었고 지난 주말에도 교체로 출장했다. 홍정호 역시 기존 중앙 수비진에 밀려 올시즌 내내 11경기에 나왔을 뿐이다. 이 중 선발 출장은 기존 선수들

이 정계로 출장하지 못한 3경기뿐이다.

반면 박주호는 시즌 내내 팀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올시즌 이전 바젤에서 마인츠로 이적한 그는 팀이 치른 24경기 중 23경기에 출장했고 선발로 22번이나 나섰다. 특히 본연의 왼쪽 풀백뿐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도 무난한 활약을 펼치며 토마스 투헬 감독의 큰 신뢰를 받고 있다. 투헬 감독은 그가 유일하게 부상으로 결장한 22라운드를 앞두고 "박주호의 결장은 큰 타격"이라고 언급한 뒤 "그가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뒤 결정한다면 그때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한 신뢰를 나타냈다.

한편 이청용은 최근 교체로 꾸준히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고 김보경은 최근 두 경기에서 선발로 출장하며 입지를 넓혀 가고 있다. 하지만 김보경과 기성용 등은 소속팀이 나란히 강등권에 속해 있어 어려운 시즌이 계속되고 있다.

차상엽 기자 sycha@

## 봄 기지개 켜는 골퍼들

# 실속파 vs 품격파



노캐디제... 저렴한 그린피로 경쟁력 '업'

인천 드림파크·정선 에콜리안 10만원선

명품 코스·특급 서비스 등 '고가 마케팅'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37만원 최고

골프의 계절이다. 파릇파릇 돌아나는 새싹이 골퍼들을 유혹한다. 봄을 맞은 골퍼들이 행복한 이유는 또 있다. 취향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 골프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코스 상태는 상관없다. 저렴하기만 하だよ"라고 말하는 알뜰형 골퍼가 있는 반면 "돈은 상관없다. 코스·서비스만 좋다면"이라며 황제골프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봄은 세상 모든 골퍼의 천국이다.

그래도 대세는 저가 그린피를 앞세운 퍼블릭 골프장이다. 그만큼 저가 그린피를 원하는 골퍼들이 많다. 당초 회원제 골프장 개장을 목표로 했던 골퍼장이 대거 퍼블릭으로 전향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유승영 회원권114거래소 대표는 "전국 어디라도 골프장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경쟁력은 필수가 됐다. 특히 골퍼들의 골프장 선택 기준은 그린피다. 주변 골프장과 그린피를 비교해 비싸다고 판단되면 가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가 그린피 골프장은 경쟁력이 없다"고 전했다.

18홀 기준 가장 저렴한 그린피 골프장은 인천 서구의 드림파크 골프장이다. 주중 9만원, 주말 12만원으로 인천시민에게는 주중 5만원, 주말 10만원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콜리안 정선·제천 골프장은 노캐디제를 도입해 만족도가 높다. 그린피는 주중 5만8000원, 주말·휴일 7만8000원이다. 전북 고창의 석정힐 골프장은 주중 6만~7만5000원, 주말·휴일은 11만~12만5000원이다.

그 밖에도 10만원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 많다. 경남 김해의 가야CC 퍼블릭은 주중 8만원·주말 10만원, 경남 사천의 삼삼CC 퍼블릭은 주중 5만5000원·주말 9만5000원, 경기 파주와 남여주는 주중 최저 6만원·주말 12만5000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저가 그린피의 붐물 속에서도 고가 프리미엄 마케팅을 고집하는 골프장도 적지 않다. 수도권 대표 회원제 골프장인 경기 성남의 남서울CC와 경기 광주의 이스트밸리CC가 대표적이다. 남서울CC는 주말 26만원·주중 22만원, 이스트밸리CC는 주중 20만원·주말 26만원이다.

국내 골프장 중 그린피가 가장 비싼 곳은 경남 남해의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이라는 퍼블릭 골프장이다. 주말 그린피가 무려 37만원으로 코스나 주변 경관이 국내 최고 수준인 데다 팀 간격을 10분으로 여유롭게 운영, 회원제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골프장 측의 설명이다.

강원 홍천의 27홀 퍼블릭 골프장 블루마운틴도 주말 그린피가 27만원으로 고가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하늘코스과 오션코스도 주말 그린피가 최고 25만9000원이다.

이처럼 골프 대중화 속에서도 고가 정책을 이어가는 골프장이 많다. 이에 대해 대중화 역력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린피 정책은 골프장의 권한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오상민 기자 golf5@

2014 골프, 레저를 하나로...

# 잔디로 다기능 레저화!

영국수입 피타드 천연가죽 사용, 해외 골프투어 및 골프 연습, 여행 등 일상에서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2014년 다기능 레저화입니다.

●장시간 걷거나 서서 활동하시는 분,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프신 분, 여행 및 주말 나들이 등 외출이 많으신 분께 추천합니다

2014  
NEW



잔디로 다기능 레저화 JM2411  
색상: 검정색, 진밤색 판매가: ₩ 168,000원

## 2014 브레이크 등산화 3월 출시!

교체형 스파이크가 형성된 2014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출시

멀티 스파이크 아웃솔은 산행 스타일에 따라 전면부에 형성된 스파이크 4개를 교체하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미끄러움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렌치 + 스파이크 증정)

[브레이크 등산화 출시기념 사은 이벤트: 잔디로닷컴(www.jandiro.com)에서 브레이크 등산화 할인쿠폰을 신청하세요]



[3월출시]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SM2440



[3월출시]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SM2442



[1월출시] 산야 트레일 런닝화 SM2430



2014  
NEW

# 700만 관중, 다시 野好~

29일부터 프로야구 정규시즌... '700만 고지' 다시 오를지 관심

간판급 해외진출 불안 요소... 외인 타자 재등장 흥행 기대감도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가 8일 시범경기로 막을 올렸다. 정규시즌은 오는 29일부터 9월 14일 까지 열린다. 팀당 128경기를 치르며 총 576경기가 열린다.

프로야구는 지난 2012년 715만6157명의 관중을 동원해 처음으로 700만 관중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2013년 644만1945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관중 수가 감소했다. 자연스럽게 700만 관중 돌파 여부는 올시즌 프로야구의 관심사 중 하나다. 700만 돌파를 위해 우선 2014 브라질월드컵(6월13일~7월14일)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역대 관중 현황을 보면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는 관중 감소세가 뚜렷했다. 2002년(239만4570명)과 2006년(304만254명)에는 관중 수가 전년 대비 각각 20%, 10.3% 감소했다.

국내 간판급 스타들의 미국행도 불안 요소다.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은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로, 삼성 라이온즈의 오승환은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로 이적했다. 팬들의 시선이 해외 리그로 향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올 시즌 MLB의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과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의 활약 여부도 무시할 수 없다. KBO는 지난해 700만 관중 동원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꼽았다. 박찬호의 활약이 돋보인 1998년에는 전년 대비 126만3847명의 관중이 줄어 무려 32.4%의 감소세를 보였다.

물론 관객 동원에 긍정적 요인도 있다. 8일 광주시에 정식 개장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다. 새 구장은 2만2244명을 수용할 수 있다. 기존 광주무등경기장(1만3000석)의 1.7배 규모다. 신명철 스포츠평론가는 "KIA의 성적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관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더불어 원정경기에서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인 타자의 재등장도 호재다. 루크 스킷(SK 와이번스), 호르헤 칸투(두산 베어스)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타격전 위주의 호쾌한 경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많은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

신명철 평론가는 "리그로서 프로야구는 이미 2010년 자리 잡았다"고 전제하며 "자생력을 가진 프로야구가 월드컵이나 국외 리그에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해외 리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야구 자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국내 프로야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셋별 기자 byul0104@

잔디로 대리점 모집 02)6909-8851 / 골프 & 등산 의류, 용품 매장을 전개할 대리점주를 모집합니다

www.jandiro.com | 제품문의: 02)6909-8834 | 본 점: 02)2608-7400  
●전주점: 063)276-5000 ●광주점: 062)351-9000 ●A/S센터: 02)542-2000

JANDIRO  
SPORTS



# ‘진짜 금융맨’은 어떻게 단련 되었는가

## Cover Story

### 금융권 신입사원 연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후한 복지 혜택으로 금융권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이런 까닭에 은행권 입사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들다고 말한다. 합격률이 100:1이 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하반기 100명을 채용한 하나은행의 공채에 무려 1만3400명이 몰렸다. 경쟁률이 134대 1에 달했다. 다른 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심지어 은행 대학생 홍보대사와 기자단의 경쟁률도 최고 30대 1을 넘는다.

100:1 합격은 시작일뿐 고강도 지옥연수 통과해야 진짜 입사  
단체기합·철야행군 등은 기본 주인의식·애사심·동기애 키워  
엄격한 조직문화로 전문성·도덕성 함양 금융사고 예방 교육

이처럼 힘들게 입사하지만 신입사원들은 강도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마쳐야 비로소 정식 발령을 받을 수 있다. 통상 5주에서 10주로 구성된 신입직원 연수프로그램은 금융업무를 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을 강도 높게 교육받게 된다.

또 일반기업의 신입직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단체기합, 철야행군, 극기훈련 등은 기본소양 교육 중의 하나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군대를 경험하고 싶다면 은행에 취직해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신한은행 신입행원 연수 과정을 담은 영상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신입행원들이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린 채 기마자세로 서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주인정신’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땀을 뻘뻘 흘리는 장면이었다. 울음을 터뜨리고 구토를 하는 일부 직원의 모습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과거 신한은행에서 홍보용으로 직접 제작해 올린 것의 일부분이다.

신한은행이 신입사원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인의식’은 한 사람만 일탈을 해도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권에서 중요시하는 교육 중 하나다. 최근 각종 금융사고에서 한발 비껴 있는 신한은행은 신한만의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입사 10년차인 신한은행 한 직원은 “모욕적인 상황이 아니다. 아침 구보와 천리행군에 버금가는 고강도 체력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진짜 ‘신한맨’으로 태어나는 기분이 든다”며 자신있게 말한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은 통상 11월 중순부터 지점에 배치되는 2월 초까지 지주사 공동 연수 2주를 시작으로 은행 자체 연수 9주를 합해 총 11주간 학습 훈련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으로 강도 높기로 유명하다.

이른바 ‘병아리반’으로 불리는 연수 프로그램을 가동하

고 있는 기업은행 역시 뽕뽕하기로 유명하다. 신입 행원들은 입사하자마자 연수에 돌입해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재연수를 실시한다.

외환은행은 신입행원 연수의 마지막을 50km 야간행군으로 마무리한다. 매년 외환은행 신입행원들은 무박 2일 동안 잠실운동장, 반포대교, 명동을 거쳐 외환은행 본점까지 약 50km 야간행군을 실시한다. 다른 은행들 역시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은행들이 강도 높은 신입사원 연수를 하는 이유는 뭘까?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은행만이 가진 조직문화가 이를 대변한다. 무엇보다 최근 각종 사건·사고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금융권이다. 신입행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어느 업종보다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또한 주인의식과 애사심, 동기애를 키워 어렵게 키운 인재가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은행 수익이 악화되고 있어 인력 개발 방향도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텔러, 대출, 외환 등 자신의 분야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어느 분야를 맡겨도 처리할 수 있는 복합금융인 육성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은행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누린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환경 변화에 신입직원 교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보험권과 카드업계의 신입직원 교육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신입사원 자기역량 강화와 함께 현장 영업 경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단순한 나열식 스펙인재보다는 현장 중심의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도에서다.

안철우 기자 acw@  
그래픽 신미영 기자 win8226@





# 직급별 직무과정 의무이수... 자격증 취득 '주경야독'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10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행원 연수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은행, 교육 어떻게

은행들은 새내기 직원들을 향후 회사를 이끌어 갈 인재로 키우기 위해 신입행원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신입사원들의 직무능력부터 올바른 인성까지 전 부분에 걸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관문을 뚫고 입사한 만큼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및 실무는 물론 본인의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銀, 500개 직무 선별 학습  
스터디그룹 활동 시험 보기도

우리銀, 연수 프로그램 300개  
마케팅·리더십 등 사이버 교육

하나銀, 애티튜드 교육에 초점  
기업銀, CEO와 대화 진행도

국민은행의 신입행원 교육은 직무 전문가 육성, 조직까지 공유 강화, 글로벌인재 육성, 우수인재 양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체계적·상시적 교육 프로그램이 국민은행 직원 교육의 특징이다.

국민은행은 전직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급별·경력개발계획별 연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책임자급에서 일반 직원까지 모든 직급의 직원들은 직급별 필수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직원들은 영업점 및 본부 직무별로 구성된 500여개의 직무선택과정 중 본인의 직무 수행을 위한 연수과정을 선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핵심 직무에 대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직무인증제도도 실시 중이다.

또한 희망 직원들은 자율학습 후 매주 또는 격주로 시험을 보는 상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점 주요 직무인 기업금융 및 외환 분야를 담당하고 있거나 향후 담당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업무 지식을 공유하고 업무 사례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스터디그룹도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은행은 직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신입행원 연수를 진행 중이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신입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최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직무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입행원 연수는 통상 5-6주간 진행된다.

이 같은 직무능력 향상 위주의 연수 방식은 직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실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순우 행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한 달 이상 은행의 주요 업무를 경험한 신입행원들은 실무에 배치됐을 때 낯설음 없이 보다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다.

이 행장은 보통 1-2회차량 연수 장소를 방문해 배식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직무 연수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 차원에서다.

입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서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연수 프로그램은 총 300여개 과정(2014년 기준)으로 전직원은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간 의무 교육 시간은 소속장 20시간, 관리자급 40시간, 책임자급·행원급 60시간이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의무과정은 20-40시간 필수로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전문가 교육 수강도 가능하다. 또한 직무 연수 외에 마케팅 스킬과 리더십 관련 외부 사이버 연수도 수강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애티튜드(Attitude)에 초점을 맞춘 신

입행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은행은 총 8주간의 신입행원 연수 프로그램 중 60-70시간은 애티튜드 교육을, 180시간은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연수기간 중 신입직원들은 고객서비스(CS), 조직생활의 이해, 야외활동 훈련, 뮤지컬 관람 등을 통해 문화은행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한다. 또한 팀빌딩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강화하고 동료애를 고취한다.

은행인으로서의 기본기를 갖추기 위한 지식 습득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수산·여산·외환 관련 이론과 고객 상담을 위한 상품의 이해, 톨 플레이, 전산실습 등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운다.

신입행원 초기 전라화 및 조직 적응을 위해 1년간 신입직원 집중 케어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신입행원 연수인 스타트 업(8주), 현업 배치 1개월 후 벚바리 결연식 및 벚바리 활동(3개월), 3개월 시점 스피드 업(3박4일), 리텐션 행사, 통산 연수(재무제표, 기업회계 등), 자격증 취득 지원, 1년 시점 행원 로드맵 초급과정, 글로벌 어학점수 취득 등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직원이 은행생활과 직무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실무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지식 습득뿐 아니라 실무 능력 배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신입행원 연수는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를 통해 본인이 속한 회사의 경영철학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0주간 이뤄지는 합숙 연수기간 동안 신입직원들은 CEO와의 대화에서 행장의 경영철학과 은행의 경영이념 및 목표를 체화한다. 기업은행의 일원이 된 만큼은 행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지 몸소 느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성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과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진행된다. 수산·여산·외환 등 직무기초, 전산·장구 RP 실습, 영업실적 교육 등의 직무교육과 함께 영업점 현장학습 등을 통해 신입직원들이 은행의 기본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김지영 기자 gutyj@

www.hauri.co.kr

**당신의 스마트폰 안전은 바이로봇이 책임집니다!**

스마트폰의 보안 업그레이드

바이로봇 Mobile for Android

바이로봇 모바일 1.0 은 안드로이드(android) OS지원 토털 보안 솔루션으로  
안전성 검사, 스팸차단, 네트워크 감시 및 도난방지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바일용 차세대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신제품 출시

**도난방지 기능**

- 폰 분실이나 도난시 원격 잠금/삭제 가능
- SIM 카드 변경시 잠금 가능
- 파일 및 디렉터리 단위 파일암호화
- SDCard 영역에 대한 파일브라우저 기능
- 프로그램 실행시 인증 가능

**안전성검사 기능**

-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 코드 차단
- 행위기반 위험 애플리케이션 차단 및 취약환경 점검
- 업데이트 기능

**네트워크감시 기능**

- Wi-Fi의 AP(access Point) 접근제어
- 3G망의 데이터 통신량 감시 및 차단

**스팸차단 기능**

- SMS에 대한 번호 및 텍스트 기반 차단
- white list/black list 를 이용한 전화 발신/수신 차단

## 신입사원 이탈 막아라

# ‘멘토링’ 통해 선후배간에 정 쌓고 입행식 부모님 초대 소속감 키워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렵게 ‘○○은행’에 입사했다. 좁은 취업문을 뚫고 ‘신의 직장’에 취업했다는 주변의 부러움이 쏟아졌지만 막상 입사하고 나니 고민이 많았다. 생각보다 야근이 잦았고 영업 압박도 컸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항상 고객에게 미소로 일관해야 하는 일도 힘들었다. 결국 A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퇴사했다.

## 멘토·멘티 정해 업무지식 전수

## 행군 떠나 유대관계도 만들어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적응시키고 인재로 육성하는 채용 이후 인사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끈끈한 조직문화는 이직률을 낮추고 탄탄한 팀워크는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멘토링, 최고경영자(CEO)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내기들의 조기적응을 돕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멘토링이다. 멘토링이란 회사나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멘토)이 조직 구성원(멘티)을 11로 전담 지도·코치·조언함으로써 그들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신입행원이 지점에 배치되면 실정에 맞게 멘토 적임직원을 배치한다. 멘토는 1년간 멘티에게 업무지식을 전수하고 신입행원들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에게는 조직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우리언니’, ‘벚바리제도’ 등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새

내기들의 조기 적응을 돕고 있다.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행군을 떠나는 곳도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행원 84명이 경기도 신갈에서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까지 50km 걷는 야간행군을 실시했다. 윤용모 은행장을 비롯한 19명의 전 임원과 노조간부들은 반포대교 남단-을지로 본점에 이르는 약 8km를 동행했다. 이런 새벽부터 시작된 폭우로 한 걸음, 한 걸음 때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응원의 말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며 전원 완주에 성공했다.

경남은행 역시 지난해 하반기 입사한 신입행원을 대상으로 무박 2일 행군을 실시했다. 50km 구간을 체험학습·게임트레이닝·신념화 교육 등의 미션을 수행하며 12시간여 만에 완주했다.

입행식에 부모님을 초대하는 부산은행도 이색적이다. 신입행원들을 단순 조직원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임직원들 간 활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장(場)을 마련하는 하나은행의 노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하나은행의 ‘하나 토크’는 은행장과 직원들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은행장이 단순 CEO가 아닌 동료, 선배로서 경험과 철학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보험사답게’... 생명 소중함·현장업무 동시에 익히기

## 보험·카드업계 교육은

보험사와 카드사의 신입사원 교육은 자기 역량 강화와 현장영업 경험을 동시에 진행한다. 단순한 나열식 스펙 인재보다는 현장 중심의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도에서다. 특히 금융권 특성상 현장에서 많은 자금이 움직인다 보니, 직원들의 인성교육을 어느 곳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소양교육에서부터 한계 극복 프로그램까지 길게는 반년간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참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삼성생명 신입사원들은 그룹 교육 이후 약 3주간의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에서 신입사원들은 회사와 각 부문별 조직에 대한 이해, 생명보험업의 개념, 회사 대표상품, 기본적 판매 단계에 대해 배운다. 특히 삼성생명은 올해부터 신입사원 교육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도 포함시켰다. 보험업에 걸맞게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겠다는 뜻이다.

교보생명도 입사 후 6개월 동안 각종 소양교육, 업무 역량 개발, New Change Leader 프로그램, 영업 현장 체험, H-PDS프로그램, 현업 프로젝트 수행, 해외 법인에 대한 교육 등으로 구성된 H-CTP 과정을 수료한다. 이 과정은 신입사원의 전문성, 창의성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삼성화재는 신입사원 교육을 콜센터 방향으로 시작한다. 고객이 최우선임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신입사원들은 고객체험 후기를 바탕으로 공트를 하기도 한다. 특히 삼성화재는 글로벌 손보사로서 도약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신입사원의 입문과정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신입사원 첫 관문은 7주간의 합숙 및 집합교육이다. 이후 각 보상서비스센터와 지점에서 현장 실습 교육을 한다.

동부화재의 신입사원 교육은 부서 적응과 조기 전

력화를 위해 직무교육 위주로 구성돼 있다. 부문별 직무 기초지식 학습을 통해 업무 기초 능력을 함양한다는 것이 동부화재의 설명이다.

LIG손해보험 신입사원 연수교육명은 ‘LIG Running STAR’다. 경기도 수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LIG손해보험의 연수시설 ‘LIG인재니움’에서 4-6주간에 걸쳐 지리산·한라산 등을 찾아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도전과 끈기 그리고 동기예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내는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카드사는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 곳이 많지 않지만 일부 채용한 카드사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의 인재경영은 신입사원 채용에서부터 차별화된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은 기존에 해 오던 일반전형의 채용 방식 외에 새로운 채용 제도인 ‘스페셜 트랙’을 도입했다. 학점이나 어학성적, 공모전 수상 경력, 인턴 경험과 같은 이른바 스펙이 뛰어나지 않아도 자신만의 색깔과 특기를 가진 지원자를 뽑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신입사원들은 ‘잡 셀링(Job Selling)’과 ‘잡 페어(Job Fair)’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약 2주 동안 진행되는 잡 셀링은 사내 각 부서 임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자기 조직의 역할과 비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입사원은 어떤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신은 그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펼칠 수 있는지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잡 셀링 기간이 끝나면 사내 채용 박람회 형태의 잡 페어가 진행된다. 신입사원들은 관심 부스를 찾아가 해당 부서가 원하는 직무 능력을 확인하는 한편 본인의 강점과 특징을 어필하는 시간을 갖는다.

비씨카드는 신입사원의 교육 몰입 및 팀워크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회사 주요 업무에 대해 각 분야별로 부서장들이 직접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콜센터 고객 응대를 필수과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후 각 부서 배치 후 3개월간의 OJT 기간 동안 조직생활 전반에 걸친 멘토링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이재현·강구귀 기자 nfs0118@

삼성생명 올해부터 심폐소생술  
삼성화재·현대해상·비씨카드는  
콜센터 실습 ‘고객 최우선주의’

현대카드·현대캐피탈 인재경영  
‘잡 셀링’ 조직 역할·비전 이해  
‘잡 페어’ 적성에 맞는 직무선택



보험·카드사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내용

삼성생명 기본 개념 및 심폐소생술	삼성화재 콜센터 방문·영어 진행	LIG손보 LIG Running STAR(등산 등)
교보생명 본사 및 현장 교육	현대해상 보상서비스센터 및 지점에서 실습	현대카드 잡셀링·잡페어 프로그램 차별화
한화생명 H-CTP 과정 (현업 프로젝트 수행 등)	동부화재 직무 기초 지식 학습	비씨카드 참여형 프로그램과 멘토링 교육

## 금융사 교육담당자가 말하는 트렌드 변화

## 이론보다 ‘실무’, 정정보다 ‘개성’

KB국민銀 실전적 직무 수행 강조  
동양생명은 창의성·팀워크 강화 등  
과거 조직 충성 위주 획일화 벗어나

금융사 신입직원 교육담당자들은 최근 신입직원 교육에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 고취와 주입식 지식 전달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면 최근에는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전 역량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또 개인의 창의성 존중도 금융권 신입직원 교육현장의 변화된 모습으로 꼽혔다.

우리은행 인재개발부 신입행원 교육담당자는 “과거에는 조직 충성 강화를 위한 교육 비중이 높았고, 조직에 순응하는 직원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영업점 배치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광재 KB국민은행 인재개발부 차장은 “최근 신입행원들은 영업점 첫 출근과 동시에 고객 상담 업무에 바로 투입된다”며 “신입행원에게 장기간의 업무 적응 기간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입행원 교육 방식 역시 영업점 현장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실전적 직무 수행 역량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다양한 고객상담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필수실무과제 100선’을 숙지하게 한 후 영업점 창구와 동일한 환경에서 고객 응대 실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신입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 차장은 전했다.

신입직원 교육에서 창의성, 협동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꼽혔다.

동양생명 HRD파트 교육담당자는 “과거 신입행원 교육은 윤리적 자세와 금융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 위주로 진행됐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창의적 게임이나 토의를 통한 미션수행 등 창의성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교육 방식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사는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함에 따라 신입직원의 자율과 개성이 존중되도록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카드 커리어개발팀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재상을 정하고 그 틀에 신입직원을 맞췄다면 현재는 핵심가치만 철저하게 공유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직원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어 따로 인재상을 정해 채용하거나 교육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과거와 다름없이 고객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신입직원 교육에서부터 강조했다. 불완전판매가 금융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과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홍경택 하나은행 인재개발부 팀장은 “신입직원에게 고객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에 관해 질문하도록 하는 등 고객 눈높이를 맞추는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팀장은 이어 “고객과의 분쟁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직원은 상품 관련 위험에 대해 설명했다가 말한다. 하지만 고객은 듣는 적이 없다고 하는 게 다반사인데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응대한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하나은행에서 시간·사고가 거의 없는 것도 고객 눈높이를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특수성을 신입직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홍성창 농협은행 인재개발단 차장은 “자조와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 등 협동조합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스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다른 금융사들과 대조된다”고 전했다.

이진영·신태현 기자 mint@

HYUNDAI  
MnSOFT

softman  
soft, beyond smart

말하라!  
그 길이 열릴 것이다

New

(현대엠엔소프트 품질테스트 결과)  
국내 최다 200만개 단어인식, 국내 최고 음성인식률!  
소프트맨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사용설명서가 필요없을 만큼 편리한 내비게이션

설명서가 필요없는 쉬운 사용성  
소프트맨 S571

편의하고 안전한 음성인식 경로 탐색  
소프트맨 S571V

8인치 대형 화면의 우수한 시인성  
소프트맨 S581V

매일 전용 9인치 최고급 프리미엄 품질  
소프트맨 S591V

http://www.softman.co.kr 본 제품의 수익금 중 일부는 무료 개안 수술 자선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고객센터 1577-4729 | 현대엠엔소프트㈜ 창작점 모집 안내 : 02-3483-8471, 8473

업계 최초 연중무휴 콜 센터 운영 & 전국 약 50여 개 서비스 지점점 구축







# 저축은행 ‘서민금융’ 재도약, 틈새시장에 답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총 27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이후 2년여 동안 구조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신뢰도가 추락한 저축은행 업계가 느끼는 체감도 아직 영하권이다. 업계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수익구조도 악화돼 사실상 존폐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량고객은 시중은행에 빼앗기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5등급 이하 신용대출 수요는 대부분에게 다 빼앗겨 더 이상 먹거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축은행 업계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커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관계형 금융’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장점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위험 자산운용에 치중해 서민·중소기업 등 고유의 영업기반을 상실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위기 원인은 ‘외형 부풀리기’ = 저축은행 부실을 근본적으로 초래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다. 높은 비용으로 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자금 운용의 적절한 수익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저축은행은 외환 위기 이후 안정된 자금 조달 수단이 부족해 고금리 수신 정책으로 외형을 부풀려왔다.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예금이 몰리면서 저축은행 자산 규모가 급속히 불어났다.

저축은행이 제1금융권보다 높은 수신 금리를 제공하면서도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으로 예금자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문제는 관리 능력에 비해 외형 자산이 너무 빨리 늘어난 점이다. 자금 운용 측면에서 당시 호황을 보인 부동산 관련 고위험 기업 대출에 집중하게 되면서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인 서민 신용대출 규모는 줄어들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출을 집중시킨 상황에서 금융환경이 불안해지자 저축은행은 경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을 이용하기 관련한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담보대출과 같이 지역에 밀착해 저축은행이 잘할 수 있는 시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자산을 다 운용하려고 욕심을 부리다보니 때일지 안 때일지 모르는, 부실 위험이 높은 곳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당치를 무조건 키우기보다 자산 규모를 적절하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 먼저 = 최근 서민들의 생계형·무담보 신용대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금리 수준의 신용대출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의 금융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높아져 정부가 다양한 서민우대금융 제도를 통해 여신시장 공백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은 본질적으로 신용 위험도가 높아 신용평가시스템과 위험관리 역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한계를 지닌다. 저축은행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및 사후 모니터링이 부실한 곳이 대부분이고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담당부서 운영도 취약하다.

업계는 강화된 건전성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 소액대출을 꺼리게 되고 과학적인 리스크 관리 기법이 없어 연체율이 높은 서민 소액대출을 기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 서민에 대한 안정적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와 사후적인 신용위험 관리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성과가 우수한 저축은행들은 임직원인 인근 지역내 고객 및 담보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 파악해 여신 심사분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여신 부실화에 조기 대응하는 등 자발적으로 지역밀착형 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저축은행이 먹고 살 길은 자산 2000억원 안팎으로 본점과 지점 하나 정도 운영하면서 재래시장 소상공인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출임무를 하는 것”이라면서 “은행도 카드사도 근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수요가 있으므로 건실하게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 한국금융 DNA를 바꾸자 10活10廢

금융 소비자 보호	一	불완전판매
사회공헌 활동	二	부당한 영업 관행
차별성없는 인사	三	낙하산 인사
건전·수익성 제고	四	규제 일변도 정책
금융시스템 선진화	五	잇단 금융사고
차별화된 은행상품	六	대출영업 쓸림 현상
보험사 새 먹거리	七	과도한 행정 지도
카드사 업무 다변화	八	제살 깎아먹기 경쟁
저축은행 역할찾기	九	부실자산 눈덩이
상호금융 서민대출	十	자본확충 무리수



과거 저축은행의 부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 고수익·고위험 여신 관행에 크게 기인했다. 하지만 지금도 부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건전성 기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도 감독기관과 업계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으로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부실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건전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자산’ 해소 속제 = 업계의 자구노력에 따라 건전성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6조3000억원으로 전체 여신 29조1000억원의 21.8%에 달한다. 이는 다른 업권 평균인 2.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신용협동조합(5.2%)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2.5%)보다도 많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말 부실채권 비율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이 감축 목표를 설정해 반년마다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 부실채권 비율이 20%를 넘는 저축은행은 매년 반기마다 5%포인트 이상씩 감축해야 하며 20% 이하인 저축은행은 최소한 10%까지 감축하도록 했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전 수준에 해당한다.

PF대출 부실채권은 오는 2016년 12월 말까지 의무 여신 비율의 위반 여부, PF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자체 감축 목표 비율을 설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이 주로 부실채권(NPL) 투자나 대부업체 대출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NPL 관련 투자액은 9151억원으로 전년(6924억원) 대비 51.9% 증가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조5431억원으로 저축은행 총 여신(29조원)의 5%가 넘었고, 일부 저축은행은 10%를 초과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은 총 여신 대비 5%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내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급박하는 수익성, 경쟁력 회복 필요 = 구조조정 작업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업계 관행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은 체질 개선을 위해 갈 길이 멀다.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부동산 PF 매각 등에 따른 손실처리 비용이 급증하면서 수익성 역시 급박하고 있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손실폭이 축소되고는 있지만 적자 역시 여전하다. 2013회계연도 1분기(7-9월) 중 저축은행 업권(9개사)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112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49억원 줄어든 것이다. 당기순손실 발생 주요 원인은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여신의 대손 비용 발생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재도 많은 저축은행이 PF대출 충당금 적립 등 부실처리를 진행하고 있어 신규 수익원 발굴에도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91개 저축은행 중 적자 저축은행 수는 37개사였다.

저축은행 업계가 확실적인 고금리 적용 대출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도에 따른 중금리 개인신용 대출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지역 중심의 관계형 영업 강화를 통해 장기 안정적 여신거래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체 경쟁력과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신용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계 공동의 표준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시장에서 규모가 미미한 20%대 중금리 상품으로 서민금융의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 주요 고객층이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되면 고객층도 전체 고객의 13.9%에서 25.3%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 평범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 공부에 늦은 때는 없다. 지금 시작하라



### ‘부자의 그릇’을 만들어라 그릇이 커지면 돈은 제 발로 들어온다

평생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한 당신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돈이란 월급받아 알뜰하게 저축해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대학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따르는 부자에게 배워라. 그러나 부자가 가르쳐주지 않거든 이 책에서 배워라.

- 맨손으로 1000억 번 부자들의 공통점을 분석 통찰한 책 \_머니투데이
-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돈과 부자’에 대해 공부했는지가 결정한다 \_한국경제

지금 시작하는 부자 공부 권성희 지음 | 324쪽 | 값 15,000원

### 1% 부자들의 탈무드 실천법



- 부자의 줄에 서라
- 이웃에게 밥을 사라
- 지혜를 먼저 구하라
- 돈 되는 정보를 누설하지 마라
- 이익의 절반을 가지려면 사업을 시작하라
- 신용이 최고의 화폐다

유대인의 비즈니스는 침대에서 시작된다 테시아 유로 지음 · 한양심 옮김 | 272쪽 | 값 13,500원



# 직원들이 초·중·고 직접 찾아 경제교육 진행 ‘지식나눔’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 직원·대학생 예비무역인 양성 무상교육  
농촌지역 결연 맺어 일손 돕고 특산품도 구매  
최대 10만달러 수출대금 보상 中企단체보험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과 공생경영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의 사회공헌 슬로건인 '기업에겐 수출을, 이웃에겐 따뜻한 응어에서처럼' 고객인 기업과 이웃 모두가 나눔과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배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무보는 일회성 사회공헌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가기 위해 2월부터 사회공헌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직원 스스로 원하는 봉사활동을 선택해서 수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보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사회와 의 공생발전 △업무특성에 맞는 지식나눔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 △사회적 신뢰구축 등으로 세분화돼 추진 중이다.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사회공헌 선도 = 무보는 도농간의 교류를 위해 농촌지역과 결연을 맺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충남 아산 의식리, 2012년부터는 경기 파주시 객현리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직원들이 농촌지역에 가서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다.

매년 종삼작업에 무보 직원들이 참여해오고 있으며, 일손돕기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경작한 수확물을 수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해 작지만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희망을 주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임직원들이 인산과 장단공 등 지역 특산품을 직접 구매토록 지

원하고 있다. 본사가 위치한 종로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다. 전통적인 문화재가 많은 종로구의 지역특성을 감안, 인사동 북촌 한경정비, 선관문 문묘 정비 활동 등 지역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종로구의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쪽방촌 화재점검, 사람의 연탄 배달활동을 매년 겨울 정기적으로 실시, 지역주민들과 공존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변 지역에 소재한 라과엘의 집, 데레사의 집 등 사회적 소외를 받는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들에 자원봉사 활동을 지난 8년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지식나눔 사업은 무보만의 자랑이다. 세부적으로는 2006년 6월 JA Korea와 협약을 체결한 뒤 공사 직원들이 초·중·고를 직접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경제지식을 교육하는 사업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무보는 무역보험 아카데미를 통해 연수비용과 연수 기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직원, 대학생 등 예비무역인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제도에 대한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무보가 후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하는 등 개인시간을 쪼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서민안정 위한 중소기업 박차 = 1992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한국의 무역보험제도를 전담하고 있는 무보에게 기업들의 수출촉진 지원은 빼놓을 수 없는 화두다. 또한 무보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야말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보의 대표적인 지원책은 '중소 Plus+ 단체보험'이다. 단체보험은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받지 않아 영세 수출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대 미화 10만 달러까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상한다. 수출 유관기관이나 지자체와 같은 단체가 개별 수출기업을 대신해 무역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다.

무보는 이에 대해 지난해 31개의 기관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등 현재 총 5353개의 중소·중견기업이 6조원의 무역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단계별로 구분해 차별화된 맞춤형 무역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해당 단계에서 착실히 성장한 후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매출 및 수출결합 등이 부족하여 금융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여타 우량기업 지원제도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최장 18년간 △최대 100억원 범위 내 보증비용 100%인 수출자금 보증서 발급 △수출대금 미회수 보상한도 최대 3배 우대 △보험(보증)료 최대 70% 할인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30건 무료 제공 등 무역보험 특별 우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수출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준비'→'관료개척'→'수출이행'→'채권관리'까지 수출 전 단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무보는 현재까지 총 214개 기업을 글로벌 성장사다리 회원사로 선정했으며 작년 한해 동안 회원사에게 3조2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했다. 또한 이후에도 매년 30~40개의 신규 회원사를 선정해 2017년까지 총 300개사의 글로벌 수출 감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무보는 영세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수출지원을 위한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보고서 무료 제공 등 무역보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크게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 “무역보험 통한 양질의 일자리, 진정한 사회 기여”



사회공헌 정보시스템 구축  
직원들이 선택 자율적 참여

“현장경영”은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따라 다니는 수식어가 되었다. 이같은 현장 중심 경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무역보험공사의 정체성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경영철학의 핵심이다.

사회공헌 활동 역시 예외가 아니다. 김 사장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살피고 찾아가는 ‘발로 뛰는 진정한 나눔과 상생의 사회공헌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 최근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젊은 직원들이 서로 자신이 결례질을 하겠다면서 기회를 양보하지 않더라는 미담을 전하면서 “봉사 활동으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함으로써 돌려받는 행복이 더 크다”며 직원들에게 더 많은 가치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봉사 활동의 경우 청소년 보육시설 지원과 인사동-북촌간 환경정비 및 선관문 문묘가꾸기 등 기존 봉사활동 외 노동자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이해와 화합을 다지는 다양한 행사 개최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김 사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란 직원들의 귀결이다.

또한 김 사장은 취임 이후 사회공헌활동 관리 프로그램을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 직원 스스로 원하는 봉사활동을 쉽게 선택해서 수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밖에 김 사장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무보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기여라며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꾸준히 확장해오고 있다.

때문에 김 사장의 취임 이후 현장중심 경영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 지원 혜택을 받게 되고 글로벌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직원들에게는 나눔의 기쁨을 이웃에게는 따뜻함을 전파하는 무보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앞으로 무역보험공사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어디에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워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www.izumikorea.co.kr

IZUMI  
IZUMI BEAUTY PRODUCTS

55년 일본 장인정신이 만든 이즈미 전기면도기가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고의 제품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1,000세트 한정판매!**

**전기면도기 스탠더드 FR-300 ₩99,000**

**제품특징** • 초정밀 애칭 가공 3중 면도날(made in Japan) 사용 • 방수기능으로 편리하고 위생적 물세척 사용 • 독립 교호구동으로 자진동 실현 • 천연고무 손잡이 채용으로 사용시 부담 없고 안정적 그림자 • 충전 진행상태, 완충전 표시 LED 램프 • 콧수염이나 구렛나루 면내기 위한 트리머 장착 • 편리한 보관을 위한 여행용 파우치

**제품사양** • 왕복식 방수 면도기 • 충전용 배터리 A/C • AC 100~240 • 50/60Hz • 60분 충전 /40분 사용(전기/충전 겸용방식) • 중량 185g • 구성품: 본체/파우치/브러시/ACアダプ터/사용설명서/배터리(N-MH-전지포장타입) 2개

**전기면도기 프리미엄 FR-500 ₩129,000**

**제품특징** • 전월 스위치의 오작동 방지 Lock버튼 부착 • 독립 플러팅 3중날 시스템(센터 트리머 포함) • 방수기능으로 편리하고 위생적 물세척 사용 • 독립 교호구동으로 자진동 실현 • 천연고무 손잡이 채용으로 사용시 부담 없고 안정적 그림자 • 충전 진행상태, 완충전 표시 5단계 LED 램프 • 콧수염이나 구렛나루 면내기 위한 트리머 장착 • 편리한 보관을 위한 여행용 파우치

**제품사양** • 왕복식 방수 면도기 • 충전용 배터리 A/C • AC 100~240 • 50/60Hz • 60분 충전 /40분 사용(전기/충전 겸용방식) • 중량 186g • 구성품: 본체/파우치/브러시/ACアダプ터/사용설명서/배터리(N-MH-전지포장타입) 2개

**다기능 코털 면도기 NB-12 (전기면도기 함께 구매시) ₩17,000**

**제품특징** • 생활 방수 기능으로 물 세척 가능 • 잡기 편한 물결형 거울 • 콤팩트 사이즈로 출장 등 외출시 최적 • 면도날 앞뒤로 면도날 보호 • 청소하기 편리한 솔 장착 • 약 6500rpm의 강력한 회전력 및 부드러운 작동 • 정교한 카팅을 구현하는 일체 cutter •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는 2중 안전설계와 망구조

**제품사양** • 간접지 사용식 • 15V AA 사이즈 • 130.5x28x31.8mm • 중량 52g • 작동시간 약 1개월(1일 1회 3분 사용)

**24시간 무료 주문전화 080-769-9000**  
온라인주문 [www.myseason.co.kr](http://www.myseason.co.kr) A/S센터 : 031-791-3983  
(주)오래들 | 대표: 최병철 |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73-1 | info@myseason.co.kr | 서울 중구-1139호

**男子**

당당한 파워 섬세한 감각 세계적 명성

**자존심을 세우다!**

전기면도기의 새로운 중심, 이즈미 FR-300

방수기능 무빙헤드 맴업 트리머 충전표시

■전기면도기 스탠더드(FR-300) : ₩33,000원×카드 3개월 무이자  
■전기면도기 프리미엄(FR-500) : ₩43,000원×카드 3개월 무이자



# 여름휴가 대신 집짓기 자원봉사 무주택 27세대 '희망의 보금자리'

citibank



하영구 씨티은행장과 임직원들은 매년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서 진행된 희망의 집짓기 공사현장 모습.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45개 대학 100여명의 대학생들이 지난 1월 서울 동대문구와 노원구에 거주하는 불우이웃에 연탄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속성·독창성·직원들의 참여' 이 세 가치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씨티 가족 희망의 집짓기 프로그램이나 국내 유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은 지속성과 독창성을 모두 담고 있는 대표적 활동으로 꼽힌다. 여기에 행정 및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의 질적 성장도 이뤘다는 평가다. 씨티은행은 '다른 생각, 다른 미래'라는 자사 비전처럼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만 아직 지원되지 않는 분야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전 임직원 참여 해비타트 봉사 = 씨티은행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꼽으라면 단연 '해비타트' 자원봉시다.

씨티은행은 지난 1998년 한국 기업 최초로 한국해비타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후 16년간 총 1100여명의 임직원 자원봉사를 통해 광양·삼척·대구·군산·태백·춘천·대전·인제 등에 총 27세대의 희망의 집을 지었다.

그동안 씨티재단(Citi Foundation)과 씨티은행이 건축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21억8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씨티재단 후원금 21만4000달러를 비롯해 씨티은행 후원금 1억원 등 총 3억4400만원 가량을 희망의 집짓기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씨티은행은 땀 흘리는 봉사활동으로 의미 있는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취지에서 휴가철인 매년 7-8월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집짓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모두 자신의 개인 휴가를 사용해 참여하고 있다. 최대 참여자인 하

영구 행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의 호응과 참여 속에 집짓기 봉사활동은 씨티은행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도 하영구 행장을 포함한 10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들이 춘천지역 사랑의 집짓기 활동에 참여해 2세대의 집을 지었다.

씨티은행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집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홈파트너 경제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무주택자(예비 홈파트너)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소비와 지출을 관리하고 내집 마련의 첫걸음인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홈파트너 경제교육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합리적 가정경제를 위한 기본이론 교육부터 1대1 맞춤식 재무설계까지 건강한 가정경제 운영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만 천안·아산·춘천·군산·양평 지역에 거주하는 500여명의 홈파트너가 이 과정을 수료했다.

◇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눈길 =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난 2006년 경희대와 함께 시민사회 발전과 차세대 NGO를 이끌어 나갈 젊은 시민사회 리더 양성

을 목표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 활동은 전국 주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NGO 단체에서 인턴십 참여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NGO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히 방학기간 동안 경험 획득이나 NGO 단체에 단기적 인력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NGO의 발전 및 차세대 NGO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총 785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의 인턴으로 선발되고 전국에 위치한 75곳의 NGO단체에 배치됐다. 이들은 8주간의 활동을 통해 NGO 활동과 운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의 필요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접할 수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고양을 취지로 진행되는 봉사활동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인턴기간 급여와 수료증이 수여된다. 활동기간 중 하루를 '나눔의 날'로 정하고 인턴들이 직접 사회봉사 활동에 나서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월 서울 동대문구와 노원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 연탄 1만2000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씨티은행은 해비타트와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른 생각, 다른 미래"라는 씨티은행의 비전처럼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만 지원되지 않는 분야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ji@

## 청소년 금융교육 '씽크머니'... 새터민으로 확대

씨티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은 청소년·다문화·글로벌·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금융소외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긍정적 변화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씨티은행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함양하고 셀프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씽크머니' 교육과정이다. 씽크머니 프로그램은 씨티은행과 한국YWCA연합회가 공동으로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 왔다.

지난 8년 동안 강사교육을 받은 543명의 씨티은행 직원과 1022명의 YWCA 강사를 통해 35만6000여명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했다. 현재 청소년 외에 다문화 이주여성성을 포함한 학부모들과 새터민 등 보다 많은 금융 소외계층이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씽크머니는 학년별 수준과 학교 교과과정에 맞춰 지체 교재와 교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금융교육 표준안과 6년간 전국에서 실시한 씽크머니 현장교육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재를 전면 개정,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위한 '씽크머니 금융교실' 교재 2종이 서울시교육감 인정 교과서로 승인받아 출판되기도 했다.

씨티은행은 또 2011년부터 다문화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씨티-JA 히어로 프로그램(Hero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지역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및 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습지도 봉사자와 씨티은행 임직원 멘토를 학생들과 결연해 진행된다.

'씨티-JA 히어로' 다문화 어린이 지원  
씨티글로벌 봉사 전세기서 동시 진행

지난 2년 동안 씨티은행 임직원 130여명과 대학생 150여명이 멘토로 참여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300여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씨티은행 임직원 멘토 40여명과 대학생 멘토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씨티그룹은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각국에서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년에 한 번 전 세계 씨티 직원·가족·친구가 하나 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를 향한 공동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다. 지난해에는 세계 95개국에서 6만여명의 씨티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다. 한국씨는 '그린 씨티, 클린 씨티(Green Citi, Clean Citi)'라는 구호 아래 25개 지역에서 66종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작년 6월 한국씨티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및 가족·친구·사외이사 등 4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 참가자들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성과 독창성 그리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세 가치를 기본 원칙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ji@

이투데이는 굿네이비스를 후원합니다



올해 대회의 주인공은 방글라데시의 어린 가장 '아리프'입니다

굿네이비스 지구촌나눔가족 희망편지쓰기대회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영성을 통해 지구촌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희망편지'를 작성하여, 나눔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전국대회입니다.

## 올해도 편지 하셨나요?

굿네이비스 희망편지쓰기대회가 벌써 6화째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에도 가족의 일상에도 '나눔'이 든든히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글짓기 솜씨가 없어도, 글씨가 뽀뽀뽀뽀해도 진심 하나면 됩니다

우리 가족 나눔 첫 걸음 - 제6회 굿네이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기간 | 2014년 3월 3일~5월 30일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가족

수상자발표 | 2014년 6월 말 (hope.gni.kr 공지 및 개별 통보)  
문의 | 굿네이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운영본부 02-3278-2284



# 목소리 커진 국민연금, 그래도 '식물주주'

5%이상 보유 87곳... 평균지분 7.98% 불과  
대주주 우호지분 막혀 의결권 행사 어려워

최근 의결권 강화에 나선 국민연금이 순환출자에 따른 대주주 우호지분에 막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대 그룹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87개사의 국민연금 평균 지분은 7.98%인데 반해 이들 기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 우호지분은 37.01%로 국민연금 평균 지분의 4.6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183개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87개사의 국민연금 평균 지분율은 7.98%. 투자지분 가치는 51조240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12.74%를 보유한 LG상사였고 삼성물산(12.71%), CJ제일제당(12.69%), SKC(12.53%), 제일모직(11.63%), LS(11.39%), LG하우시스(11.34%), 롯데푸드(11.32%), LG이노텍(11.22%), 현대건설(11.17%)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국민연금이 주요주

주인 87개사의 대주주일가 및 우호지분은 37.01%로 국민연금 지분의 4.6배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9.2%의 지분을 가진 롯데하이마트는 대주주일가 및 계열사 우호지분이 65.3%에 달해 7배나 많았으며 국민연금이 10.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세계인타내셔널은 대주주 우호지분이 68.2%로 6.8배나 높았다.

국민연금 지분이 9.2%인 대우인터내셔널도 대주주 지분이 60.3%에 달해 6.5배였고 유니트 역시 국민연금 지분 10.4% 대주주 우호지분 55.7%로 5.3배였다.

이들 87개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회사는 8개, 2대 주주인 회사는 38개에 이르고 있지만 대주주일가 및 특수관계인들의 우호지분을 넘어서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다.

이처럼 대주주 일가가 순환출자로 인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특수관계인 등 보이지 않는 우호지분도 대거 확보하고 있어 최근 본격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선 국민연금의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횡령이나 배임 등 비리 경영진의 퇴진은 물론 대주주의 전횡조차 견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75%로 높이고 사외이사 계열사를 돌려 장기 재임하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만들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지스마트와 경영위기 탈출”  
‘아군’ 얻은 에스티아이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통해 에스티아이 대표이사로 올라서는 이호준 지스마트 사장이 이원화 전략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적 악화 국면에 접어들어 에스티아이 역시 지스마트와의 사업 제휴 등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호준 사장은 12일 “지스마트는 스마트 클래스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전념하고 에스티아이는 기존 사업과 함께 지스마트 영업, A/S, 렌탈사업 등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의 스마트 클래스의 상담과 계약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에스티아이의 실적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스마트는 투명전광유리(이하 스마트 글라스) 제조업체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마트 글라스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다. 특히 5건, 특히 출원 8건에 기반한 지적 재산권과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300억원을 투자해 전 자동화 생산 시설을 갖추었으며 대량 생산 준비를 마쳤다.

지스마트는 2012년 매출액 41억원, 영업이익 23억원, 순이익 21억원을 기록했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하나대투증권  
‘주마추2’ 이벤트

하나대투증권은 스마트폰 주식거래 어플인 ‘스마트하나HT’를 통해 주간 추천종목 중 상승률 상위 종목과 주가 상승 등락을 맞히는 이벤트 ‘주마추2’를 오는 5월2일까지 8주간 실시한다. 추천종목 중 당일 최고 수익률을 보인 4개 종목을 맞힌 당첨자를 오는 4시에 발표하고, 전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 “비밀계좌 고해성사하세요”

금감원, 증권사 임직원에 공문 보내 자체정리 요구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는 비밀계좌를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거래하는 증권사 직원들의 행위가 만연한 것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12일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증권사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정리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정리 기간 이후에도 규정을 어기고 몰래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임직원

들이 자체 정리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주문한 계획이다. 이처럼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들 주식투자 부분을 살펴봤다고 선언한데는 그동안 증권사 임직원들이 몰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의 부국증권 부문검사 결과에서는 한 임원이 다른 증권사에 어머니와 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과 옵션 등을 거래하다 문제가 생기자 회사에 손을대는 일이 들쭉날쭉도 됐다.

현재 검사 결과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임직원과 증권사에 제재가 가해지고 개인에게는 별도로 과태료가 최고 5000만원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 khj@

레노버, 모토로라 인수·신용등급 강등·스마트폰 부진

## LG전자 연이은 ‘신저가 행진’

LG전자가 연일 신저가를 갈아치우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LG전자 주가는 11일 전일보다 0.33% 내린 5만9800원을 기록했다. 종가가 6만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2년 7월 26일(5만9800원) 이후 처음이다. LG전자는 올 들어서만 10.7% 하락했다.

특히 2002년 4월 22일 상장 당시 주가가 6만2936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2년 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시 삼성전자, 현

대차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말욕적’이다.

LG전자가 맥을 못 추는 것은 레노버의 모토로라 인수와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치명타를 입은 데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진이 LG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신용등급 강등 판정을 받은 것이 타격이 컸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린 지난달 6일 전후로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다.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에 나섰다. 외국인들은 올해 초부터 등급 하락 이전인 지난 달 5일까지는 LG전자 주식을 119억원어치 순매수했으나 등급 하락 이후에는 매도세로 돌아서 전날까지 271억원어치 내다팔았다. 기관도 외면했다. 기관은 올 들어서만 1280억원 순매도했다.

이처럼 악재들이 겹치면서 증권사의 평가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신한금융투자가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1% 하향 조정한 점, 삼성증권도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목표 주가를 8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각각 떨어뜨렸다.

문선영 기자 moon@

## ‘도덕성 암초’ SMEC, 유증은 ‘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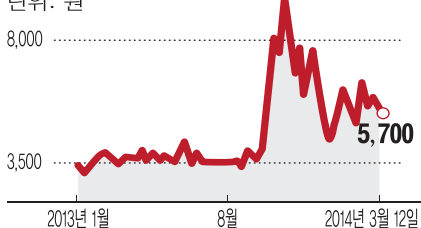
226억 규모 주주청약률 93%

지난해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던 에스엔이씨(SMEC)의 주주청약률이 93%를 넘어섰다. SMEC는 지난해 유상증자를 앞두고 2대 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도해 투자자로부터 공본(公憤)을 산바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MEC는 지난 10~11일 이들 간 226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과 470만주 모집에 438만6320주가 몰려 청약률 93.3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주주 배정과 청약 과정에서 발생한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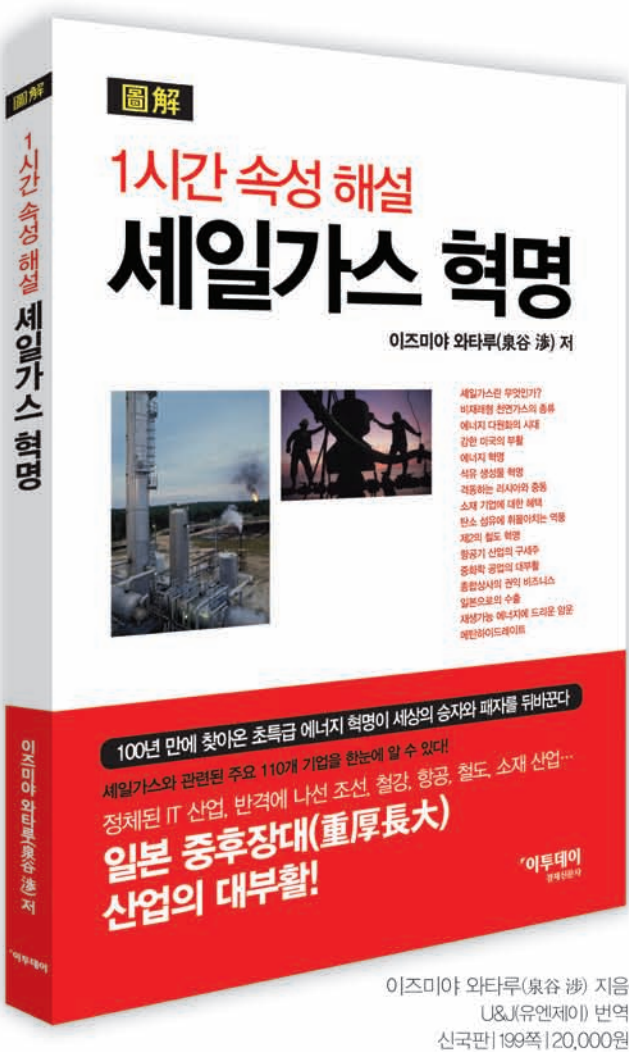
SMEC 주가 추이



수주 및 실권주 31만3680주는 일반공모로 처리할 예정이다. 일반공모 청약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들 간 진행되며 신주는 오는 28일에 상장된다.

SMEC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앞두고 사내 이사가 대표로 있는 2대주주가주식매각으로 논란을 빚으며 시장의 신뢰를 잃자 유상증자에 실패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결국 사내이사가 사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후 2차 발행가액 산정에서 기준주가가 25%할인율이 적용되며 4125만원으로 유상증자 가격이 확정됐다. 이는 전일 SMEC의 종가인 5700원보다 1575원 낮은 상황으로 투자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 94%에 달하는 청약률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정 기자 imj@



# 꿈의 에너지 세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세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세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세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세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세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세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세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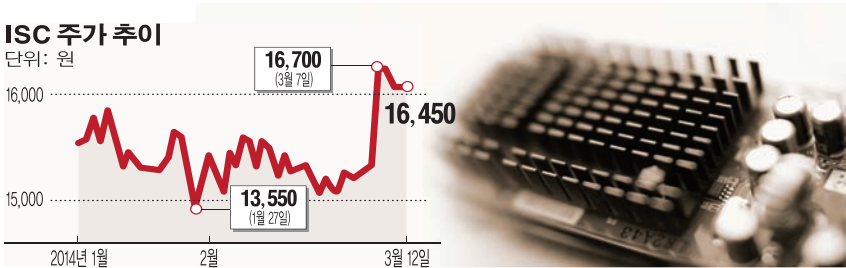
# ‘2인자’ 삼킨 ISC “글로벌 영토확장”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소켓 글로벌 1위 업체인 코스타 상장사 ISC가 2위 업체인 일본 JMT를 인수한다. JMT의 탄탄한 특허권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1등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ISC는 JMT 인수 자금과 기타 자금 마련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70억원 중 JMT 지분 100%를 인수하기 위해 22억3000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소켓은 스마트폰·자동차·정보기술(IT) 등에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집적회로(IC) 칩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제품이다.

ISC는 JMT를 인수하면 기술력 확보를 통한 시장 확대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JMT는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소켓 부문에서 연간 6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일본 기업이다.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ISC의 10% 정도에 불과한 기업이지만, 이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16개국에 32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즉, ISC는 자체 기술과 JMT의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신기술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으며, JMT의 특허권을 활용해 다양한 시장 방어가 가능하다.

특히 ISC는 이번 인수로 JMT가 진출한 국가를 쉽게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JMT의 고객은 일본, 대만 등에 소재한 반

도체 업체로, 이들 국가는 ISC가 진입이 어려웠던 국가다.

회사 관계자는 “JMT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글로벌 1, 2위의 좋은 기술이 결합되면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글로벌 매출 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일본 기업을 직접 인수하며 조금 약한 대만, 일본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1000억 어디 썼나... ‘속모를’ 알란텀 ‘속타는’ 영풍家

### 총수일가 수혈·감자에도 자본잠식... 추가 지원여부 관심

영풍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알란텀 때문에 그룹 총수일가의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다. 회사 설립 이래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나고 수백억원의 적자가 나는 등 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감소를 실시했음에도 대규모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되면서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알란텀은 지난해 23억원의 매출과 241억원의 영업손실, 23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직전연도 50억원에서 반토

막이 났고 영업·순손실 규모는 각각 206억원, 191억원에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영풍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알란텀은 2008년 8월 설립된 디젤차량용 매연저감장치 개발·제조 업체다. 영풍그룹이 사업 영역 다각화를 위해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 회장을 필두로 설립했으나 현재는 외부자금 수혈 없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작년 말 현재 최 명예회장 29.09%, 최 회장 아들인 최내현(최 제인스 성) 알란텀 대표 26.73%, 코리아니켈 17.97%, 고려아연 16.70%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영풍그룹과 최 명예회장 등 총수일가는 설립 초부터 알란텀에 운영자금을 수

혈했다. 고려아연과 코리아니켈, 영풍 등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820억원을 지원했고 최 명예회장과 최 대표, 장형진 영풍 회장의 아들인 세준·세환씨도 지원에 나섰다. 특히 최 회장 부자(父子)가 2010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투자한 자금만 695억원에 달한다.

알란텀은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실적은 좀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알란텀은 설립 이듬해인 2009년 7억원의 매출과 84억원의 영업손실, 5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1년에는 영업손실 155억원, 순손실 111억원이 발생했으며 2012년 이후로는 매출 성장세가 꺾이고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토비스 최대주주 일가 12만주 매수

토비스 최대주주 일가가 장내 매매를 통해 12만주가 넘는 회사 주식을 사들여 향후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토비스의 최대주주인 김용범 대표의 아내 정미정씨와 자녀 3명(김산·김민·김지우양)이 지난 7일 각각 3만800주씩을 장내 매수하며 총 12만3200주를 취득했다. 이들이 이번 주식 취득을 위해 들

인 금액은 8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김 대표의 아내와 자녀들도 주주에 이름을 올리면서 특수관계인에 포함, 특수관계인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수는 기존 234만 2051주(지분율 14.01%)에서 246만5251주(14.75%)로 늘어나게 됐다. 토비스 관계자는 “개인적인 여유 자금



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서 지분을 늘린 것”이라며 “주가 부양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반도체 테스트 소켓 세계 2위 JMT 인수  
원천기술·특허확보...매출확대 드라이브

### 공시 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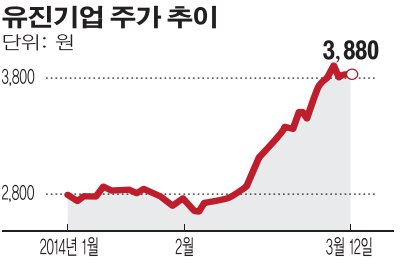
유진기업 추가급등하자 사장도 소장도 “다 팔자”

## 불 붙은 주가에 찬물 붓는 임원들

유진기업이 실적 개선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호재에 급등하는 사이에 주요 임원들이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에 불과하지만 한참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진화 유진기업 사장은 지난 7일 보유주식 4만2368주를 장내에서 처분했다. 처분단가는 주당 3839원으로 이번 주식 매도를 통해 정 사장은 1억6000만원 가량을 현금화했다. 류득현 연구소장 역시 같은 날 보유주식 2만3217주를 전량 처분했다.

유진기업은 최근 잇단 호재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84억 44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대비 흑자 전환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주가주거 극대화와 자본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자사주 형태로 보유 중인 216만3043주를 소각



하는 방식의 감자(자본감소)다. 일반적으로 감자는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하지만 유진기업의 이번 감자 공시는 호재로 여겨졌다.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는 데 비해 발행주식 수가 그만큼 감소,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식소각 공시가 이후 유진기업의 주가는 6거래일간 12.14% 올랐다. 연초부터 따지면 유진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36.86%에 달한다.

이번 주식 처분으로 정 사장과 류 소장의 보유주식은 '0'가 됐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 ‘고배당’은 옛말... 고개숙인 에이블씨엔씨

### 배당성향 증가했지만 규모는 줄어

화장품 브랜드 ‘미샤’로 유명한 에이블씨엔씨가 실적 부진에 고배당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배당성향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는 당기순이익이 급감해 나타난 착시효과일 뿐 실제 배당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는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가배당율은 1%이며, 배당금 총액은 34억1118만원이다. 에이블씨엔씨는 2009년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0원에서 2012년 500원으로 꾸준히 고배당 기조를 유지했다. 배당성향은 2010년 이후 13%대였다. 배당성향이란 회사가 당기순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를 배당금으로 돌려주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배당은 이익을 주주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해 당기순이익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에이블씨엔씨의 배당성향은 2012년 12%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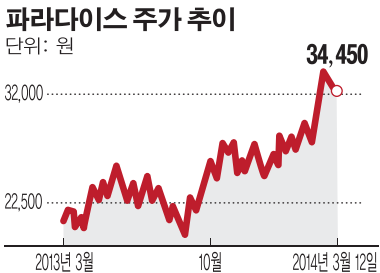
서 2013년 27%로 증가했지만 배당 실속은 전만 못하다는 평가다.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지난 3년 간(2010~2012) 246억원에서 42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에이블씨엔씨의 DPS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배당성향이 10% 이상 유지된 것도 이 기간이다. 그러나 2013년 126억원으로 2012년 대비 70%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 영업이익까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부진’에 빠졌다.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당기순이익이 많이 빠져서 배당성향이 높아진 것뿐 실제 DPS(주당배당금)는 낮아졌다”며 “그러나 고배당 회사의 경우 배당성향이던 DPS던 줄어 들면 부정적 신호로 인식되기 때문에 고배당 정책은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이블씨엔씨의 최대주주는 지분 28.04%를 보유하고 있는 서영필 대표다. 서 대표는 9억5513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억원 줄어든 규모다.

황윤주 기자 hyj@



## ‘신고가 랠리’ 파라다이스 법인세 환급까지 ‘책판’

파라다이스와 과세 관청으로부터 14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환급받게 된다.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파라다이스는 이번 법인세 환급 조치에 따라 올해 1분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파라다이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39억7100만원의 법인세를 환급받는다고 밝혔다. 환급가산금을 포함하면 총 152억1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1년 법인세제 통합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 148억7600만원에 대한 환급금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6~2010년 법인세 신고·납부 내용에 대해 2011년 통합세무조사를 벌인 뒤 같은해 10월 파라다이스에 148억원의 추정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VIP 유지 비용을 매출원가가 아닌 접대비로 인정하며 148억원을 추정했다. 카지노 업체들은 외국인 VI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매출 대비 20% 이상 사용하는 데 국세청은 이를 원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파라다이스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 소송을 벌였고, 조세심판원은 최근 법인세 환급을 결정했다. 김미정 기자 mjik@



# I'Lavita

일'라비타

ITALIAN LIFESTYLE CONCEPT STORE

OPEN 2014.02.28(FRI)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HYUNDAI DEPARTMENT STORE  
MAIN STORE · B2F · 02)547-2233



Photographer\_Rodney Smith



사전계약 중 | sonata.hyundai.com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빼고, 빼고 나면

남는 단어의 동사

**| RUN | TURN | STOP | PROTECT |**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네 가지

3월 24일

본질로부터

**SONATA**